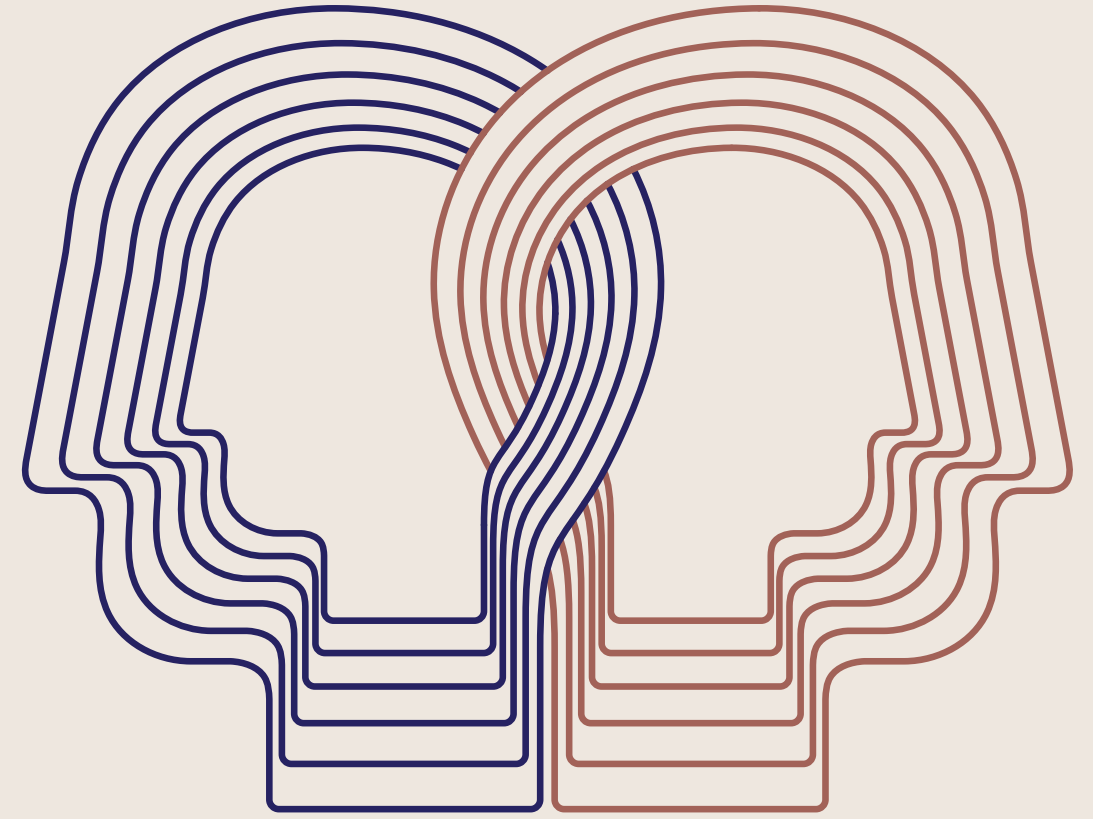


함께 만드는 미래  
Creating a Better Future Together

2024 유네스코 뉴스레터 모음집



# 2024 유네스코 뉴스레터 모음집



유네스코 뉴스레터 구독하기



정기후원 참여하기



**2024**  
**유네스코 뉴스레터**  
**모음집**

# 목차

## 01 이슈쿠키

'창백한 푸른 점'과 바다의 미래	10
누군가를 '극혐'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까	15
어쩌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20
'삼체' 속 예원제의 외로움에 공감한다면	24
데이터와 문제 해결의 상관관계	29
전해져야만 하는 이야기들	33
남녀 선수 '50대 50', 그 다음 이야기는	38
딥페이크, AI, 그리고 '좋은 기술'의 조건	43
'코로나 베이비붐'과 현실적 유토피아	48
'수능이 끝이 아닌 교육' 상상하기	54
지구는 '인류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59

## 02 알쓸U잡

'백지장'도 '과학'도, 맞들면 나은 이유	66
로레알, 프라다, 루이비통×유네스코=♥	69
'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과 백두산. 일타강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73
지금 올림픽 성화는 세계유산 순례 중	76
인류 문화의 백업본, 달에 보내요	80
세븐틴, 유네스코 친선대사가 됐다고?	83
유산 보호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	87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모든 것	91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금의 흐름	95
나도 '제로 웨이스트' 할 수 있을까?	99
문학이 온다, 번역이 온다, 평화가 온다	103

## 03 유네스코 Talks

인공지능에게 우리 아이 공부를 맡기기 전에	스튜어트 J. 러셀(UC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	110
AI 시대의 내 일자리, 두려워하거나 준비하거나	호르헤 셀라(마이크로소프트 필란트로피즈 아메리카 지역 디렉터)	113
한국의 대 국제기구 기여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홍승목(전 네팔대사)	116
디지털 시대에 종이책이 주는 경험이란	더글러스 러시코프(작가)	119
늘어나는 한국,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워야 할까?	채재은(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121
알레allez 알레allez 알레allez, 교육의 마법을 느껴봐	살리프 트라오레(유네스코 교육 친선대사)	124
큰 퍼즐판에 '한 조각'이어도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김유선(제23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수상자)	127
모두에게 미래를 대비할 기회를 주는 것도 교육 기술의 책무	이수인(에듀테크기업 에누마(Enuma) 대표)	130
해녀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소명이라	장영미, 김형미(제주 해녀들)	134
'경기미래교육'이 꿈꾸는 교육의 미래란?	임태희(경기도교육감)	137
지속가능발전, '사람'을 중심에 두는 환경정책설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곽영훈(세계시민기구 대표)	140

## 04 따끈따끈 파리통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도 OT가 있다?!	146
길이는 1분, 올림은 100배	148
유네스코와 슈퍼 선거의 해	150
유네스코에서 일하는 n가지 방법	152
백 년 만의 파리 하계올림픽을 맞이하며	154
쉴, 발자국을 남기지 마세요	156
또 다른 모두의 올림픽, 패럴림픽의 진짜 의미	159
미슐랭 스타 셰프! 그런데 지속가능성을 한 스푼 곁들인	162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미리 만나본 '썰'을 품니다	165
동시통역사가 사라진 날	167

## 05 함께 기억해요! 세계 기념일

[세계 교육의 날] 포용적인 교육을 향한 꿈	172
[세계 라디오의 날]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175
[세계 물의 날] 영화 '들펀'에서 나온 생명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178
[세계 예술의 날] 잔나비시사가 부릅니다, 비비의 밤양갱	181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SNS를 뒤덮은 '크루키!' 그런데 이거, 다양성 맞아..?	185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의 재사용사용사용	188
[세계 인구의 날 '삼둥이' 가족도, 비혼족도,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	192
[세계 청년의 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196
[세계 문해의 날] 나의 언어, 너의 언어, 우리의 마음	199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주간] 무한반복 아-파트, 즐길 땐 즐기더라도!	203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개구리도 침팬지도 우리 모두의 룸메이트!	206
[세계 인권의 날] Defying Gravity - 누구도 우릴 억누를 순 없어요	210

# 온라인으로 전달된 지식을 종이책에 다시 담으며



◀ 유네스코 뉴스레터 구독하기

1964년 창간 이후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해 온 『유네스코뉴스』가 2024년 2월부터 온라인 뉴스레터로 전환되었습니다. 매월 잡지 형태로 후원자, 유네스코 학교 교사와 학생 및 유네스코에 관심 있는 독자와 만나던 『유네스코뉴스』는 온라인 전환 이후 매월 세 차례(정기 발행 2회, 세계기념일 특별호 1회) 독자들의 메일함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종이책 형태 『유네스코뉴스』의 마지막 호에서 밝혔듯, 온라인 매체로의 전환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으로서 보다 시의적절하게,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독자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한 자주, 그리고 단순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뉴스'를 알리는 일을 넘어 독자들의 일상에서 '의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저희는 종이라는 공간을 넘어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한 차례, 5천 부 가량이 인쇄돼 독자들을 찾아가던 『유네스코뉴스』는 이제 매 호마다 1만 명 이상의 독자들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편집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떤 기사에 독자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독자들이 어떤 소식을 더 궁금해하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는 어떤 것을 더 바라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만큼, 저희는 다음 번에 발행될 우리의 뉴스레터가 여러분의 하루에, 나아가 일상과 인생에 좀 더 나은 의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진은 2024년 2월 이후 연말까지 발송된 『유네스코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들을 한 데 모아 『2024 유네스코 뉴스레터 모음집』을 발간합니다. 더 많은 독자와 더 긴밀하고 편안한 소통을 하고자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환이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한 분들이 없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과 온라인의 시대에도 종이책의 가치는 여전히, 온라인 기사의 '백업'으로서 인쇄본에서 느껴지는 든든함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온라인 전환 과정에서 빠짐없이 새겨 들었고, 이번 모음집 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모음집을 발간함으로써 저희가 온라인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로 조언해 주신 여러분의 목소리를 흘려보내지 않았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더불어 비록 몇 달 지나버린 기사들일지라도 종이라는 옷을 입고 다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 설렙니다. 올 한 해 동안 유네스코가 고민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들을 찬찬히 살펴주시고, 또 의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좀 더 '따끈따끈할 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가능하시다면 뉴스레터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진 드림

# 유네스코 뉴스레터 사용 설명서

이 모든 이야기 +α는  
유네스코 뉴스룸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 ‘내 본라인이야’라고 들으신다면

『유네스코뉴스』는 1964년부터 꾸준히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신문 형태로, 이후 잡지 형태로 매달 발간되다가 2024년 2월부터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저희의 정체성과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유산’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독자들이 더 궁금해 하는 것, 더 알고 싶어 하는 지식, 더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 빨리, 더 자주, 무엇보다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물리적 공간을 넘어 더 많은 독자, 더 많은 시선과의 ‘관계맺기’를 시작해 봅니다.

## 그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이 닿지 않는 곳도 챙기겠습니다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드러운 종이를 넘기면서 머리뿐만 아니라 감각과 감성으로 유네스코의 지식을 접하던 즐거움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저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때론 디지털 방식을 뛰어넘는 보존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 물리적 기록물의 가치를 가버려여 가지 않는 것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유네스코로서 당연한 일이라고도 믿습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독자들께 발송되던 뉴스레터 모음집을 종이책으로 발간해 필요한 분들께 전하겠습니다.

## 유네스코는 교육에 ‘진심’입니다

70여 년 전, 6.25 전쟁으로 한반도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을 때 유네스코가 한국에 지원한 건 교과서 인쇄공장이었습니다.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여 무럭무럭 자란 어린 아이들 중 한 명이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유네스코는 그만큼 지식에 진심이에요. 특히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와 교육 격차, 사회 갈등 심화 등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문제에 대비하여 유네스코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을 통해 미래 변화를 예측·선도하고, 누구도 빠짐없이 ‘좋은 교육’을 받으며, 다양성이 존중받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 유네스코 뉴스레터,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간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지만 인사이트를 교박교박 얻고 싶나요?
  - 국제 이슈와 지식에 대한 갈증을 풀고 싶나요?
  - 지속가능한 지구,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고민하나요?
- ☞ 일단 구독 신청부터 해 보고 살펴 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게 바로 정답!

## 내 삶에 의미가 되고 새로운 가치를 주는 지식

유네스코 뉴스레터에는 가볍고 쉽게 읽히면서도 읽고 나면 배우고 남는게 있는, 그래서 더 알리고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가 담깁니다. 단순한 정보만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유네스코의 관점이 들어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 유네스코 뉴스레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

뉴스레터 코너는 유네스코의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총 5개 코너가 번갈아가며 소개될 예정이에요.

### 이슈쿠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유네스코와 한국의 관점에서 큐레이팅합니다.

### 알쓸U잡

알아두면 어디서든 쓸 데 있는 유네스코 잡학지식 이야기. 유네스코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와 정확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주로 유네스코 주요 사업(유산, 권고협약, 총회 등)에 관한 분석, 해석, 의미가 담길 예정이에요.

### 유네스코 Talks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이 코너를 기다려주세요. 유네스코 무대에서 채택된 각종 국제적 표준 규범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사회문제에 관해 각종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 따끈따끈 파리통신

한국과 유네스코. 가장 빠르고 유익한 근황 업데이트를 전합니다.

### 함께 기억해요! 세계 기념일

매월, 월별 세계 기념일과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검색 기능이 강화된 뉴스룸 웹사이트를 통해 기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 안에 있는 여러 전문가, 활동가, 참여자 및 후원자들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가볍게 자주 만나요! 가벼운 마음으로 와주세요. 늘 고맙습니다.

# 이슈쿠키

2024.02.08	'창백한 푸른 점'과 바다의 미래
2024.03.14	누군가를 '극혐'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까
2024.04.11	어쩌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2024.05.09	'삼체' 속 예원제의 외로움에 공감한다면
2024.06.13	데이터와 문제 해결의 상관관계
2024.07.10	전해져야만 하는 이야기들
2024.08.08	남녀 선수 '50대 50', 그 다음 이야기는
2024.09.12	딥페이크, AI, 그리고 '좋은 기술'의 조건
2024.10.10	'코로나 베이비붐'과 현실적 유토피아
2024.11.14	'수능이 끝이 아닌 교육' 상상하기
2024.12.12	지구는 '인류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10

63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유네스코와 한국의 관점에서  
큐레이팅합니다

### 지속가능한 지구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지분은?

'Pale Blue Dot Revisited, 2020'

NASA/JPL-Caltech, public domain

## '창백한 푸른 점'과 바다의 미래

여기, 무한의 검은 공간 안에서 홀로 푸르게 반짝이는 점 하나가 보이나요?

지난 1990년, 지구로부터 60억km 거리에서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던 나사(NASA, 미 항공우주국)의 탐사선 보이저1호가 '고향'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우주 지식 대중화의 선구자로 꼽히는 칼 세이건(Carl Sagan) 박사는 여기에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란 이름을 붙였죠.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밟고 살아 온 지구가 얼마나 작고 소중한 보금자리인지를 일깨워 주는 20세기의 기념비적인 사진 중 하나입니다.

겨우 점 하나로 보일 뿐임에도 우리 지구는 분명히 푸른 빛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표면의 3분의 2가 바다로 덮인, '바다의 행성'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 푸른 바다의 품 속에서 어느날 생명이 탄생했고, 생명체들의 진화와 멸종의 순환 속에서 인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나이에 비하면 정말 찰나에 불과한 시간 만에 인간은 이 바다의, 나아가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영원히 품어 안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던 바다는 지금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릴 먹여 살리던 어종의 수가 급감하고,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호초는 하얗게 죽어가고, 곳곳에 산소가 부족한 죽음의 해역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변화의 '폭'보다 '속도'입니다. 엄청난 적응력으로 자연의 변화에 스스로를 맞춰 왔던 생태계는 현재의 급격한 변화 추세를 견딜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더라도 우주에서 본 지구는 여전히 푸르게 빛나겠지만,

만, 생명이 없는 '창백한 푸른 점'은 더 이상 드넓은 우주에 그 어떤 이야기도 전해지지 못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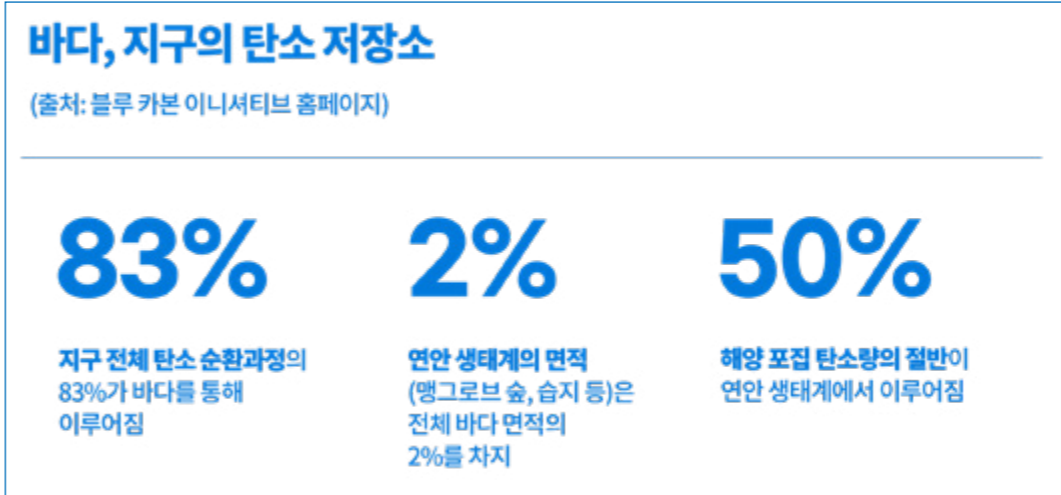
### 문제는 탄소 - 기후위기 대응과 '블루 카본'의 역할

유네스코는 바다를 지키는 길이 곧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중요한 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네스코가 산하에 바다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혜와 자원을 모으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를 두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열쇠는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줄이는 데 있고, 바다는 바로 그 탄소를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닷물을 비롯해 맹그로브 숲과 연안 습지, 바다 식물 등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블루 카본(blue carbon)'이라 합니다. 바다가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저장하지 못했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을 겁니다. 사실 '탄소 흡수' 하면 우리는 먼저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북반구의 광활한 툰드라 삼림 지대를 떠올리지만, 과학자들은 바다가 블루 카본 형태로 포집하는 탄소의

양은 전체 숲이 흡수하는 탄소량보다 2-4배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블루 카본 생태계는 풍부한 식량 자원의 생산지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해양 커뮤니티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보금자리 역할,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을 정화시키는 필터 역할, 그리고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방파제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다, 특히 해안 지대의 블루 카본 생태계가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생태계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연안 생태계의 면적은 현재 열대 우림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각종 개발과 기후변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19세기 이후에만 지구상 거의 절반에 달하는 연안 습지가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약 0.5-3%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블루 카본 생태계가 사라지면 그간 바닷속에 포집돼 있던 온실가스도 다시 대기 중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방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현재 전 세계의 삼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분의 19%를 차지합니다. 유네스코 IOC가 무엇보다 블루 카본 생태계 보전 및 연구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서 막을 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보여주었듯, IOC는 세계자연보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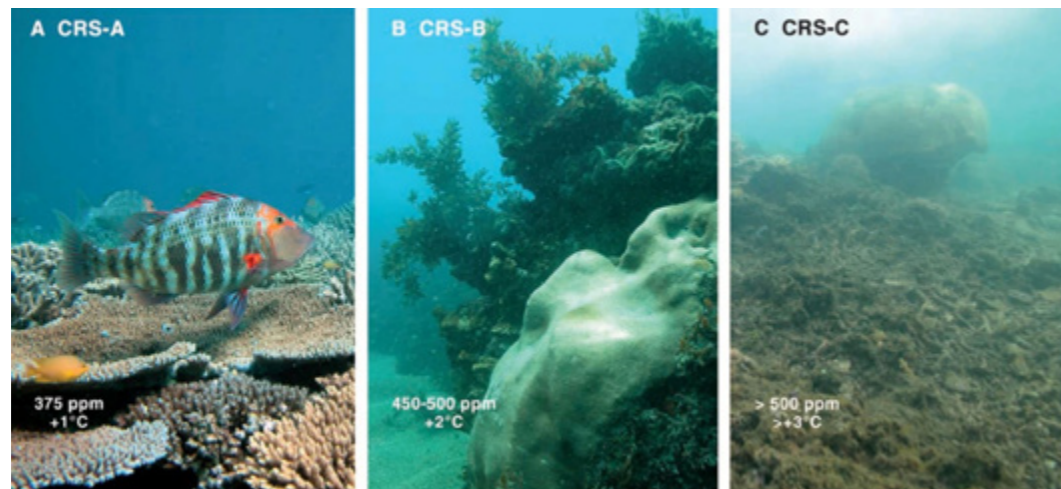
맹(IUCN) 등과 함께 블루 카본 이니셔티브(BCI)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호주 정부와 함께 블루 카본 국제 파트너십(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Blue Carbon, IPBC)을 설립해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부와 NGO, 연구소 등을 규합해 블루 카본의 역할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산성화되는 바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때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며 백두산 높이보다 훨씬 깊은 3700m의 평균 수심을 갖고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부피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조금씩 산성화(acidification)되고 있습니다. 탄소 흡수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서 중탄산염과 수소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수소이온의 농도(pH)가 높아지면서 바닷물은 산성화됩니다. 한국 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따르면 바다의 산성도는 산업혁명 이후 약 30% 증가했고, 현 추세대로라면 21세기 말까지 바닷물의 pH가 약 0.2-0.4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sup>2</sup>

물론 약염기성인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산성화

된다고 해서 산성 바닷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기 중 산소 농도가 5%포인트만 떨어져도 우리 몸에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듯, 미세한 pH농도의 변화는 바닷속 생명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플랑크톤을 비롯해 산호나 조개, 게 등 바다 생물들이 뼈나 껍질 등의 조직을 구성하는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데 애를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해수에 녹아있는 탄산이온을 바탕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만드는데, 수소이온들은 이보다 먼저 탄산이온과 반응해 중탄산염을 형성함으로써 이를 방해합니다. 결국 탄산을 중심으로 한 바닷물과 해양생물군의 복잡한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고, 이는 수많은 해양 생물종의 존속에 위협이 되는 동시에 바다가 탄소를 포집·활용·저장하는 사이클이 망가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그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산호초도 해양 산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온 상승과 산성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인 산호초가 소실된다면 생물다양성, 식량 감소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로부터 해안 지대를 지켜주는 완충 지대가 사라짐으로써 지구 곳곳의 연안지역사회의 생존도 위협받게 됩니다.



지난 2007년 IPCC가 내놓은 보고서에 실린, 해수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산호초 및 주변 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 현재보다 수온이 약 3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150ppm 이상 높아질 때 산호초는 생명의 보금자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게 될지도 모른다

산성화와 더불어 탈산소화(deoxygenation)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변화입니다. 경작지에 쓰인 비료나 공장에서 배출된 화학물질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바다의 부영양화가 진행된다면 바닷물 속 산소 용존량이 줄어들고, 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 해양에 용해되는 산소량 자체도 줄어듭니다.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유네스코 IOC 등과 협력해 발간한 보고서 『Ocean Deoxygenation: Everyone’s Problem(해양 탈산소화: 우리 모두의 문제)』<sup>3</sup>는 1960-2010년 사이 지구 바닷속 산소량이 약 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습니다. 이러한 탈산소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 그리고 인간 활동으로 인한 바다의 부영양화에 기인한 생물화학적 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미래 바다의 변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바다에 스트레스를 주는 서로 다른 요인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바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무지합니다. 기후위기를 상쇄하는 바다의 세부 매커니즘에 대해서도, 산성화나 무산소화 같은 위기 징후의 정확한 원인과 추세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탈산소화는 지구 대기 및 해수 온난화와 관련이 있고, 산성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와 같은 바다의 변화는 다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대기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불균형이 더욱 악화됩니다. 이 거대한 전 지구적 균형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대책을 인류는 아직 내놓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바다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 더 잘 알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이전과 같지 않기 위해

바다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인류에게 미지의 영역이

며, 이 광대한 해역을 포괄하는 전 지구적 변화를 추적·관찰·분석하기란 현대 기술로도 벅겁습니다. 따라서 바다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바다를 더 많이 연구해야만 합니다. 유네스코 IOC가 바다에 관한 더 폭넓고 과학적인 연구를 강조하는 이유도, 유엔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년’<sup>4</sup>으로 지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난 COP28의 합의문 결정 과정에서 각국 대표들은 ‘화석연료 퇴출’이란 표현을 두고 예정된 폐막일을 하루 가까이 넘기면서까지 격론을 벌였고, 결국 해당 문구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으로 바뀌면서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류는 아직까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일사불란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은 각기 그들대로, 경제개발과 각국 국민들의 삶과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정말 다양한 시각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가 당장의 실제적인 위협임에도,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정치적인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기브엔테이크’의 냉정한 정치적 계산을 넘어 왜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그러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보다 과학적인 지식을 들고나와 세계에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따뜻한 상호 이해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프론티어(frontier)인 바다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더 잘 알게 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푸른 바다를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나면 그 이전과 이후는 같지 않게 되겠죠. 사랑에 빠지는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목구멍에 걸리고 온몸이 그물



에 칭칭 감긴 펭귄이나 물개의 안타까운 영상을 접하며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우리의 생활 패턴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바다를 사랑하는 방법의 일부일 뿐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으로부터 새로운 영감과 공존의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으며, 균형잡힌 해양 개발 및 환경에 대한 고민을 통해 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바다의 미래를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심과 호기심이, 이 바다의 행성을 향한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따뜻한 연대의 파도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바다에 주목하는 유네스코의 활동에 함께해 주실 거죠?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1 <https://www.ioc.unesco.org/en/blue-carbon>  
 2 [https://kiost.ac.kr/cop/bbs/BBSMSTR\\_00000000011/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FF68EA4C1BE1B100066D57EAD50C68E?nttlId=16851&pageIndex=3&searchCnd=&searchWrd](https://kiost.ac.kr/cop/bbs/BBSMSTR_00000000011/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FF68EA4C1BE1B100066D57EAD50C68E?nttlId=16851&pageIndex=3&searchCnd=&searchWrd)  
 3 <https://en.unesco.org/sites/default/files/iucndeoxreportbook15-11-2019.pdf>  
 4 <https://oceandecade.org/>

2024.03.14

교육

미디어정보리터러시

### ‘혐오사회’의 골레에서 벗어날 방법



© 셔터스톡

## 누군가를 ‘극혐’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까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총선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뜨겁고, 몇몇 정치인들의 거친 말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내뱉는 입과 글을 쓰는 손끝이 거친 쪽은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 공간에서 그 대상을 향한 비난과 혐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습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목격합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극혐’하고 모두가 누군가에게 ‘○○충’으로 불리는 악순환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혐오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이후, 각국 정부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유

네스코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미국을 포함해 2024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여전히 인터넷에서 혐오발언을 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sup>1</sup>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손쉽게 내놓을 수 있는 ‘욕설 자동 필터링’ 정도의 대책으로는 혐오 표현을 뿌리뽑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 안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할 자유,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퍼뜨릴 자유, 그러면서 다른 이를 차별하거나 해치지 않아야 할 의무 간에 그어지는 경계가 늘 뚜렷하지만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모호한 경계 안에서 황급히 그어 놓은 최소한의 선이 욕설 필터링과 같은 대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선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효용만 있을 뿐입니다. 유네스코는 우리가 혐

오사회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선 안에 안주하지 않아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 강력한 규제가 유일한 정답이 아닌 이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욕설을 필터링하고 ‘고운말 쓰기 운동’ 등을 펼치는 것이 혐오표현을 뿌리 뽑는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혐오표현을 규정하는 조건은 그 표현의 강도와 상관 없이 때문입니다. 2019년에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국가 인권위원회는 유엔 등이 마련한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해 혐오표현의 세 가지 요소로 ▲어떤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물리적 공격이 아닌 언어 등을 사용해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상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sup>2</sup> 이 기준에서 보면 “나는 네가 너무너무 싫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나 모욕은 될지언정 혐오표현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주노동자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복지 혜택만 받는다”거나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다”라는 말은 표현의 강도나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혐오표현 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비난 강도가 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혐오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효과’가 발생해야 혐오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차별의 효과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 “누군가의 정체성에 관한 속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sup>3</sup> 또한 혐오표현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런 말에 동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단순한 욕설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혐오표현의 정의를 이처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면, 이 선에 맞춰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시행하

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당연히 들기 마련입니다. 욕설이나 외설적인 표현과 마찬가지로 혐오표현 자체를 법으로—예컨대 ‘혐오표현금지법’ 같은 것을 제정해—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젠더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UC버클리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혐오 발언』(2022)에서 “(약자를 보호하려는)입법 의도는 국가에 의해 불가피하게 오용된다”고 말하며 이 사안에 대한 국가 개입의 위험성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혐오표현을 그냥 내버려두자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그 표현을 국가의 힘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토론을 억제할 위험이 있을 뿐더러 권력자가 언론과 시민의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진실을 지키고 거짓을 가려내는 힘

개개인이 내뱉는 혐오표현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시도가 헌법적인 측면에서나 인권적 측면에서 능사가 아니라면, 유네스코는 혐오표현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자행하며 퍼뜨렸던 소문, 남성이 여성을, 혹은 백인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면서 들었던 논리,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아시아인에게 테러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혐오의 감정은 모두 거짓이거나, 왜곡된 진실이거나, 전후 맥락을 제거한 진실의 파편으로 구성된 허위정보 위에서 짝을 티웠습니다. 이런 허위정보는 마치 바이러스의 돌기처럼 혐오의 감정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확산되기 쉽도록 만들었고,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선 유네스코-입소스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7%는 허위정보가 이미 국내 정치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응답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89%) 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91%)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허위정보 확산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그 운영 과정을 인권에 기반해 개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뢰의 인터넷(internet of trust)’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발간된 『Guidelines for the Governance of Digital Platforms(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에서 유네스코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인권에 관한 주기적 실사를 수행하고 ▲디자인과 콘텐츠 수정 및 큐레이션을 포함하는 전 과정에 국제 인권 기준을 적용하며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 규정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사용자들의 언어로 알기 쉽게 제공하고 ▲각 사용자 집단의 환경에 맞는 운영 원칙을 지키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sup>4</sup>

정보 수용자 입장에서 전달받는 정보의 진실성을 스스로 가려낼 줄 아는 능력, 즉 미디어 정보 문해력(Media Information Literacy)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는 특히 “오늘날의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에서는 소비자의 공동체 의식을 쉽게 고취하고 메시지의 도달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혐오표현 내러티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면서, 학습자가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이러한 경향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4일 세계 교육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에 대항하기(Countering Hate Speech)’를 이번 기념일 주제로 소개하면서 “다른 모든 평화를 향한 노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교육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라 말했습니다.<sup>5</sup> 그러면서 “혐오표현을 해체하고 포용적이고 민주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의 근간을 마련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네스코는 지난해 3월 『Addressing Hate Speech through Education(교육을 통해 혐오 표현 대처하기)』를 발간해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sup>6</sup> 보고서는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커리큘럼 안에서 혐오를 조장하고 배제를 정당화하는 내러티브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그 문제점을 인지하도록 하며,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교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도록 도와



유네스코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설명 영상 (영문자막)





백스터 ©

2020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Stand Against Hate(혐오에 맞서자)' 침묵시위에 참가한 군중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SNS에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 등은 모두 혐오표현에 맞서는 '대항표현'이 될 수 있고, 이것은 혐오표현을 물리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얇은 피부를 갖지 못한 채 서로를 외면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권을 존중하는 신뢰받는 인터넷 환경,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체화한 교육받은 시민들은 '그건 틀렸어'라는 당당한 외침(대항표현, counter speech)으로 그들의 그릇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혐오표현은 마치 우리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물리쳤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주춤춤 뒤로 물러서다 마침내 침묵하고 말 것입니다.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한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개발하게 해 줄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 '두껍고 얇은 피부'로 포용하고 연대하기

'힘'(법)만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보다는 진실을 통해 혐오가 자라날 토양을 없애고 교육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혐오에 대한 면역력을 기른다는 유네스코의 전략은, 1945년 창설 이후 80여 년 가까이 '인간의 마음 속에 평화의 방벽을 쌓고자 노력해 온' 유네스코의 지난날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언급했듯,<sup>7</sup> 비록 정치적으로 힘도 없고 지금 이 순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막아내지 못하면서도 유네스코의 활동은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옳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이제 대부분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갖는 보편적인 인식이 됐고, 따라서 설령 전쟁광일지라도 공공연히 전쟁을 옹호하지 못하고, 설령 위선일지라도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혐오표현을 물리치기 위해 밝은 눈으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배우고 실천하자는 유네스코의 활동 또한 때론 답답할지라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혐오가 뿌리내릴 공간을 줄어나갈 것입니다. 그 노력에 동참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두껍고도 얇은 피부'로 둘러싸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껍고도 얇은 피부'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딸이면서도 혐오표현을 입막음하고 싶은 손쉬운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네이딘 스트로스(Nadine Strossen) 뉴욕 로스쿨 교수가 쓴 표현으로, 나를 향한 혐오표현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함께' 싸울 수 있는 내공을 기르자는 주문입니다.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혐오표현을 내뱉는 이들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이 소외되고 위축되길 바라며, 동시에 대중들 역시 두껍고도

- 1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nov/07/85-of-people-worry-about-online-disinformation-global-survey-finds>
- 2 [https://www.humanrights.go.kr/download/BASIC\\_ATTACH?storageNo=1068600](https://www.humanrights.go.kr/download/BASIC_ATTACH?storageNo=1068600)
- 3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676964>
- 4 <https://www.weforum.org/agenda/2023/11/social-media-governance-guidelines-digital-unesco/>
- 5 <https://www.unesco.org/en/articles/unesco-dedicates-international-day-education-2024-counteracting-hate-speech>
- 6 <https://www.unesco.org/en/articles/addressing-hate-speech-through-education-guide-policy-makers?hub=67076>
- 7 <https://www.youtube.com/live/hZQ-kj4iKzM?si=uv12z8PKnKAXKO4g>

### 토착지식에 담겨있는 미래로부터의 편지



© 셔티스톡/Moses B.

지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거대한 참나무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

## 어쩌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 얻은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에 대한 옳은 답’입니다. 이 두 풀이를 조합해 볼 때, 오늘날의 과학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식과 정답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실험과 실험, 수정과 재수정, 논증과 반증을 거치면서 차곡차곡 쌓여온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크고 작은 도전과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미래의 경로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란 반드시 ‘최신’의 지식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오래 전부터 인류 사회 곳곳에서 전달돼 온 지식 속에서 오늘날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란 어려운 일일까요? 갑자기 ‘라떼는 말이야’를 시작하려는 건 아니니

오해하진 마세요. 단지 아주 오래 전 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토착지식과 문화가, 21세기의 인류에게도 유용한 정답을 품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유네스코가 귀땀해 드리고자 하는 것뿐이니까요.

### ‘불에는 불’에 담긴 통찰

과학, 혹은 문명의 이름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지’의 주홍글씨가 찍힌 토착 문화 중 하나로 산이나 경작지에 일부러 불을 내는 풍습을 들 수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불놀이를 하면서 들녘에 불을 놓는 우리의 쥐불놀이와 같은 전통은 세계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네스코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위적 불농기 문

화는 천 년 넘게 이어져 온 대표적인 풍습이자 토착지식 중 하나입니다.<sup>1</sup>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지구 반대편, 남미 가이아나 실드(Guyana Shield; 가이아나와 수리남, 브라질 및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아마존 북동부 지역) 지역에서도 토착민들은 매년 적절한 시기에 바삭바삭 마른 들판을 태웠습니다. 토질을 개선하고, 울창한 삼림으로 옮겨붙을 수 있는 큰불의 불씨가 될 원인을 미리 제거한다는 목적에서입니다.

북미 요세미티 지역에서도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산에 불을 놓았습니다. 2023년 미 UC 버클리대 연구진은 불농기와 관련된 원주민들의 구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원주민이 번성하던 당시 클래머스(Klamath) 산맥 일대의 바이오매스(biomass; 생물 유기체 총량)는 오늘날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sup>2</sup> 연구진은 이것이 주 정부가 불농기를 금지시킨 뒤 자연 생태계가 더욱 번성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숲 전체가 대규모 산불이나 해충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한정된 면적 안에서 나무들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몇몇 키가 큰 수종만이 숲을 뺄뺄하게 채우게 되었고, 그 결과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한편, 특정 해충에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1872년

과 2020년 요세미티의 같은 장소를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서 당시의 삼림이 지금만큼 뺄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의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인 노스 포크 모노(North Fork Mono)족의 구드(Goode) 족장도 “예전에 나무그늘로 덮인 면적은 지금보다 40% 이상 작았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숲속엔 하늘이 열린 공간이 지금보다 더 많았고, 이곳에서 더 작은 나무들과 풀들이 다양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드 족장은 오히려 숲을 구성하는 나무의 종류가 예전보다 줄어든 현재의 숲을 보면서 “누가 정원을 이런 식으로 가꾼답니까?”라고 되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상고온과 가뭄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2000년대 들어 미 서부 지역에서만 초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토착지식과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화재 관리 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sup>3</sup>

### 오래된 지식에 대한 새로운 시선

‘좋은 불’(인위적으로 통제된 불농기)로써 ‘나쁜 불’(대규모 산불)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이 오래된 지식이 터부시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인간, 특히 요세미



캘리포니아대 유튜브 채널 Fig.1에 올라온 UC데이비스대의 원주민 불농기 관행에 대한 설명 영상 (한글자동번역 가능)



티의 숲만큼이나 뻘뻘하게 모여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인간 사회에 화재가 그만큼 무서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어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화재 예방은 안전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고, 대부분의 정부는 통제되지 않은 그 어떤 불씨도 허용하지 않는 것(zero-fire policy)을 가장 기본적인 화재 예방 대책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작은 불로도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도시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전혀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가진 지역, 특히 유구한 세월 동안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 온 토착민들의 문화에서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찰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양성, 혹은 토착지식의 가치에 대한 특별한 고민 없이 이들의 문화는 더는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폄하됐고, 유구한 세월 동안 쌓인 토착지식을 기반으로 한 불놓기 풍습을 방화 또는 실화(失火)와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1850년, 당시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불놓기를 법으로 금지시켰고, 삼림 당국은 고의로 불을 놓는 이들을 사살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불놓기 풍습이 현대 과학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내다보고 있는 유일무이한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통이나 문화라는 이유로 그 어떤 행위나 지식이 무제한 허용돼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통제되지 않은 모든 불씨는 나쁜 것’이라는 도시 위주의 사고방식을 세상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나아가 엄밀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토착지식을 그저 구습으로 치부하는 것이 성급한 일은 아닌지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은 ‘21세기적 지식’을 갈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조지 니콜라스(George Nicholas) 사이먼 프레이저대 고고학과 교수는 2018년 『스미스소니언 매거진』에 실린 기사에서 ‘앞의 한 방식으로서 토착지식과 ‘과학적’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지식은 “반복과 검증, 추론과 예측, 경험적 관찰과 패턴의 인식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속성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sup>4</sup>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앞의 방식으로서 토착지식과 현대적 지식 사이의 공통점보다는 토착지식이 미처 갖추지 못한 부분만을 바라봤던 건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로도 읽힙니다. 니콜라스 교수가 강조했다, “전통적인 지식 기반 정보에서 도출한 가설이 예상치 못한 통찰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토착지식은 오늘날의 지식 발전에 분명



토착지식은 많은 경우 글이 아닌 말로 구전되고, 그 지식을 말로써 전해줄 수 있는 토착민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일은 토착어를 지키는 일과 때놓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유엔은 2022년부터 2032년까지를 세계 토착어 10년(International Decade of Indigenous Languages, IDIL)으로 정했고, 유네스코는 주무기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앞의 방식’을 연결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문화적 혹은 과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토착지식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인류의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토착지식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가 바로 유네스코입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만 하는 오늘날, 지난 수 천 년간 세계의 모든 곳에서 경험하고, 관찰하고, 인간 및 생태계와 교류하며 쌓아 온 인류의 다양한 ‘앞의 방식’을 구석에 방치해 두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토착민 인구와 함께 이러한 앞의 방식이 영원히 유실되어 버리도록 내버려두어야 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대단히 다양한 시각,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오랜 기간 쌓아 온 앞의 방식을 한 데 모으고 서로 연결(link)시킬 때, 지금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정답을 찾아낼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2년, 토착지식의 보전과 연구를 위해 유네스코가 마련한 프로그램의 약자가 LINKS(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Systems)인 것은 어쩌면 절묘한 우연이자, 토착지식과 오늘날의 지식 간 연결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운명적인 명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sup>5</sup> 가치 있는 지식은 한 곳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더 널리 퍼지고, 스스로 움직여 새로운 발견을 향한 다리를 놓고, 나아가 더 나은 행동과 연대를 이끌어 내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착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향유하는 토착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토착지식 보존과 연구, 새로운 지식 창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LINKS의 활동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유산이나 기록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의

사업에서 보여준 비전과 마찬가지로 토착지식에 대한 유네스코의 관심은 그저 ‘옛 것 지키기’ 수준을 한참 넘어섭니다. 대신 지적재산권 문제에서부터 생물 다양성, 자연재해 예방, 식량 안보, 기후변화 경감 및 적응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정책과 사회 전반에서 토착지식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 유네스코가 토착지식에 관심을 두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앞의 방식과 오늘날의 앞의 방식을 연결하는 점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활성화될 때,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해답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1 <https://www.unesco.org/en/articles/fighting-fire-fire>  
 2 <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news/how-indigenous-practice-good-fire-can-help-our-forests-thrive>  
 3 <https://news.stanford.edu/2021/08/04/new-wildfire-strategy-california/>  
 4 <https://www.smithsonianmag.com/science-nature/why-science-takes-so-long-catch-up-traditional-knowledge-180968216/>  
 5 <https://www.unesco.org/en/links>

‘인류의 외로움’에 손을 내미는  
세계시민교육

드라마 ‘삼체’의 예원제

© Netflix

## ‘삼체’ 속 예원제의 외로움에 공감한다면

잔잔한 화제를 낳고 있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삼체’, 혹시 보셨나요? (혹시 안 보셨더라도 스포일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번 이슈큐키는 드라마와 원작소설 소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만 다루고 있으니깐요.) SF문학계 최고 권위를 가진 휴고상과 네블러상, 로커스상 등을 석권한 중국 작가 류츠신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는 불안정한 자신들의 세계 대신 지구를 새로운 터전으로 삼으려는 외계문명(삼체인)에 맞선 지구인들의 사투를 그리고 있는데요. 많은 흥미로운 서사들이 그렇듯, 수 세기가 넘는 시간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이야기는 한 인간의 어떤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불우하고 상처받은 중국인 천체물리학자, ‘예원제’의 선택이지요.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에서 수많은 문화유산과 지식, 그리고 지식인들이 희생당한 직후인 1977년,

예원제는 중국 내륙 오지의 비밀 연구기지에 앉아 우주공간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전 몇 년간 수 없이 반복됐던 일과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잡음만 듣게 될 것 같았던 날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깜깜한 하늘을 가로질러 또렷한 신호가 들려옵니다. 잡음이나 오류가 아닌, 분명한 메시지의 패턴을 담은 그 신호를 해독한 예원제의 눈 앞에는 매우 당혹스런 메시지 하나가 나타나죠.

“경고한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는 순간 그곳의 위치가 파악되어 당신들의 세계는 점령당할 것이다.”

이 소름끼치는 메시지 앞에서, 예원제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전파 발신원을 향해 다음과 같은

답을 보냅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 세계를 얻는 것을 돕겠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 그는 왜 빌런이 되어야만 했을까

예원제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드라마와 원작소설에 그 이유가 묘사되는데요. 예원제에게는 이토록 인류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응답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에 걸쳐 중국 대륙을 휩쓴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가 그 배경이었죠. 인간이 꿈과 가능성과 생각을 가진 주체가 아닌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린 문화대혁명의 광풍 속에서 예원제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바로 눈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봤고, 어머니의 영혼이 텅 비어버린 것을 목격했고, 새로운 지식과 이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꿈을 휴먼지 속에 파묻어야 했고, 그에게 이 세상은 광기와 폭력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인간이란 서로를 적대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악의 현현(顯現)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대한 폭력,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구조. 그것이 예원제를 ‘흑화(어떤 캐릭터가 냉혹하고 잔인하게 변화하는 상태를 일컫는 인터넷 용어)’하게 만든 결정적 동기였습니다.

###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그 누구와도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예원제가 마침내 내민 손이 향한 곳이, 다른 아닌 지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외계인이라는 이 아이러니는 독자

와 시청자의 마음에 오싹한 그늘을 드리웁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럴 만 했네’라고 그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자아를 부정당한 원통함은 급격한 변화나 극단적 행동의 가장 큰 동기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저 고통과 증오와 원한만이 예원제의 선택 뒤에 도사린 감정의 전부일까요? ‘전지적 유네스코 시점’에서 다시 그를 가만히 지켜보면, 그의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것은 다른 아닌 외로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로움이란 단지 ‘고통과 상실’의 결과로서의 외로움은 아닙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의 입을 빌려 말하자면 예원제의 외로움은 위대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1951)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외로움과 결이 닿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외로움이며, 그것의 본질은 “어려울 때 손 내밀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데이비드 리스먼의 ‘외로운 군중’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 함께 있으나 홀로 남은 존재의 감정이 외로움이다. 홀로 남겨진 존재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의문을 품게 되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자기혐오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 혐오를 자신 안에만 담아둘 수 있는 이는 드물다. 그 혐오는 반드시 타인을 향해 간다. 그 혐오는 차별이 자라나는 토대가 되고 종래에는 연대가 필요조건인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

— 김만권,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한겨레, 2021.5.10.<sup>1</sup>

사실 1977년의 공산주의 중국에서 살고 있는 예원제에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외로움’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를 끝내 ‘흑화’하도록 만든 외로움이란 자신의 세계로부터 느낀 외로움이자, 전 인류로부터 받은 외로움이 아니었을까요? “우

리 문명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라며 세상의 파괴자에게 점령과 지배를 간청하는 예원제의 모습에서, (외로움이란) “비전체주의 세계에서 인간이 전체주의적 지배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언급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 세상의 '예원제'들에게 인류애가 있었다라면

인류애를 포기하게 만든 예원제의 경험은 오로지 가상의 이야기이며, 예원제만의 특별한 경험일까요? 사실 서로 모함하고 경쟁하고, 약자를 짓밟고 속여 온 '어둠의 역사'를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과거에서 찾아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원제의 경험을 인류 전체의 경험으로 확장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죠.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인종 혹은 신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구분짓고 차별을 정당화했던 인류의 역사,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탄압하고 보복과 재보복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재 지구 곳곳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면 인류는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현실 속 예원제'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외로움'의 굴레에 빠진 현실 속 예원제들은 자신과 세상을 혐오하고 진실과 상식을 부정하며 자신 외의 누군가를 '악'으로 지목해 줄 위험한 사상, 혹은 위험한 상대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려 할지 모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수자와 외부인을 향한 적대심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정치인과 정당, 약진하고 있습니다. 강자의 약자를 향한, 혹은 주류의 비주류에 대한 혐오와 테러는 온·오프라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개인의 좌절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불평등의 구조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의 숨가쁜 발전이 불러일으키는 인간에 대한 실존적 고뇌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요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자주 우리 각자의 실제 경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반세기 전에 한나 아렌트도 외로움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세상은 이전처럼 그대로 굴러갈 것이고 세상의 지속에 우리는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외로움, 즉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게서 버려졌다는 경험을 실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예원제들이 자신의 존재가 세상의 지속과 무관하다는 자기혐오의 감정 대신, 지구라는 행성의 똑같은 시민으로서 서로 연대하고 포용하는 기억을 가질 기회는 없는 것일까요?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기회는 없는 것일까요?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이라는 교육의 창이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고, 새로운 세상에 대응하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학습자들이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관용과 존중, 그리고 지역이나 국가 단위를 넘어 지구라는 단일한 세상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하는 태도를 갖추고 인간의 권리와 평화를 지키는 궁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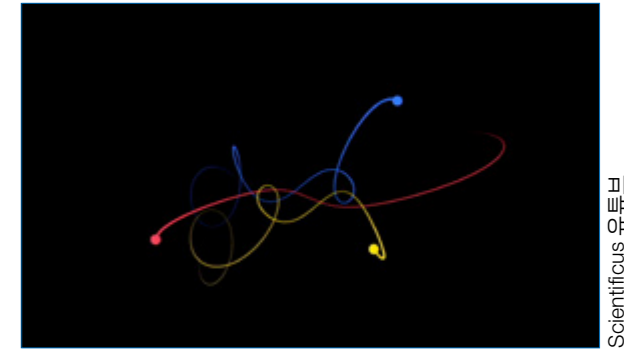
가자지구 남부 라파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가족의 소식을 듣고 오열하고 있다. 예원제는 상상으로 빚어낸 캐릭터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는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닿지 않는 '비통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Anas-Mohammed/Shutterstock.com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유네스코는 이러한 비전을 교육의 각 단계에서 구현할 때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이 윤리적이고 공감하며 서로 존중하는 인간으로 성장해 급격히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복잡한 도전과제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서로에게 공감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단일한 세계'로서 이 지구의 미래를 함께 가꿔 나갈 수 있는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라면 아무에게도 손 내밀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나의 비통함을 전가시킬 대상을 애써 찾지 않아도 될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큰 권력을 쥐여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세계를 '접수'하러 오는 외계문명이요? 까짓 것, 어디 한번 와 보라지요.

### 우리 안의 '삼체 문제'도 해결하자 제안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삼체 문제(three-body problem)'는 고전역학을 다루는 물리학의 한 문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서로 중력의 영향을 주고 받는 세 개의 물체 간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일반해(一般解, general solution)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따라서 작품 속에서 세 개의 항성이 만드는 예측 불가능한 재앙을 반복적으로 겪는 항성계에 거주하는 '삼체인'들은 한 개의 태양을 중심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구를 노리는 것이죠. 작품에서 묘사된 삼체 세계는 우리의 눈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세 개의 태양이 매우 가까워서 동시에 뜨면 온 세상은 불바다로 변하고, 셋 모두가 멀리 궤도를 벗어나 사라지면 세상에는 끝도 없는 밤과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측할 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거나 사라지고, 따라서 이 문명의 지상과제는 번영하는 것(thrive)이 아닌, 그저 살아남는 것(survive)뿐입니다. 문화도 없고, 음악과 문학도 향유하지 못한 채 마치 날카롭게 버린 칼처럼



물리학의 삼체 문제(three-body problem), 즉 세 개 물체 간의 복잡한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한 영상 캡처 이미지



Scientificus

오로지 생존을 위한 기술만을 발달시켜 온 이 문명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독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유네스코 패밀리라면, 어쩌면 세계시민을 더욱 확장한 '우주시민'의 시각에서 이들과의 공존을 모색할 수 있진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침 유네스코가 스스로 밝히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유네스코의 역할 또한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이 21세기에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번영하도록(thrive and survive) 해 줄 교육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기도 하니까요.<sup>2</sup> 물론 원작자는 완전한 상호 믿음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작품을 나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또한 문학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즐거움 중 하나일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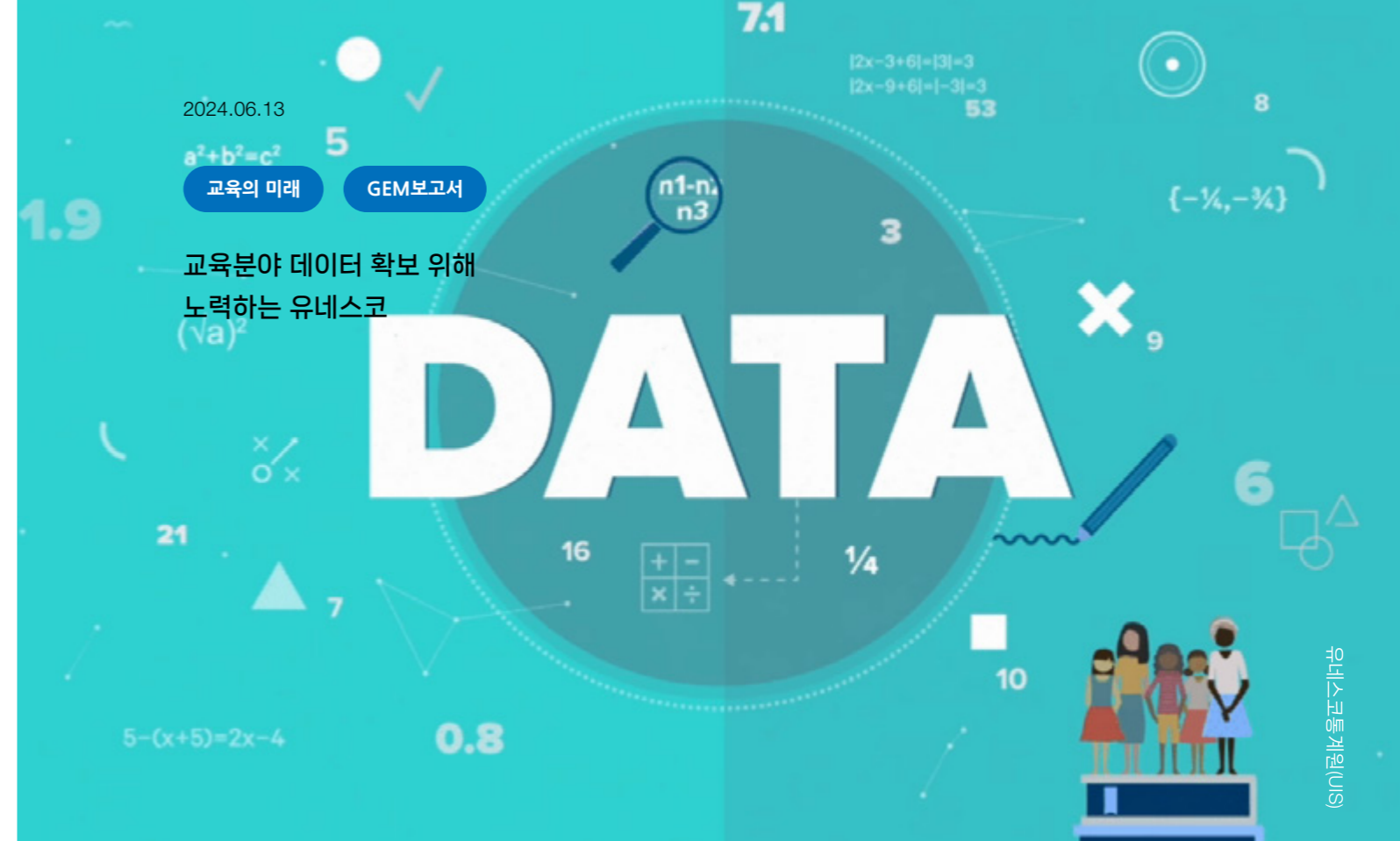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외계 문명을 괴롭히는 삼체 문제는 어쩌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문제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극히 예측이 어려워 보이는 세 물체의 경로는 21세기에 우리 인류가 직면한, 정말 풀기 어려운 세 가지 문제의 비유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문제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는, 윤리 없이 질주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오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오로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능력만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교육 현실 ▲그

리고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을 도무지 고민하려 하지 않는 대화와 포용의 부재입니다. 이 모두는 바로 지금 유네스코가 가장 천착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단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이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지 않고는 기후위기 해결도, 지속가능발전 달성도,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물리적 삼체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외계인들은 지구를 향한 400년간의 원정길에 올랐는데요. 이와 달리 현재 시점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보금자리란 지구, 이 작고 푸른 행성 하나뿐입니다. 이 위에 200여 개의 국경을 긋고 각자 도생을 모색하는 것은 우주적 의미에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유네스코가 이야기하는 세계시민교육이란 바로 이 '지구'라는 단 하나의 세계에 그어놓은

200여 개의 단절, 그리고 모두를 외롭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 우리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용기 있는 초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플랜 B', 즉 또 하나의 지구(planet B)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엄청** 근엄하고 **진지**한 제안입니다.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 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4471.html>
- 2 <https://www.unesco.org/en/global-citizenship-peace-education/need-know>
- 3 <https://www.unesco.org/en/articles/what-you-need-know-about-unescos-1974-recommendation>
- 4 <https://www.unesco.org/en/education/1974recommendation>
- 5 <https://unesco.or.kr/유네스코-혼돈의-시대에-세계시민교육을-권하다/>



이슈쿠키 더보기

세계시민교육, 그 반 세기의 여정

예원제가 겪었던 비극보다 훨씬 더 소설 같은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던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끝자락을 향해 가던 때인 1974년, 그리고 체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희생된 베트남전이 막을 내리던 때인 1974년, 공교롭게도 바로 그해에 유네스코는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라는 긴 이름의 권고를 채택합니다.<sup>3</sup> 일명 '1974년 권고', 혹은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로도 불리는 이 권고는 '인간의 마음에 평화의 방벽을 쌓기 위한' 유네스코의 설립 이념을 교육을 통해 전 세계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기념비적인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네스코에 따르면 그것은 "사상 처음으로 평화, 국제 이해, 인권, 기본 자유와 교육을 한 데 묶은 규범 체계"였습니다. 또한 이 권고는 "모든 교육이 전쟁과 폭력, 차별과 혐오,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인종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정의로운 평화, 사회 정의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따라서 교육이 문해력과 수리력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

을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범지구적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인류의 협력과 평화를 모색할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으로 더욱 구체화되면서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게 되었고, 권고가 채택된 지 거의 반 세기가 흐른 뒤인 지난 2023년에 유네스코는 각 회원국들과 함께 그간 이 분야에서 누적된 새로운 가치를 담아 이 권고를 개정했는데요.<sup>4</sup>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권고는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로 이름을 바꾸었고, 바뀐 명칭에 포함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21세기 변혁 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을 주도하는 주요 접근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과 함께 이 권고의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그 과정과 결과, 소회가 궁금하다면 임현목 APCEIU 원장의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sup>5</sup>

데이터와 문제 해결의 상관관계

“매일 체중을 재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입니다.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 거야!’라고 핀잔을 주려고 하셨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은 정확한 데이터가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비약이 아니라, 데이터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할 수 있는 일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계획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매 순간 다양한 영역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 2021년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데이터는 어떻게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영리단체 ‘오픈 클라이밋 픽스(Open Climate Fix)’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sup>1</sup> 오픈 클라이밋 픽스는 ‘일기 예측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일기예보와 탄소배출량 저감이라니, 언뜻 한번에 연결이 되지 않지만 유럽우주국과 구글 등은 이미 여기에 공감하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은 구름이 잠깐 태양을 가리는 순간에도 전력 생산량이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주로 화석 연료



를 태워 생산되는 예비 전력을 넉넉하게 비축해 두어야 하는데요. 더 정확한 예보와 자세한 일조량 데이터를 제공하면 태양광 발전소가 비축해 두어야 할 예비 전력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화석연료 발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가 줄고, 일기에보가 정확해지면 지구온난화가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맛있는 학교 밥이 학생을 부른다'는 말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번에도 그럴듯한가요? 이 말은 지난 2월에 열린 교육 데이터 및 통계 콘퍼런스(Conference on Education Data and Statistics)를 소개하면서 유네스코가 언급한 내용인데요.<sup>2</sup> 더 정확히 옮기자면 "양질의 학교 급식이 학생 등록률을 9%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유네스코가 학교 급식과 학생의 학교 등록률을 연결지어 말한 건 "넌 밥 먹으러 학교 오니?!"라는 핀잔을 들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유네스코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교육이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하고, 때문에 지금

보다 더 정확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사회 영역과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연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 계획 수립에 앞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데이터라 할 수 있는데요. 유네스코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빈틈없이 확보하도록 각국이 애써줄 것을 요청하면서, 더 나아가 아이들이 '왜' 배우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밥을 굶는 형제들을 위해 하루종일 밖에서 식수와 음식을 찾아 헤매야 하는 아이들,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10대 초반에 결혼을 해 임신 가능성에 노출되는 소녀들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 교육 사업이 그들에게 학교로 발걸음을 옮길 동기와 용기를 줄 가능성도 한층 커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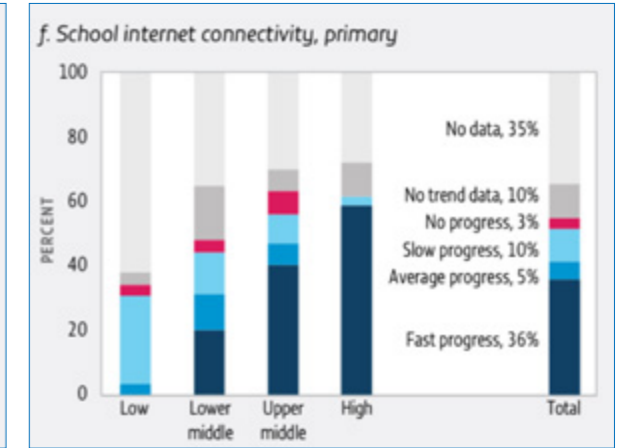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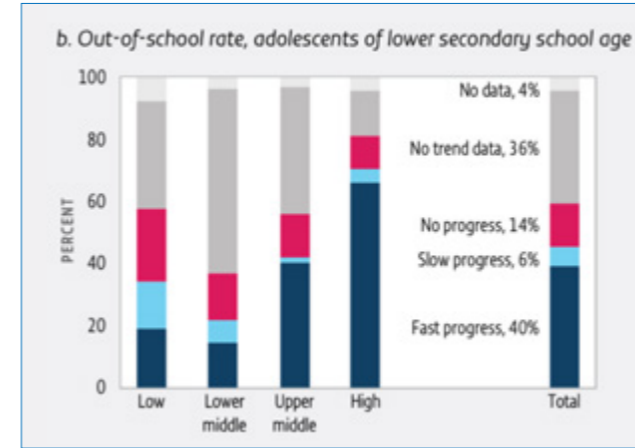
###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찾으려면

지난 몇 년간 회원국들의 협조와 유네스코통계원



Richard Julliant / Shutterstock.com

우간다의 물가에서 식수를 길어가고 있는 한 어린이의 모습. '왜' 학교에 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더 많아질수록,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만들 계획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유네스코통계원(UIS)이 만든 'SDG4 스코어카드(SDG4 Scorecard)'에 실린 전기 중등학교 학교 밖 아동 현황(첫번째 표)과 학교 인터넷 연결 현황(두번째 표)의 2025년 목표 대비 진전상황 그래프. 오늘날의 교육 현황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만든 항목일수록 추세를 보여주는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의 노력 덕에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유네스코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sup>3</sup> 전 세계 약 절반에 달하는 국가가 아직 교육 단계별로 아동들의 학습 수준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6억 8천만 명에 달하는 학생의 학습 데이터가 전무하다고 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몇몇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도 문제인데요. 2015년 이후 중·남부 아프리카 아동의 93%,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초·중·고교생의 62%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읽기 실력을 파악해 볼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교육 데이터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각국이 교육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확보된 데이터가 실질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데이터 문화'(culture of data)를 형성할 방법도 모색했습니다. 확고한 데이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하고, 교육 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해 줄, 기초적인

고 범분야적이며 다양한 학문 영역을 아우르는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유네스코는 「SDG4 스코어카드(SDG4 Scorecard)」와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GEM보고서)」 등이 그러한 체계를 뒷받침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sup>4</sup> 「SDG4 스코어카드」는 '글로벌 교육 목표'라는 전 세계 단위의 목표에 매몰돼 각국이 자국의 교육 현황 파악을 등한시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국가별 교육 진전 상황 벤치마크 자료이고, 「GEM보고서」는 국가 및 모든 관련 파트너들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목표인 SDG4와 관련해 수립한 계획과 실행 내용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렇게 각국으로부터 모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널리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교육이라는 공동재(common good)를 누리게 해 줄 더욱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데이터를 깬 '보배' 만들기

부족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과 별개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되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를 가공하고 해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2021년 ‘교육의 미래 보고서’(『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를 발간하고 교육의 전면적인 변혁을 요청해 오고 있는 유네스코는 앞으로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할 역량도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예컨대 교육의 녹색화(greening education;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와 학교 인터넷 연결(school connectivity), 청년 참여 현황 등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자세한 현황과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힘을 쏟아야 할 항목입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유네스코는 “UIS의 SDG4 데이터베이스와 대형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연결한 인터랙티브 챗봇을 개발 중”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sup>5</sup> 교육 모니터링 데이터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챗봇이 탄생하면 전 세계의 교육 관계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트나 표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교육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벤치마크와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한 기술과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나라를 지원하는 일에는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예산이 여유로웠던 적이 없는 유네스코로서는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투자가 교육 분야에서 훨씬 더 큰 가치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데이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은 저개발국과 중간 소득 국가들의 데이터 확보 역량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매 1달러는 32달러의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sup>6</sup> 만약 이 수치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면, 데이터는 유네스코가 결코 녀석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도 더 나은 교육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해 줄 매우 효율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그 자체로 기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확보해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창의성을 결합하고, 거기에 이 새로운 시각을 구체화할 의지와 용기까지 더한다면, 데이터는 분명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데이터 속 숫자들이 세상을 직접 구할 순 없을지라도, 데이터라는 광활한 숲에 숨어있는 이 세상의 참모습 안에는 우리 미래를 바꾸어 놓을 해답도 반드시 숨어있을 테니까요.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2024.07.10

언론인 보호

언론자유상

### 저널리즘과 진실의 확산을 응원하는 유네스코



기에르모 카노(Guillermo Cano Isaza, 1925.8.12-1986.12.17)

## 전해져야만 하는 이야기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잘 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반드시 입 밖으로 나와야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직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내부 고발자의 용기, 이 세상의 부조리와 숨겨진 악행을 알리고자 하는 참된 언론인들의 끈기, 권력자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역사의 진실을 간직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단단한 벽에 부딪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 위에서 세상을 굽어보려는 자들, 끝내 고이고 찌어버린 진실

을 뒤덮은 악취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 한줌의 진실을 휩쓸어버린 거짓의 산사태가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맞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이에게 ‘단단한 마음’만은 충분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마음과 용기는 언제나 귀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거짓과 기만과 겁박과 회유는 생각보다 더 흔하고, 강하고,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1986년 12월 17일 저녁,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사상 최악의 마약 카르텔 두목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보낸 암살자들이 유력 신문 『엘에스펙타도르(El Espectador)』의 노련한 기자 기에르모 카노(Guillermo Cano)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마약이 우리를 타락시켰고, 권력을 사고 파는 일이 우리를 타락시켰고, 손쉬운 돈벌이를 향한 갈망이 우리를 타락시켰다”면

서 콜롬비아 정·재계를 장악한 마약 카르텔의 실태를 폭로해 오던 그는 차돌보다 단단한 마음과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지만, 그것들도 카노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카르텔은 3년 뒤인 1989년 9월 2일에 신문사 건물마저 폭탄으로 날려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에스펙타도르』는 카노가 피살된 다음날, 그리고 신문사가 폭파된 다음날에도 신문 발행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진실을 향한 그들의 용기만은 부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두 날짜 신문의 1면에는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제목이 실렸는데요. 그것은 “Seguimos adelante!”, 즉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였습니다.

### 멈추지 않는 그들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예르모 카노가 살해된 지 10여 년이 지난 1997년, 유네스코는 콜롬비아의 기예르모 카노 재단을 비롯해 세계 여러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유엔기구에서 제정한 상 중 유일하게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네스코-기예르모 카노 세계 언론자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은 언론 자유와 진실을 향한 언론인들의 용기를 기리는 동시에, 전 세계가 그들과 연대함으로써 그들의 단단한 마음과 용기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모두의 다짐을 재확인하는 상이기도 합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5월 3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일, 유네스코가 발표한 올해 수상자는 특정 언론인이 아니라 ‘가자지구를 취재하는 팔레스타인 기자들’이었습니다.<sup>1</sup>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땅 곳곳에서는 전 세계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증오와 파괴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상식과 규범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절대 멈추지 않고’ 진실과 희망을 쫓는 그들 모두에게 유네스코는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지지를 표했습니다. 수상자를 선정한 국제심사위원회를 이끈 마우리치오 웨이벨(Mauricio Weibel) 위원장은 “우리는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헤드라인이 실린, 신문사 폭탄 테러가 발생한 다음날인 1989년 9월 2일자 『엘에스펙타도르』의 1면

인류 전체로서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큰 빛을 쬐다”면서 “빛도 희망도 없는 시기에, 그들에게 우리의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언론인을 시상하고 지원하는 일 외에도 유네스코는 전 세계에서 취재 활동 중 살해당한 언론인 수의 추이와 발생 원인, 이후 처리 과정 등을 집계하는 피살언론인 관측소(Observatory of Killed Journalists)를 운



가자지구를 취재하는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을 수상자로 선정한 2024 유네스코-기예르모 카노 세계 언론자유상 수상자 소개 영상(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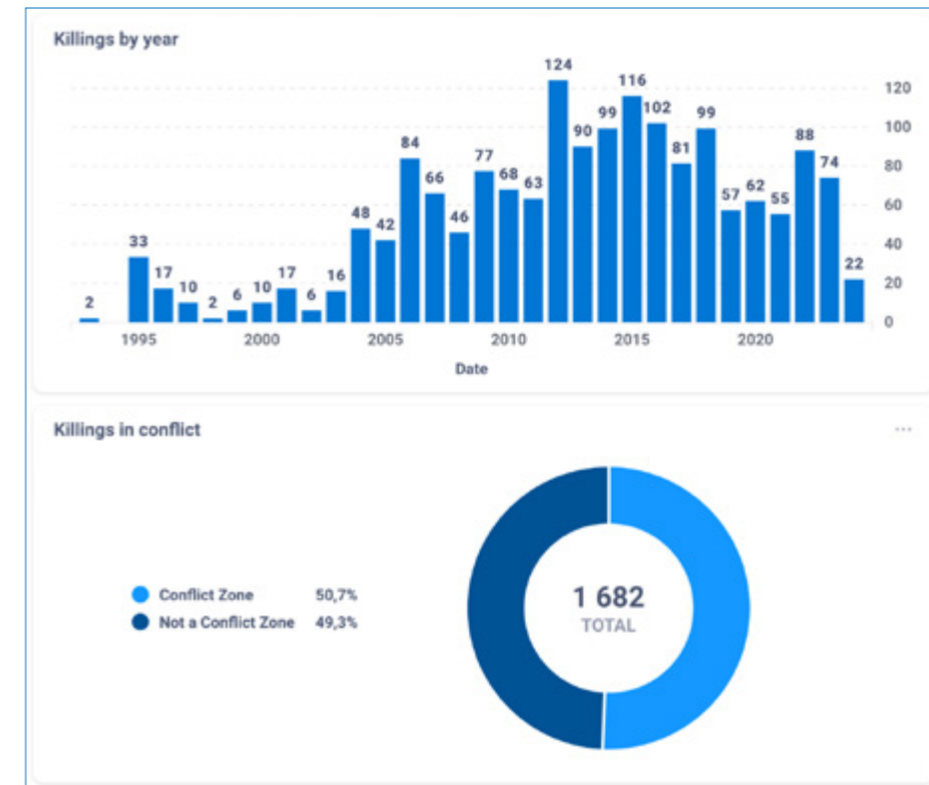
영하고 있는데요.<sup>2</sup> 여기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살해된 언론인은 1,682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망자들 중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기자들’처럼 총알이 빗발치는 분쟁지역을 취재하던 언론인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49.3%) 가량은 기예르모 카노 기자의 사례처럼 분쟁지역이 아닌 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취재 환경 자체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취재 결과물이 세상에 알려지길 두려워하는 자들의 위협이 많은 언론인들을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감하게 덮인 어둠에 빛을 비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 때나 가질 법한 불안을 집과 직장 과 거리에서 마주할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새로운 전선 위의 언론,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진실에 빛을 비추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

려는 자 사이의 충돌이 주로 일어났던 지점이 국가의 잘못된 권력과 범죄, 인권 분야였다면, 무분별한 성장제일주의와 이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환경문제가 또 다른 진실과 거짓 사이의 각축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총을 든 악당만이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지구에서 비롯된 견잡을 수 없는 환경 재해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무엇이 실질적인 행동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으며, 전후방이 따로 없는 이 새로운 전선 위에서 진실을 쫓는 자와 그것을 덮으려는 자, 그리고 진실과 그것을 호도하는 거짓 간의 싸움은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언론 자유의 날(5월 3일)을 맞아 유네스코가 정한 주제도 ‘지구를 위한 언론: 환경



1993년 이후 전 세계에서 살해된 언론인 숫자와 분쟁지역/비분쟁지역에서의 사건 발생 비율



2022년 이란의 미안칼레(Miankaleh) 습지에서 떼죽음을 당한 홍학(플라멩고)의 사체를 환경보호 단체가 수습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전해져야만 하는 이야기'에 소개된 이 사진을 찍은 메흐디 모헤비푸르(Mehdi Mohebbipour) 작가는 "우리 생태계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만큼이나 비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앞의 저널리즘(A Press for the Planet: Journalism in the face of the Environmental Crisis)'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유네스코가 공개한 보고서 『Press and Planet in Danger(위기에 처한 언론과 지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44명의 언론인들이 환경 문제를 취재하다 살해됐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폭력도 급증하고 있습니다.<sup>3</sup> 2019-2023년 사이에 환경 문제를 취재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183건 발생했으며, 이는 그전 5년의 85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유네스코의 설문에 응답한 전 세계 129개국의 900명이 넘는 환경 관련 언론인의 거의 절반 가량(45%)은 이러한 폭력, 그리고 유·무형의 압력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기사를 검열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들은 물리적인 폭력도 두렵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자신의 기사가 기업 등 주요 관계자의 이익과 상충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재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과 인권 유린을

끈질기게 고발하고 있는 환경 저널리즘의 중요성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요청합니다. 지난 5월에는 그러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 세계 환경사진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전해져야만 하는 이야기(This Story must be Told)'라는 이름으로 사진 기사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sup>4</sup> 이 사진들을 소개하면서 유네스코는 "늘 아름답지만은 않고 때론 불편하기까지 한" 이들의 작업물이 "더 건강한 지구, 더 살만한 삶을 위한 싸움"에서 우리에게 힘을 보태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언론과 저널리즘의 노력과 언론인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회가 점점 '탈진실(post-truth)'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범람하고 있는 정보 속에서 객관적 사실 혹은 진실이 더이상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는 언론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저널리즘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는 뜻인 동시에, 언론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탈진실의 흐름을 되돌리기에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쿠바의 카투니스트 '팔코(Falco)'가 유네스코의

2024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기념 만화 캠페인에 동참하며 그린 이 한 장의 삽화처럼,<sup>5</sup> 오늘날 우리는 진실임을 확신할 수 없는 정보의 범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대로 된 것을 가려내고, 그것을 다시 널리 퍼트려 진실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오로지 미디어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좇아 모두가 현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가 진실을 더 많이 입에 담고 이미 갖고 있는 지식과 도구를 활용해 그것을 더욱 널리 퍼뜨리게 된다면, 거대한 바다처럼 일렁이는 진실의 도저한 물결을 감히 막아서겠다고 나설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속에 꼭 전하고픈 진실이 있나요? 차마 꺼내지 못했던 한마디가 있나요? 무엇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의지와 희망과 용기가 여전히 가슴속에서 요동치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 혹은 이 세상의 진실이라면, 당당하게 사람들과 공유하길 바랍니다. 또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해져야만 하는 그 이야기의 여정을 혼자 외로이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1 <https://www.unesco.org/en/articles/palestinian-journalists-covering-gaza-awarded-2024-unesco/guillermo-cano-world-press-freedom-prize>  
 2 <https://www.unesco.org/en/safety-journalists/observatory?hub=701>  
 3 <https://www.unesco.org/en/articles/unesco-report-reveals-70-environmental-journalists-have-been-attacked-their-work?hub=701>  
 4 <https://www.unesco.org/en/articles/story-must-be-told-unesco-campaign-worldpressfreedomday?hub=66704>  
 5 <https://www.unesco.org/en/days/press-freedom/cartoons-2024?hub=66704>

올림픽 즈음 생각해 보는  
평등한 스포츠의 조건



사격 여자 공기권총 국가대표 김예지의 모습

X 개시물 캡처

## 남녀 선수 '50대 50',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어 주신다면 저 김예지는 무조건 메달  
잡니다”

지난달 말 화려하게 막을 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은 초반부터 잇단 메달 소식과 함께 멋진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격과 유도, 탁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우리 여자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신감과 특유의 쿨(cool)함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얼음장 같은 시크한 표정으로 총을 쏘는 김예지 선수는 “믿기지 않을 만큼 쿨하다”(CNN)라는 찬사를 받으며 ‘존 워’와 ‘터미네이터’에 버금가는 총잡이 캐릭터로 인터넷 밈(meme)이 되기도 했습니다.<sup>1</sup> 그외에도 탁구의 신유빈, 유도의 허미미 선수 등은 경기장 안팎에서 즐겁게, 또한 당당하게 스포츠에 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림픽이 그 무엇보다 남녀 모두를 위한 스포츠 축제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 게임이 바뀌고 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이번 파리 올림픽은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도 하나 세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성별 수적 균형(gender parity)을 달성한 사상 첫 올림픽이라는 점에서입니다.<sup>2</sup> 이번 올림픽에는 남녀 각 5,250명씩, 똑같은 수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첫 근대 올림픽이 열린 이후 130여 년 만에 달성된 균형이죠.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그리고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함께 스포츠 성평등 달성을 위해 노력해 온



2024 파리 올림픽 성평등 소개 영상



유네스코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라 불리지만 여성의 올림픽 참가는 극구 반대했던 쿠베르탱이 “여성이 참가하는 올림픽은 비현실적이고, 재미없고, 아름답지 않고, 부적절할 것”이라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sup>3</sup>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며 여기까지 온 여성들의 노력은 정말 눈물겹다는 말로도 충분치 않을 겁니다.

평등한 스포츠를 만들기 위한 여성들과 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됐지만 유네스코는 이것이 평등한 스포츠를 위한 여정의 종착역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수적 균형 달성은 게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출발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가 모두에게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경기장 안팎에서 ‘게임을 바꾸자(Change the Game)’고 외치고 있습니다.<sup>4</sup> 7월 24일에는 전 세계 체육장관과 전문가, 선수들을 모아 스포츠 성평등을 논의하는 장관급 포럼을 마련했고, 올림픽 기간 동안 유네스코 본부에서 차별 없는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Change the Game’ 전시도 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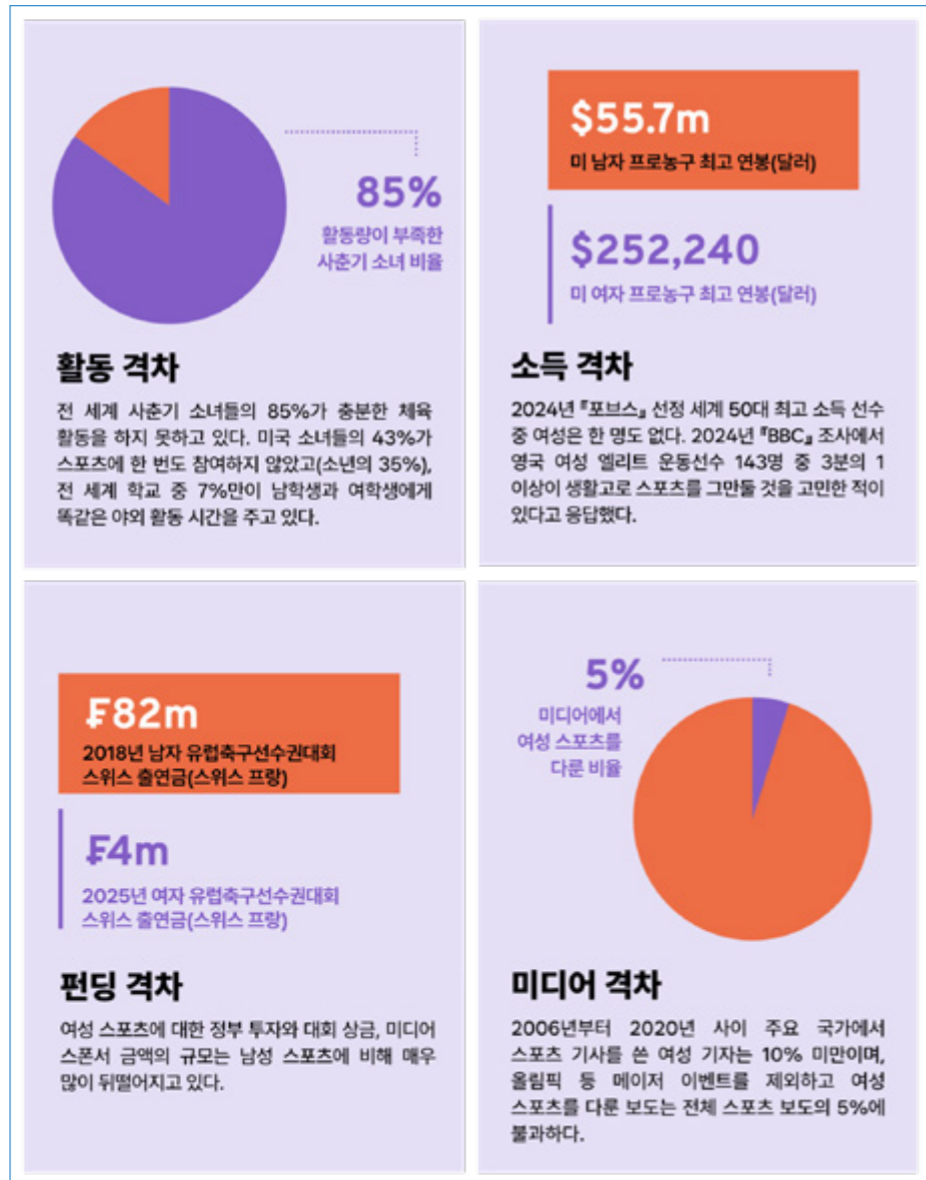
사실 남녀 참여 숫자를 똑같이 맞추는 것이—이마저도 그렇게나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정책 실현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맘껏 뿔 여성 선수의 숫자가 충분치 않다면, 그리고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꿈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히 높기만 하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50 대 50’을 지속가능한 숫자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기후 위기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듯 말이지요. 적절한 정책과 그 시행이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시스템과 우리 모두의 인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씨앗이 사회 곳곳에서 싹을 틔우도록 만드는 일일 거예요.

### ‘50 대 50’이 끝이 아닌 이유

스포츠를 통해 평생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여성 앞에 놓여 있는 높은 벽 중 하나는 노력과 결과에 대해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주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5년 전인 2019년 8월호 『유네스코뉴스』는 남자 대표 선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sup>5</sup> 그로부터 3년 후인 2022년에 미국 축구협회는 이 선수들에게 수당 차액 전액을 지급하고 앞으로 남녀 대표팀 수당도 동등하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sup>6</sup> 하지만 미국 법원은 이 합의에 앞서 여자 선수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미국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내용이 알려지고 차별적 수당 지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스폰서 기업과의 계약 관계를 우려하게 된 협회가 한발 앞서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실 속 기득권과 편견의 벽은 여전히 높지만, 적극적으로 차별을 찾아내려는 노력과 이를 지지하는 대중의 힘이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불러온 셈입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



스포츠 안팎의 남녀 격차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The UNESCO Sport and Gender Equality Game Plan』

습니다. 『The UNESCO Sport and Gender Equality Game Plan(유네스코 스포츠 젠더 평등 게임 계획)』에 따르면,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다루는 영국 여성 엘리트 운동선수 143명 중 60%의 연봉이 2023년 영국인 평균 임금(34,963파운드)에도 한참 못 미치는 2만 파운드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sup>7</sup> 응답자 중 3분의 1 이상은 부족한 소득 때문에 운동을 그만둘 것을 고민한 일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2024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소득 스포츠인 50인 중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고, 미 남자 프로농구 최고 연봉자의 소

득은 미 여자 프로농구 최고 연봉자의 220배에 달합니다. 물론 케이틀린 클라크(미국 여자 프로농구의 떠오르는 샛별)가 장래에 무조건 르브론 제임스(미국 남자 프로농구 슈퍼스타)와 똑같은 연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남녀 동수가 달성된 세상에서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더 어려운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남녀를 떠나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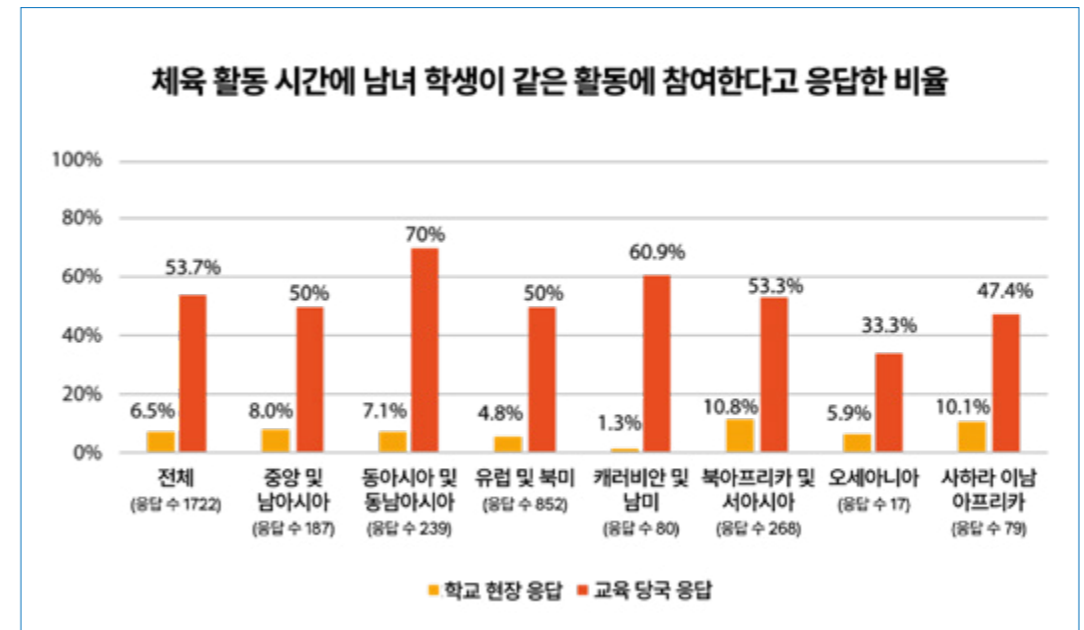
“모든 스포츠는 여성의 스포츠다”<sup>8</sup>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대외협력위원장의 글 중에서)

남녀 스포츠 선수의 부당한 보상 격차가 여성 선수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의 벽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부당하게 가해지는 차별과 편견은 여성 선수들의 꿈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메시와 손흥민의 활약을 보면서 스포츠 스타를 꿈꾸던 세상의 소년·소녀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각기 다른 신체의 변화, 그리고 주변의 조언을 들으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지 마”, “뛰지 마”, “위험해”, “튀지 마”, “왜 굳이...”와 같은 고정관념이 잔뜩 묻은 말들은 여전히 여자 아이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사춘기 시절에 스포츠를 포기하는 여성 비율 49%는 사춘기 남성의 포기 비율에 비해 6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sup>9</sup>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그럴까?’ 하고 되묻는 이도 있겠지만, 유네스코가 내놓은 『Global Status Report on Quality Physical Education(양질의 체육 교육에 관한 세계 현황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존

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10</sup>

위 그래프에서 보듯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체육 교육 시간에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의 응답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축구, 농구, 럭비 등을 배울 때 여학생들은 운동장 구석에서 댄스와 체조, 피구를 배운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여성 선수가 스포츠를 포기하게 만드는 차별과 편견이 단지 사회 환경과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식 안에도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여학생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스스로를 ‘활동적인 스포츠에 부적합한 신체’라는 편견 속에 가둔 채 자신감과 꿈을 내려놓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제2의 김연아’와 ‘제2의 김연경’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저 멋진 여자 스포츠 롤모델을 잃어버리는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는 양질의 스포츠와 체육 교육(Quality Physical Education)이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학업적 측면에서도 매우 많은 효과를 내는 중요한 교육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여학



학교 현장과 교육 당국의 남녀 체육 활동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조사

『Global Status Report on Quality Physical Education』

생들이 체육 활동과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기회를 빼앗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그리고 모두 함께

똑같은 숫자의 남녀 선수들이 파리에서 아름다운 경쟁과 감동적인 성취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여전히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에 인생을 건 여성들에게 가혹합니다. 여성 스포츠 선수의 21%(남성은 11%)가 어릴적 스포츠를 하면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보고했고, 13-18세 영국 소녀의 75%는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조롱이나 비난을 받고 위축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남녀가 분리된 탈의실과 욕실(세면장), 성별에 맞는 체육복이 마련된 학교의 비율은 각각 37%와 45.5%에 그칩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체육협회의 리더 자리에서 여성의 비율은 2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이상 『Global Status Report on Quality Physical Education』 및 『The UNESCO Sport and Gender Equality Game Plan』)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또 어떤가요. 틱 주변에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는 양궁 선수에게 “시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함부로 외모를 ‘칭찬’하고, 선수의 성취만큼이나 ‘슈퍼맘’ 같은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일이 파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sup>11</sup>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온 여성들에게 있어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Faster, Higher, Stronger)”라는 말은 단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만 필요한 구호가 아니었을 거예요. 스포츠의 즐거움과 환희를 ‘함께’ 느끼기 위해, 여성들은 아직도 삶의 모든 고비마다 더 많은 것을 걸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IOC가 127년만에 올림픽 표어에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올림픽 표어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

다 함께(Faster, Higher, Stronger - Together)”로 바뀌었습니다. 유네스코 역시 건강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Fit For Life(삶을 위한 운동)’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면서 ‘함께’라는 단어 안에 당연히 여성이 있고,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함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sup>12</sup> 함께 스포츠를 즐긴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분명한 것은 단지 머릿수를 균형 있게 채워 초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평등 문제가 그렇듯 우리는 소외된 이들을 파티에 초대하는 것을 넘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춤을 춰야 합니다. 누구든지 운동장 한가운대를 휘저으며 힘껏 공을 내지르고, 더 높은 레벨에서 선의의 경쟁을 꿈꾸고, 때로는 그것을 직업이나 삶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 선택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을 때, 그 게임은 진정 우리 모두의 게임이자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스포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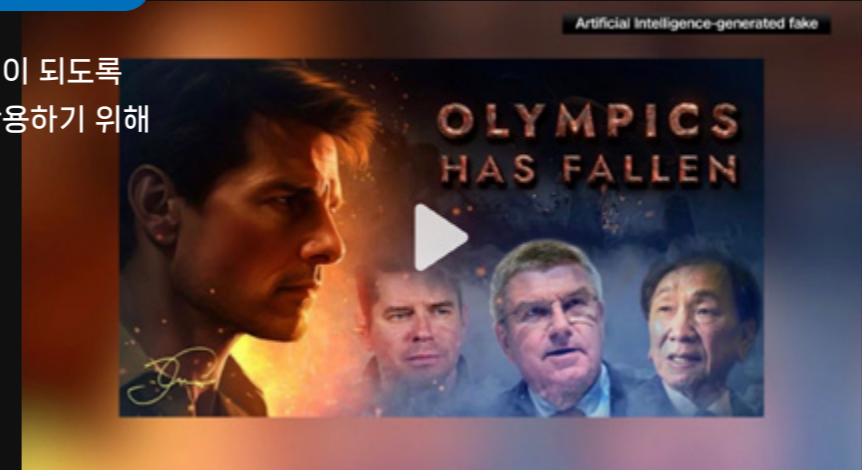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 1 <https://edition.cnn.com/2024/07/31/style/kim-yeji-pistol-shooter-paris-olympics-intl-hnk/index.html>
- 2 <https://olympics.com/en/paris-2024/information/games-wide-open>
- 3 <https://www.usaswimming.org/news/2017/09/11/swimming-leads-the-way-in-olympic-equality>
- 4 <https://www.unesco.org/en/articles/change-game>
- 5 <https://unesco.or.kr/모두를-위한-숫/>
- 6 <https://www.nytimes.com/2022/02/22/sports/soccer/us-womens-soccer-equal-pay.html>
- 7 <https://www.unesco.org/en/articles/unesco-report-women-and-girls-access-sport-still-lagging-far-behind?hub=701>
- 8 <http://news.kawf.kr/?searchVol=52&subPage=02&searchCate=05&page=&idx=700>
- 9 <https://www.unesco.org/en/articles/unesco-report-women-and-girls-access-sport-still-lagging-far-behind?hub=701>
- 10 <https://www.unesco.org/en/articles/paris-2024-unesco-calls-countries-invest-far-more-physical-education?hub=701>
- 11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408051104001>
- 12 <https://www.unesco.org/en/fit4life>

AI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툼 크루즈의 올림픽 비방 다큐멘터리 딥페이크 영상을 다룬 CNN 뉴스 캡처화면

## 딥페이크, AI, 그리고 ‘좋은 기술’의 조건

우리에게 익숙한 넷플릭스의 로고와 함께 시작되는 어떤 영상에서 세계인의 영원한 스타, 톰 크루즈는 특유의 낭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포츠를 향한 저의 사랑이야말로 제가 액션 배우로서 큰 성공을 거둔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저는 IOC의 부패한 임원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열정인 올림픽에서 자금을 뒤로 빼돌리는 모습을 더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지난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러시아가 유포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해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약물 스캔들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올림픽 출전을 거부당

한 러시아가 IOC와 서방 국가들을 비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감쪽같은 톰 크루즈의 목소리에 실린 황당한 메시지를 보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새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우릴 놀라게 한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틱톡에서는 신나치주의자들이 만든, 유명 영화배우 엠마 왓슨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낭독하는 가짜 영상이 나돌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 학생들이 친구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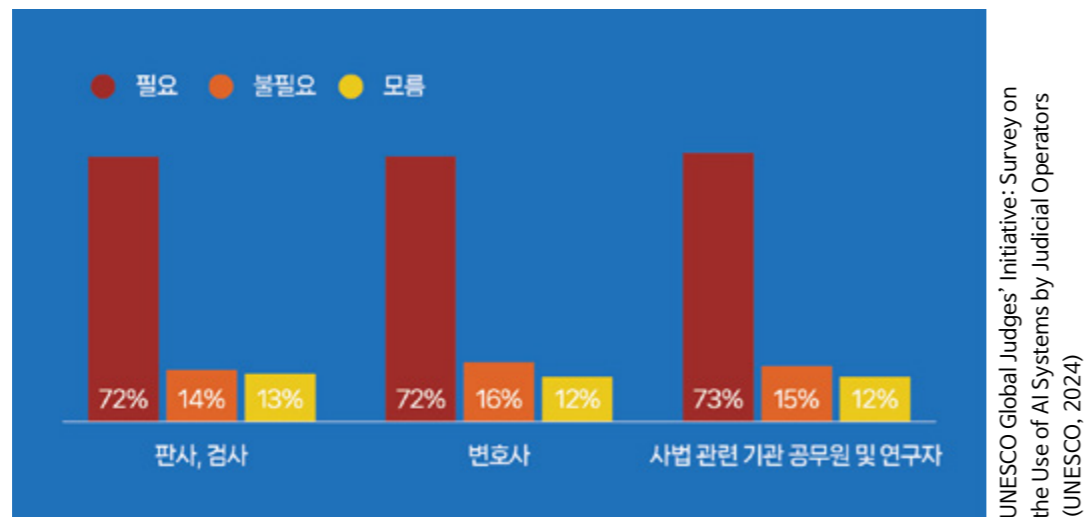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고, 목소리 또한 가족조차 속아넘갈 정도로 감쪽같은데요. 인물의 특징과 움직임을 분석해 이를 다른 영상에 입히는 것은 원래 매우 전문적인 기술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은 그 모든 작업을 ‘간단하게 재미로 할 수 있는 일’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든 웹사이트나 앱을 활용하면 진짜 같은 가짜를 손쉽게 제작하는 세상이 열린 것이지요. 이처럼 ‘보는 것은 믿는 것’이라는 인류의 오랜 경험에 의문을 제기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앞에서 그저 단속이나 처벌과 같은 사후대책을 내놓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보입니다.

### ‘선 넘는’ 인공지능 의존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은 어느새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가져다 준 반갑지 않은 미래의 일부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기술들이 그렇듯, 딥페이크가 단지 범죄에 쓰이기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객에게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고객센터를 구축하는 데도, 학생이 온라인으로도 이질감 없이 교사와 소통하는 데도, 혹은 이제 더는 내 곁에 없는 그리운 가족과 따

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눌 수 있길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것을 그릇된 욕망과 잔인한 이기심을 채우는 데 쓰고 있을까요? 우리 본성이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일까요? 자조와 냉소를 보내기에 앞서,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고 활용되는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나쁜 기술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기술도 없습니다. 단지 그 파급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조심하면서 부작용에 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널리 퍼지면서 인간에게 악용되는 기술이 있을 뿐이죠. 유네스코가 2021년 당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적 합의인 「인공지능 윤리 권고(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I)」를 채택하고 3년 여가 지난 사이에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촘촘하고 튼튼한 안전망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새로운 기술은 바로 ‘인간’에 의해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고 누군가의 정보를 빼돌리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에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 활용 관련 강제적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법조 관계자들의 응답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하되, 그것이 인간의 판단마저 대신하게 두지는 말 것.”

인공지능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선’을 넘게 하지는 말라는 뜻인데요. 그 선이란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말하는 것인 동시에, 인간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맘껏 휘둘러도 될 분야를 구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인도와 콜롬비아 등에서 판사들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챗GPT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유네스코의 발표<sup>1</sup>를 보면, 그것은 매우 아슬아슬한 상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유네스코의 설문에 응한 96개국의 법조계 관계자 중 44%는 판례를 수집해 논리를 구축하고 참고 서류를 요약하는 등 자신의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열 명 중 일곱 명(69%)은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55%는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물을 그저 문서 작성에 ‘참고’만 한다고 말했지만, 6%는 결과물을 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활용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응답자의 92%는 사법 체계 안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강제성 있는 규제,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인공지능이 학습한 지식은 모두 기존의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인공지능의 태생적인 한계 또한 이 새로운 기술이 악용될 여지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유네스코뉴스』에서 살펴봤듯,<sup>2</sup>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 무료로 공개해 놓은 자료들을 학습하면서 그 안에 깃든 우리 인간의 모든 측면,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

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 통찰과 연민을 물려받은 동시에, 편견과 오해, 거짓과 혐오 또한 학습했다는 뜻이지요. 개발사들은 인간이 직접 관여하는 학습 리뷰 과정을 통해 전자를 강조하고 후자를 억제해 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의 연구실 밖에서 인공지능에게 잘못된 지식을 던져주려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나치주의자들의 사례처럼 과거의 잘못이 잊히길 바라는 사람들, 나아가 그 잘못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딥페이크를 활용해 유명인들의 발언을 조작하기도 하고, 역사를 부정·왜곡하는 자료를 끊임 없이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면서<sup>3</sup> 인공지능의 ‘학습 교재’를 심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학교에서 ‘홀로코스트’ 과제를 받아든 아이들이 그 내용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능청스럽게 내놓는 대답은 전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인공지능의 ‘머리’ 속에 시대에 맞지 않는 편견이 여전히 스며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3월에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유네스코는 오픈AI(챗GPT 개발사)와 메타(라마 2 개발사)를 포함한 주요 기술기업들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sup>4</sup> 무료 버전이 제공돼 학생과 일반인들이 손쉽게 활용하고 있는 이들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은 남녀를 고정된 틀 안에서 묘사하거나, 소수자와 인종을 차별하는 표현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묘사하는 남성은 비즈니스와 의사 결정, 연봉, 경력 등과 함께 의사나 기술자 같은 평판이 좋은 다양한 직종과 연결되는 반면, 여성은 집안 일과 집, 가족, 아이, 요리, 봉사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남녀별로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메타가 서비스하는 라마2의 경우, 남성의 이야기에는 보물, 숲, 바다, 모험, 결심, 발견 등의 단어가 주로 나온 반면, 여성의 이야기에는 정원, 사랑, 감정,





Systematic Prejudices - An Investigation into Bias Against Women and Girls in Language Models (UNESCO & IRCAI, 2024)

오픈소스 대형언어모델(LLM)인 라마2(Llama2)가 각각의 주제 단어(남자, 여자, 소년, 소녀)로 1천 개씩의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모음

예의, 머리카락, 남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선생님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해묵은 편견과 낡아빠진 차별에 사로잡힌 스승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 그리고 이를 활용해 공부를 하고, 과제를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하는 우리 아이들의 만남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업과 사용자 모두에게 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 나쁜 기술과 좋은 기술을 가르는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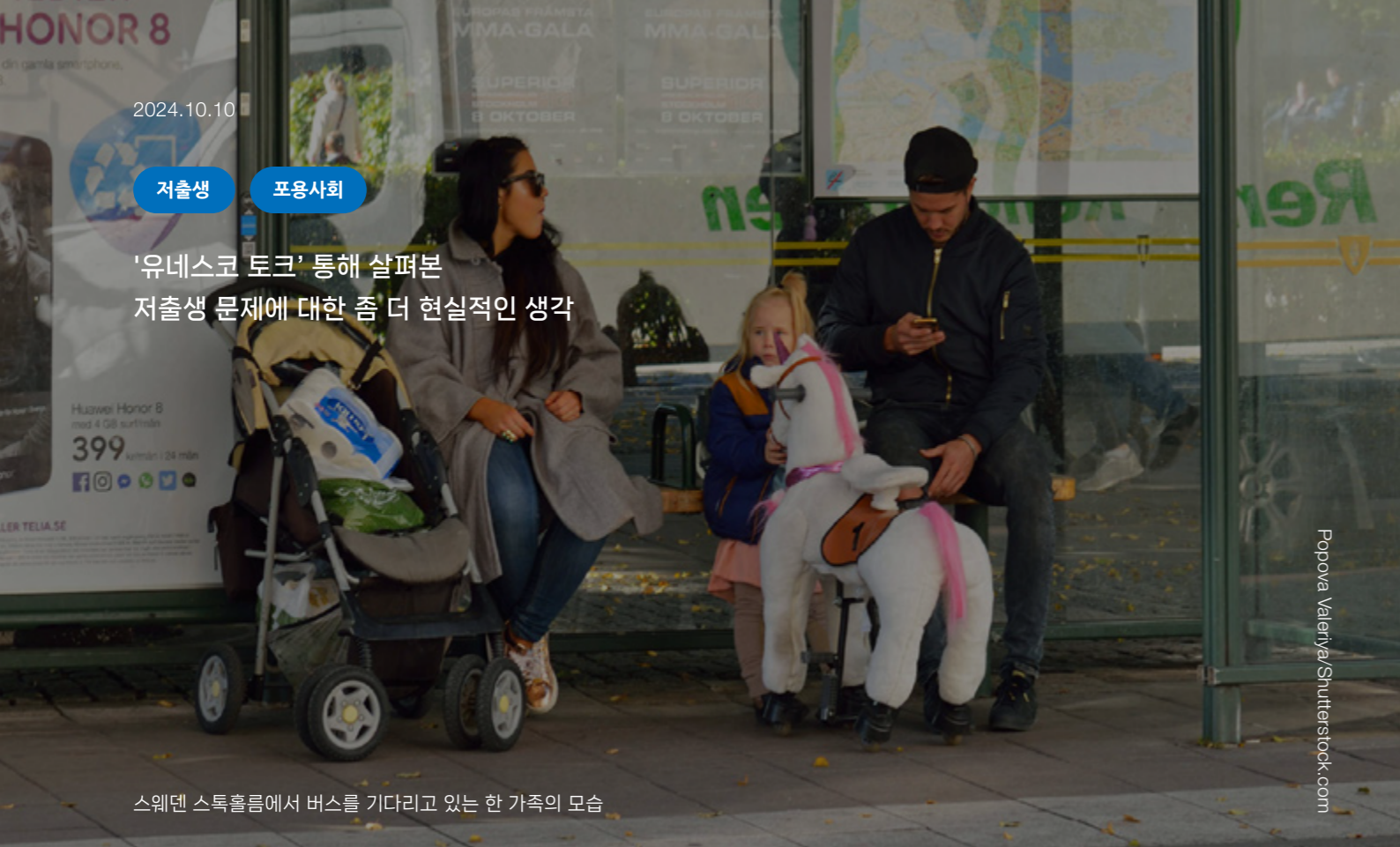
다행스러운 점은 이미 3년 전에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인류는 그러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윤리적 기준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50개국 이상에서 권고의 내용을 자국 법체계에 반영했다는 소식도 반가운데요. 유네스코는 정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공정성과 투명성, 인권과 책임성을 인공지능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윤리적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협약을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8개 기업과 맺었고, 3월에는 우리나라의 LG AI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6월부터 인공지

능 윤리 관련 MOOC(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 코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sup>5</sup>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대책이 더욱 촘촘해지더라도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사라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히려 21세기에는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조작 같은 새로운 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은 더 빈번히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사례처럼 누군가 그것을 의도했다면, 인공지능에 내재된 인간의 편견처럼 아무도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든 말이지요. 따라서 유네스코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끊임없이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기회를 주고, 각자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과 윤리적인 ‘선’을 판별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인공지능 윤리는 모두 바로 그 지점, 즉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퍼뜨리고 이용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인공지능 윤리란 인공지능 ‘의’ 윤리가 아니라, 인공지능 ‘을 만들고 퍼뜨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윤리라는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적부터 고사리손으로 코딩 블록을 매만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 봄날의 벚꽃처럼 터져 나오는 상상력으로 쇼츠 영상을 만드는 청소년들, 그리고 사회의 중추에서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네스코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의 끝에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와 기업, 학습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 등장할 모든 새로운 기술들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 1 <https://www.unesco.org/en/articles/unesco-survey-uncovered-critical-gaps-ai-training-among-judicial-operators-0?hub=701>
- 2 <https://unesco.or.kr/챗gpt는-다양한-이야기를-들려줄-수-있을까/>
- 3 <https://www.unesco.org/en/articles/new-unesco-report-warns-generative-ai-threatens-holocaust-memory?hub=701>
- 4 <https://www.unesco.org/en/articles/generative-ai-unesco-study-reveals-alarming-evidence-regressive-gender-stereotypes?hub=701>
- 5 <https://www.unesco.org/en/articles/unesco-and-lg-ai-develop-global-massive-open-online-course-ethics-artificial-intelligence>



2024.10.10

저출생

포용사회

'유네스코 토크' 통해 살펴본  
저출생 문제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생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

Popova Valeriya/Shutterstock.com

## ‘코로나 베이비붐’과 현실적 유토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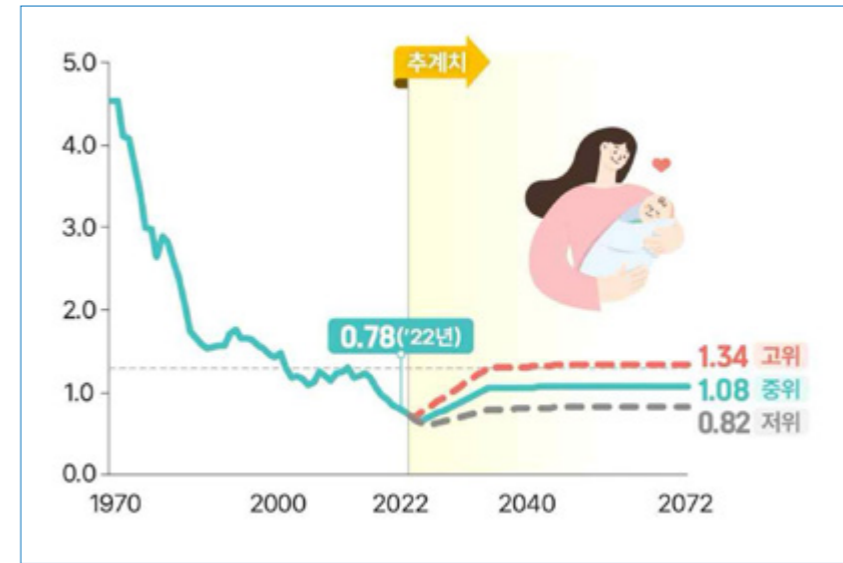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눈에 번쩍 띄는 이 말은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다룰 때 종종 볼 수 있는 발언인데요. 초저출생 문제를 다룬 EBS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출산율 현황을 본 조앤 윌리엄스 미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한 말입니다.<sup>1</sup>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예측치는 0.68명.<sup>2</sup> 인공지능의 계산에 따르면 이는 성비 1대1의 가입기 남녀 100명으로 이루어진 인구집단의 손자 세대의 수가 단 11.5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sup>3</sup> 충격적인 숫자를 마주한 정부와 전문가들은 각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몇 자극적인 영상들처럼 대한민국은 이대로 소멸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늘 그래

왔듯, 우리는 여기에도 적응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이 추세를 반전시키든, 적은 수의 사람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이 추세에 적응하든, 바로 지금 무언가를 바꾸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 각양각색 좌충우돌, 저출생 대책

저출생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 단지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함께 전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로 꼽히고, 북미와 서유럽 선진국들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대책을 시행해 온 나라도 많습니다. 이들 국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



2072년까지 한국의 인구 추계(단위 만 명)와 합계출산율 변화 예측치

### 이슈쿠키 돋보기

### 잠깐! 저출생과 저출산, 먼저 짚고 넘어가요

지난 6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sup>4</sup> 이를 전하는 언론 기사에서도, 다른 여러 영상과 글에서도, '저출산'과 '저출생'이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 용어는 동일한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두 용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출산'은 '(여성)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고, '출생'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뜻이니깐요. 따라서 저출산이란 여성의 출산율, 특히 여성 한 명이 가입기간(15-49살)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낮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출생은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즉 인구 1천명당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 대비 신생아가 너무 적다는 뜻이죠. 참고로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조출생률은 4.9명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성만 낳을 수 있으니 결국 이 둘은 같은 게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생률은 당연히 출산율의 영향을 받지만, 전체 인구 대비 신생아의 수를 말하는 것인 만큼 고령화나 전쟁, 질병과 같이 모집단의 크기나 구성을 변화시키는 요소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출산율 변화가 가임기 여성에게 달렸다면 출생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회 전체의 움직임인 것이죠. 때문에 최근에는 저출산 대신 저출생을 언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책임이 '아이를 적게 낳는 여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출생인구가 줄어들게 만드는 사회 전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지요. 단,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차별적이라거나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각기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점을 알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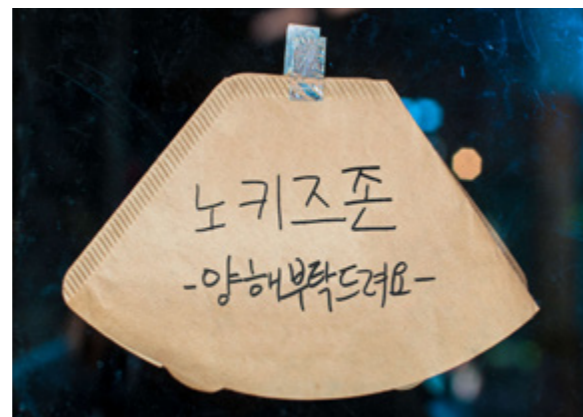
시킴을 위해 내놓은 대책은 정말 다양한데요. 서유럽과 북유럽 선진국들처럼 넉넉한 기간 동안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는 휴직 제도와 강력한 공공 교육·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고, 점점 높아지는 산모의 연령을 고려해 각종 의료 지원을 대폭 늘리기도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이나 자녀 양육비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현금을 쏟아부어 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sup>5</sup>

복지나 경제적 지원이 통하지 않을 땐 애국심과 국가주의에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오는 11월에 열린 미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상원의원 J.D. 밴스는 “아이를 낳지 않은 미국인은 이 나라의 미래에 아무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녀 없는 ‘캣맘’들이 이 나라를 자기네 끔찍한 삶과 똑같이 끔찍하게 만들려 한다”는 그의 발언은 최근 미국 몇몇 주에서 확대되고 있는 낙태금지법안 문제와 연결되며 경제 및 이민 문제와 함께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sup>6</sup>

###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각국이 저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왔다는 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2명’ 이상으로 되돌려 놓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북미와 OECD의 평균치는 각각 1.64와 1.59이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는 1.79였습니다.<sup>7</sup>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 역시 연도별 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한번 떨어진 출산율을 되돌리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미국의 인터넷 언론매체 vox(Vox)의 가족·직업·교육 분야 선임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애나 노스(Anna North)는 세계 각국의 저출생 문제를 다룬 2023년 11월 27일자 기사에서 “여러모로 볼 때 출산율 하락 추세는 곧 성공의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sup>8</sup> 젊은층, 특히 여성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와 삶의 선택지를 갖게 된 결과가 출산율 하락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을 ‘아이를 낳는 것은 실패’라는 뜻이라 오해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단지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 시민들에게 더는 유일하거나 일반적인 삶의 궤적이 아니며, 그 어떤 정책도 이러한 인식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뽕뽕한 출산 장려금과 너그러운 출산휴가,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어쩌면 ‘모든 시민이 경제적 여건이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라 가정하고 대책을 내놓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사회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삶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모두 응원하고 지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위에서 다양하게 꽃피울 수많은 삶의 모습 중엔 아이와 함께하는 삶도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노키즈존' 안내 쪽지

### 모두의 다양하고 행복한 삶이 가져올 나비효과

“그러니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출산율 자체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그들 각각의 성공입니다.”

앞서 소개한 애나 노스의 기사에서 앨리슨 겐밀(Alison Gemmill)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어떤 형태의 삶도,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중 일부가—혹은 점점 더 많은 수가—아이와 함께하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고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현실적인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지난 8월 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와 함께 개최한 유네스코 토크의 주제인 ‘저출생 시대,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와도 딱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sup>9</sup> 이 토크를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단지 출산율 향상만을 고민하기에 앞서, 욕아하는 삶을 응원하고 존중하며 그 선택이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출생 해결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임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와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정지우 작가 겸 문화평론가도 각자의 시각에서 이를 뒷받침했는데요. 예를 들어 “다름을 인정하고 취향과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내 선택과 상관 없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사회를, 돌봄을 응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미정 교수의 말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응원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은 출산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성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sup>10</sup>

“돈 몇 푼 쥐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욕아하는 삶을 배제하지 말고 초대해야 해요. 욕아하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시그널을 전



[세바시 X 유네스코 토크] 저출생 시대의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 EP.3



[세바시 X 유네스코 토크] 저출생 시대의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하기 EP.2



사회가 주어야 합니다”

- 정지우 작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해요. 개인은 지속가능한 행복의 원천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하고, 사회는 개인이 각자의 상상을 바꾸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김희삼 교수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응원하자는 게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북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깜짝 출산율 반전 스토리’를 살펴본다면, 이 사회가 각자의 삶의 선

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바탕을 마련해 두었을 때 일 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어렵게나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기사에 따르면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락했지만 북유럽 5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에서는 적게는 1%(스웨덴)에서 많게는 16.5%(아이슬란드, 2분기)까지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sup>1)</sup> 불황이나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서 출산율 하락이 발생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상세한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여전히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출산휴가에서부터 급여 보장, 공공 교육 및 보육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유럽 최고의 합계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를 비롯해 다른 서유럽 선진국들도 이러한 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만의 ‘플러스 알파’도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의 속도와 타이밍,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굳건한 신뢰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확한 결론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기간에 새로 아이를 낳은 커플들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그들의 생각과 말 속에서 저출생으로 고민하는 우리 사회가 애타게 찾는 해답, 각자의 삶을 응원하고 뒷받침하는 유토피아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분명 엿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봄, 남편과 함께 세 번째 아이를 갖기로 결정해 2021년 3월에 쌍둥이를 낳은 아이슬란드의 분자생물학 박사인 그뷔드뫼르즈도티르(Guðmundsdóttir)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대 딸들과 함께 집에 머무르면서 함께 밥을 만들어 먹고, 온갖 이야기들을 하며 웃고 떠들고,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십대 아이들과 걸코

같이 할 수 없었을 일들을 하며 ‘내가 아직도 엄마가 되는 일과 작별하고 싶어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죠.”

핀란드의 발라렌(Vallarén) 씨도 이야기합니다.

“원래 어린 몇 년 뒤쯤 아이를 갖기로 했었는데 요. 락다운이 걸리고 모든 여행이 취소되고 남편과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나중보다는 지금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의 말을 보면 북유럽 시민들에게 출산과 육아는 단지 자신의 꿈과 행복의 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지, 대단한 각오와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기회비용보다 특별히 크거나 작지도 않고, 따라서 아이를 갖는 결정이나 갖지 않을 결정을 뒤바꾸는 일도 그저 내 삶과 행복을 위한 자연스럽게 평범한 결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짐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빚은 더더욱 아니게 만드는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분위기. 내가 내리는 선택이 내 인생에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더 나아가 아이와 함께하는 나의 하루가 이 세상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들의 ‘평범한 결정’ 뒤에는 자신이 몸담은 사회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믿음은 보조금이나 휴가, 애국심, 혹은 그 모든 것의 조합으로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저출생과 이로 인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우리 사회는 지금 공존과 관계, 행복, 돌봄과 포용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나요? ‘K-육아’가 나를 갈아넣는 최고난도의 도전과제가 아니라, 오롯이 내 삶과 행복을 위한 지극히 평범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나요? 우리 사회가 그 변화를 위한 첫발

을 내딛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을 때,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받고 응원받고 든든히 뒷받침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때, ‘K-육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선망하는 멋진 삶의 한 갈래가 분명 될 수 있을 거예요.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 1 <https://youtu.be/mLXrUweonA?si=mUMFU2f-Uxk13usb>
- 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0189.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0189.html)
- 3 <https://www.perplexity.ai/search/namnyeo-100myeongyi-ingujibdan-cmziLvE.Tlms7xxgIMKqbw>
- 4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crapDetail.do?articleId=313&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
- 5 <http://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crapDetail.do?articleId=244&listLen=10&position=S>
- 6 <https://www.npr.org/2024/07/29/nx-s1-5055616/jd-vance-childless-cat-lady-history>
- 7 <https://www.euronews.com/health/2024/09/28/europes-fertility-crisis-which-european-country-is-having-the-fewest-babies>
- 8 <https://www.vox.com/23971366/declining-birth-rate-fertility-babies-children>
- 9 [https://unesco.or.kr/240710\\_03/](https://unesco.or.kr/240710_03/)
- 10 [https://youtu.be/0Da\\_fM-GfhQ?si=vXxRUqLUci3Dkztr](https://youtu.be/0Da_fM-GfhQ?si=vXxRUqLUci3Dkztr)
- 11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history/article/the-pandemic-delivered-a-surprise-to-nordic-countries-a-baby-boom>

수능 시험날 다시 생각하는  
우리 교육의 미래



수능날 풍경

KIM JIHYUN / Shutterstock.com

## ‘수능이 끝이 아닌 교육’ 상상하기

11월 14일, 오늘자 유네스코 뉴스레터가 발송되는 이 순간 전국 곳곳에서 수험생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는 학생들이 그간 쏟아부은 땀과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숨죽인 하루를 보낼 테죠. 주식 시장 개장이 한 시간 늦춰지고 비행기 이착륙마저 잠시 중단되는 이 풍경은 전 세계가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험이 한국 청소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도 어김없이 따라옵니다.

부담이 큰 시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혹한 경쟁이 무엇보다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이 고부담 시험의

역사는 20세기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성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성과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도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교육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상상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교육이 과연 미래에도 유효할 것인지, ‘공정한’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시들어가는 청소년들, 갈수록 뚜렷해지는 지역·계층별 성적 격차, 삶 전체의 성패를 학창시절 한 번의 기회를 통해 가르치는 지금의 모습을 미래에도 이어가는 것이 정말 최선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은 단지 일부를 고쳐 지금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우리가 교육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또 교육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환경은 이미 우리에게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 나아가 교육의 정의와 목적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보급된 인터넷망과 디지털 기기는 교육이 학교라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을 팬데믹 시기를 통해 증명했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미래의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대상이나 학습하는 방법이 지금까지와는 판이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기후변화와 자원 낭용 등으로 임계점에 도달한 환경문제 ▲기회와 위기의 양면성을 가진 기술발전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등으로 인해 후퇴하고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술 및 환경 변화와 더불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될 미래의 직업세계 등 우리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이슈들을 우리는 충분히 배우지 못했고, 우리 아이들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에 현재의 교육은 너무나 작고 오래된 집입니다. 따라서

새 집을 지으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새로 추가할지를 고민하듯, 우리는 지금 ‘교육이란 마땅히 어떠해야 하고, 우리는 교육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유네스코는 그러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더 늦기 전에 모두가 수긍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답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1년에 ‘교육의 미래 보고서’, 즉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sup>1</sup> 지난 1972년의 ‘포르 보고서’와<sup>2</sup> 1996년의 ‘들르르 보고서’에서<sup>3</sup>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듯, 유네스코는 이번에도 21세기 이후의 교육에서 지켜 나가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유네스코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긴박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변화가 필요하



지난 2021년 11월 유네스코 총회 회의장에서 공개된 '교육의 미래 보고서'

©UNESCO/C.ALIX

며, 바로 그러한 변화를 교육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교육을 바라보고 교육으로부터 기대하는 바를 다시 상상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온 교육의 모습을 다시 상상해 보자는 이야기는 너무 거창해 보이거나, 혹은 막막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으로 삼은 2030년까지, 그리고 21세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50년까지 우리 서로 간에, 우리와 살아있는 지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기술 간에 균형 잡힌 관계를 맺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이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단지 사회적 성공을 위한 ‘티켓’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당연히 주어지고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공동재(common goods)’임을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때, 그것은 더욱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우리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줄 것입니다.

### 우리 앞에 펼쳐질 교육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이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발간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이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며, 단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초대장’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그 초대장을 받아든 인류가 3년이 지난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은 바로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전 세계 교육 분야 리더들과 전문가, 그리고 교사와 청년 등의 관계자들이 미래 교육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교육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sup>4</sup>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장을 지낸 샤흘레 워크 주드 에티오피아 전(前)대통령을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인사, 교육 기관·단



체 전문가, 연구자, 교사, 청년 등 90여 개국 1,500여 명이 참가하는 3일간의 일정 중 주제별 워크숍을 제외한 전체 세션은 모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모든 세션들을 다 찾아보기 힘들다면 궁금한 분야, 혹은 관심 있는 분야를 꼭 집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미래 교육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를 얻는 데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덧붙이는 교육 변혁 달성을 위한 여정의 핵심 포인트 7가지를 파악한 뒤 꼭 보고 싶은 세션을 미리 추려둔다면, 전 세계가 함께할 이번 포럼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1 <https://unesco.or.kr/wp-content/uploads/2024/06/유네스코-교육의-미래-보고서-함께-그려보는-우리의-미래.pdf>  
 2 <https://unesco.or.kr/wp-content/uploads/2024/06/존재하기-위한-학습.pdf>  
 3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02734>  
 4 <https://futuresedu2024.kr/>  
 5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91657>  
 6 <https://www.unesco.org/sdg4education2030/en/articles/sneak-peek-7-ways-countries-are-transforming-education?hub=701>

### 이슈쿠키 돋보기

### 교육 변혁의 방향을 가능해 보는 7가지 포인트

2021년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발간되고 그 다음해인 2022년에 열린 유엔 교육변혁 정상회의(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에서 각국은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제안한 바대로 교육 변혁을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이 그러한 약속을 얼마나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했고, 여기에 응한 91개국의 응답 내용을 종합해 보고서 『Transforming Education towards SDG4 – Report of a global survey on country actions to transform education』를 발간했습니다.<sup>5</sup> 약 3년에 걸친 ‘전 세계 교육계의 변혁 실천 사례 집계’라고 볼 수 있는 이 보고서는 실천 사례들로부터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도출했는데요.<sup>6</sup> 이는 다가오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앞두고 지금 필요한 교육 변혁의 방향과 이슈들을 궁금해하는 분들께 유용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새로운 교육? 그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교육 변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을 바꾸기 위한 행동은 각국이 처한 현실에 맞게 구상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간의 실천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교육 변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혁 의지에 대한 책무성 및 비전 공유 ▲정책 및 전략의 정합성 ▲지역 내 주체들의 참여 및 권한 강화 ▲감독 당국의 효율성 제고를 핵심 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교육 문제와 과제는 어떤 한 맥락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므로,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이러한 공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시나리오 분석과 미래 문해력을 활용해 향후 도전과제와 기회를 예측해 보는 전체세션 어떤 교육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인가(12월 2일 14:45 - 15:30)는 여기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교육을 바꾸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세계 공

#### 동의 노력이 필요해요

유네스코에 교육 변혁 실천 사례를 공유한 91개국 중 86%가 교육 재정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에 대한 공공 재정 확보액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한편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적인 도움이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세계 주요 공여국들은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공적개발원조(ODA)에 투입하고 그중 15%를 교육 분야에 할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달성한 공여국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교육의 미래를 위한 여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포럼 첫째 날 예정된 고위급 정책 대화 - 다양한 맥락에서의 교육의 미래: 국제적 관점(12월 2일 15:30 - 16:30)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날 열릴 전체 세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식과 연구(12월 4일 13:30 - 14:30)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과 분석들, 파트너십 등에서 도출한 프로젝트 등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 3. 포용, 공정성, 성평등 달성은 여전히 중요한 의제이고,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유네스코에 실천 사례를 보내 온 91개국 전체가 2030년까지 달성기로 한 교육 의제인 교육2030 의제의 핵심 요소이기도 한 이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아와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나 가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늘어나는 강제 이주민과 난민 등 21세기 이후에도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전히 적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포럼 마지막 날 예정된 주제별 병행 세션 중 상호 연결된 세계의 시민성과 평화 구축(12월 4일 09:45 - 11:00)에서 관련 과제를 살펴보길 권합니다.

#### 4. 디지털 기술은 앞으로도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

## 을 거예요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변화를 추동하는 큰 힘인 동시에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그 활용법을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디지털 학습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유네스코에 보고했고, 교육 목적의 인터넷 연결을 확충하고 그 과정에서 포용과 공평성을 강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학습 콘텐츠의 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디지털 학습 플랫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포럼 둘째 날에 있을 기초연설 디지털 시대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받을 권리(12월 3일 15:00 - 16:00)에서 디지털 기술이 교육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그 과제를 살펴보고, 이어질 주제별 병행 세션 중 교육 기술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12월 3일 16:15 - 17:30)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가능해 보세요.

## 5. 더 훈련되고 동기부여되고 수준높은 교사들이 교육 변혁을 이끌어 나가야 해요

새로운 커리큘럼과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과 교수법을 갖춘 교사들은 급변하며 더욱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유네스코에 자료를 보내온 국가의 90%가 교사 훈련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변혁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라고 보는 유네스코는 2030년까지 약 4400만 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긴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도 교사의 중요성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럼 둘째 날의 주제별 병행 세션(▲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학, 교육과정 및 평가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 12월 3일 16:15 - 17:30)과 마지막 날의 주제별 병행 세션(▲고등교육의 미래, 12월 4일 09:45 - 11:00)을 주목해 보세요.

## 6. 이제 교육은 때와 장소, 그리고 나이와 상관 없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해요

미래의 교육 환경에서도 학교는 여전히 중요한 학습의 장소로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래에도

우리가 교육을 상상하는 장소가 학교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 내용, 그리고 전달 방식을 기존의 학교 중심에서 생애 전 단계에 맞춰 바꾸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교실 안과 밖 모두에서 어떻게 충분한 기회를 확보할지, 그리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포럼 마지막 날 주제별 병행세션 중 평생학습 사회 구축하기(12월 4일 09:45 - 11:00)에서 그 여정을 함께 가늠해 보길 바랍니다.

## 7. 청년, 학생, 그리고 교사까지, 교육의 모든 주체가 교육을 바꾸는 데 참여해야 해요

유네스코가 새로운 교육을 상상하며 사회 전 구성원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을 것을 요청한 이유는 교육을 바꾸는 일이 아주 원대한 목표이며, 교육이 공동재라는 사실에 대한 전 구성원의 동의와 인식 전환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결정권자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교육의 모든 관계자, 달리 말해 사회의 전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기를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 변혁 과정에 있어 이러한 관계자들의 참여는 점점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네스코에 자료를 보내온 91개국 중 4분의 3에서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포럼 둘째 날의 전체 세션 공동재로서의 교육 변혁: 누가, 어떻게?(12월 3일 17:30 - 18:30)에서 집단적 참여와 의사 결정, 거버넌스, 주인 의식을 위한 경로를 탐색해 보고, 다음날의 특별세션 청년이 보는 교육의 미래(12월 4일 11:15 - 12:15)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2024. 12. 12

인류세

지속가능발전

인류세 논의로 살펴본,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아르헨티나 리오 핀투라스 선사시대 동굴 벽화의 모습. 인류가 지구에 남긴 모든 형태의 '흔적'은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되게 될까?

유키 피디이/Public Domain

# 지구는 '인류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살입니다. 과학자들이 현생 인류(호모 사피엔스)가 처음 출현한 때로 추정하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35만 년 전입니다. 1mm 단위로 표시가 된 4.5미터짜리 줄자에 지구의 역사를 대입하면, 공룡이 번성하던 중생대(中生代)는 그중 약 18.7cm를 차지하고, 공룡이 멸종한 뒤부터 현재까지의 신생대(新生代)는 줄자의 맨 끝 6.6cm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지금껏 살아온 세월은요? 줄자 한 칸이 약 백만 년에 해당하는 셈이니, 한 칸은 커녕 눈금 두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21세기 들어 과학자들은 바로 이만큼, 인류가 지구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이후만큼을 새로운 지질시대로 지정하자는 논의를 매우 진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질시대인 홀로세(Holocene Epoch, 약 1만 1700년 전-현재)를 끝내고 새로운 지질시대로 '인류세(Anthropocene Epoch)'를 지정하자는 이야기지요.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혹은 이기적인 구분으로 보이는데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논의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지구에 남은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기에

지구 전체 역사는 지층에 남아있는 지질학 및 생물학적 증거에 따라 그 시기를 구분하는데요. 누대(累代, Eon), 대(代, Era), 기(紀, Period), 세(世, Epoch)의 계층으로 각각의 시기를 결정하고 이름을 붙이는 일은 전 세계 지질학자들의 모임인 국제지질과학연맹(IUGS)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구분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현

생누대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IUGS는 2009년부터 인류세실무그룹(Anthropocene Working Group, AWG)을 통해 홀로세 이후의 새로운 시기로 인류세를 지정하는 일이 타당하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룹 소속 연구자들은 지구 곳곳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한 연구를 수행했고, 결과를 보고받은 IUGS의 '제4기 층서 소위원회'는 지난 2월에 인류세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쳤습니다. 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IUGS는 인류세를 새로운 지질시대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년간 이어온 이 논의 과정은 지질학자들뿐만 아니라 타 학계 및 대중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시 2018년 『꾸리에』와 『유네스코뉴스』에서<sup>2</sup> 이 흥미로운 논의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네덜란드의 대기과학자이자 1995년 노벨상 수상자이기

도 한 파울 크뤼첸(Paul Crutzen) 교수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불을 지핀 이래로 인류세 지정을 찬성하는 측이 내세운 논리는 명확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일으키고 이를 발전시켜 온 과정에서 지구 전체 시스템에 남긴 변화의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이지요. 인류는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남는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만들어 지표면의 모습을 바꾸고 있고, 거대한 댐과 방조제를 지어 강과 해안선의 모습을 바꾸고 있으며, 매순간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구온난화와 해양산성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0여 년간 일어난 생물종 멸종 추세 역시 자연적인 추세에 비할 바 없이 가팔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전 45억년 간의 지층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플라스틱 인공 화합물, 그리고 수 차례의 핵무기 실험 및 사용을 통해 방출된 방사능 물질의 흔적은 히말라야 꼭대기부터 태평양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고루 남아 있습니다. 인류세실무그룹은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이

있었던 1952년을 기점으로 전 지구에 퍼진 방사능 물질의 흔적을 확인했고, 인류세를 지정하게 된다면 1952년을 그 기점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류세 찬성론자로서 IUGS 내 논의를 이끌어왔던 얀 잘라시에비츠(Jan Zalasiewicz) 레스터대 교수는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로써 20세기 중반 이후 지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 상태에서 동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sup>3</sup>

### 과학은 과학이고, 경고는 경고다

그런데 잘라시에비츠 교수의 해당 발언에 담긴 속뜻은 역설적으로 다수(66%)의 지질학자들이 IUGS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배경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지구 전역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켜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연구와 엄밀한 층서학(層序學, 지층을 연구하는 학문)적 증거가 아니라, 단지 인류의 과오를 경고하기 위한 '이벤트'로서 지질시대 지정을 활용하는 일에는 과학자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최종 결정 사항을 발표한 IUGS 역시 인류세 지정의 근거로 제시된 증거들이 현재 확립된 지질시대 구분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IUGS는 우선 인류세의 기점으로 제시된 1952년이 너무 임의적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전에 산업혁명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농경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인류가 지구에 '인위적인 변형'을 가한 역사의 기점이 되기에 충분한데요. 단지 현 시점에서 방사능 흔적에 비해 지구 전역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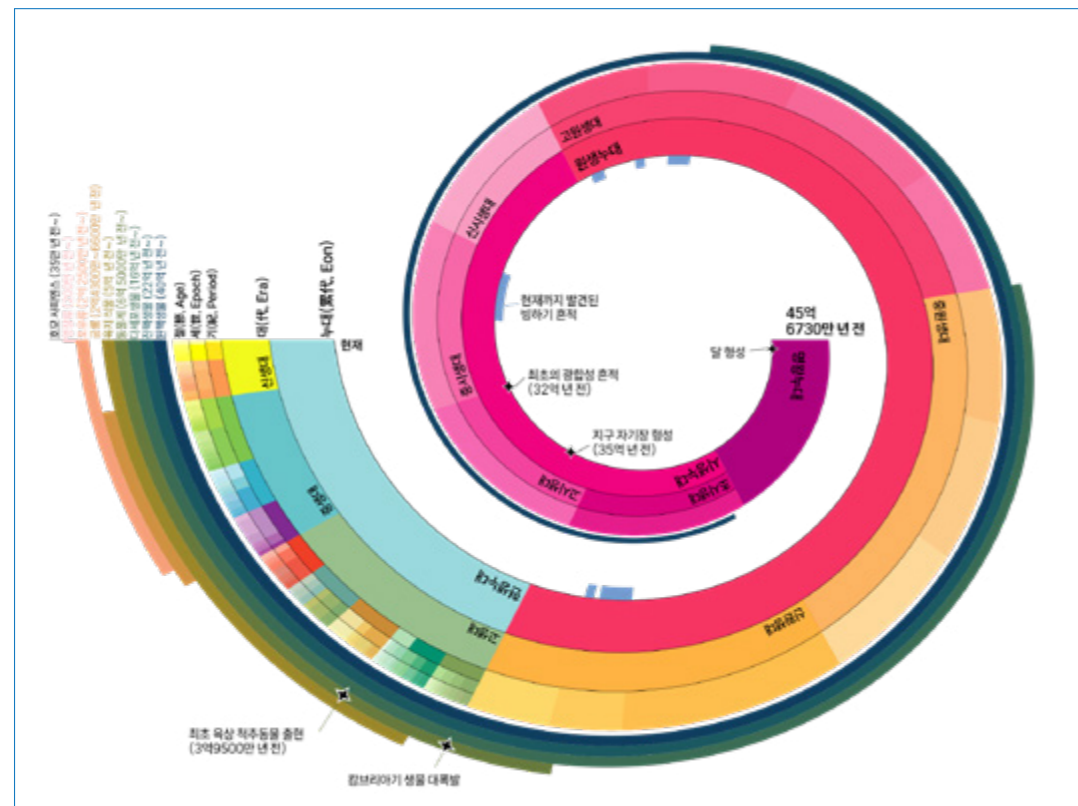
더 큰 문제는 지질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 지정하려는 인류세의 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데 있습니다. 195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사람의 수명보다

도 짧은 기간을 지질시대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줄자'의 비유로 살펴보았듯 최소 수만 년에서 백만 년 이상에 달하는 기존 지질시대에 비해 짧아도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 지질시대에 해당하는 홀로세 시작 시점의 추정 오차범위만도 11,650년 전을 중심으로 앞뒤로 699년에 달하는데요. 이를 감안한다면 1952년부터의 70여 년이라는 기간이 지질학적 관점에서 얼마나 짧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줄자 눈금'만도 못한 기간을 새로운 단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이며 더 광범위하게 합의된 근거, 무엇보다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 지질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질학자들이 인간이 지구에 끼치고 있는 (나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IUGS 역시 인류세가 이미 "지구학이나 환경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나아가 일반대중들까지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용어"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인간과 지구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없이 중요한 용어로 남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더불어 "이번 논의 과정에서 수집된, 인간이 전 지구적 단위에서 가한 충격을 보여주는 다양한 데이터는 향후 논의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 지구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번 IUGS의 결정을 통해 지질학계 차원에서의 인류세 논의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인류세라는 주제는 지질학 분야를 넘어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유네스코 또한 인류세를 둘러싼 논의를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텐데요. 이는 단지 유네스코가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을 통해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기 때



지구의 지질시대와 생물종들의 타임라인

Jarred C. Lloyd 호주 에들레이드대 연구원(지질학 박사)의 위키미디어 자료 번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제주도의 수월봉  
지질트레일에서 본 풍경

Wikipedia/Sohyeon Bak

문만은 아닙니다. 애초에 인류세라는 용어가 과학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것이 단순한 지질학적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환경 등 인류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인류세라는 단어의 배경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그리고 생태계와 지구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직시해야 할 문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쉽게 찾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세라는 주제가 호명하는 다양한 학문들, 즉 지질학뿐만 아니라 환경학, 인문학 등에 대한 학제적 접근(서로 다른 학문 영역을 넘나들며 포괄하는 접근)은 지금 인류가 지구 시스템에 주고 있는 충격을 인지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인류세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위한 뜻을 모을 수만 있다면, 유네스코로서는 필요한 화두를 던지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네스코가 가장 잘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2010년)된 제주도. 이 아름다운 섬의 서쪽 해안에 수월봉이 있습니다. 수월봉은 동쪽의 성산일출봉과 함께 제주도의 대표적인 수성화산체(땅에서 뿜어져 나온 마그마가 물을 만나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분화구) 중 하나입니다. 성산일출봉과는 달리 수월봉은 화산체 대부분이 바다에 잠긴 상태이고, 덕분에 우리는 수월봉을 중심으로 차귀도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지질트레일을 걸어가면서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선명하게 드러난 화산재 지층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안선을 감싸면서 구불구불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무늬 옆에 서면 인류의 역사를 가볍게 뛰어넘는 장구한 시간의 흔적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커켜이 쌓인 지층 옆에 서 있는 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역사의 맨 끄트머리에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그 흔적도 차곡차곡 쌓여갈 테죠. 그렇게 언젠가, 어쩌면 아주아주 오랜 세월 뒤 언젠가, 쌓이고 쌓인 그 흔적은 지구의 역사 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렷한 인류의 시대를 증언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지구에 남은 상처가 아니라 또 다른 경이로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인류세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모두에게 흥미롭고 또 중요한 이야기로 남을 거예요.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 1 <https://courier.unesco.org/en/articles/welcome-anthropocene>
- 2 <https://unesco.or.kr/인류세|anthropocene-우리가-남긴-흔적/>
- 3 <https://www.theguardian.com/science/2024/mar/22/geologists-reject-declaration-of-anthropocene-epoch>

# 알쓸U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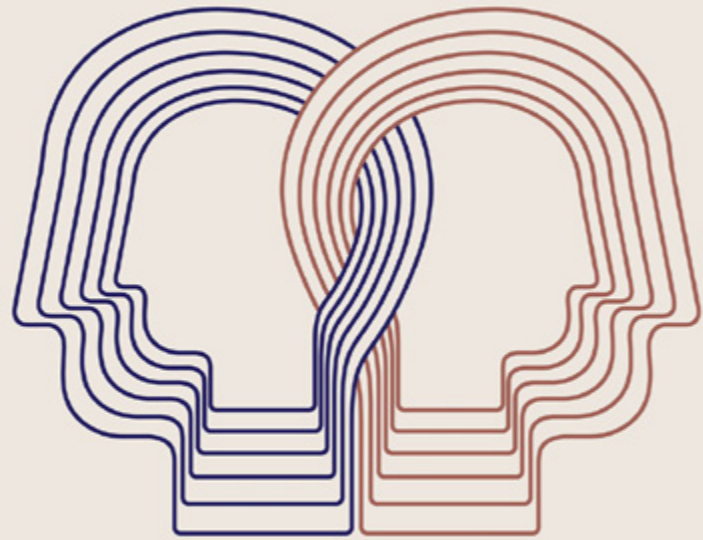
2024.02.22	'백지장'도 '과학'도, 맞들면 나은 이유
2024.03.28	로레알, 프라다, 루이비통×유네스코=♥
2024.04.25	'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과 백두산
2024.05.23	지금 올림픽 성화는 세계유산 순례 중
2024.06.27	인류 문화의 백업본, 달에 보내요
2024.07.25	세븐틴, 유네스코 친선대사가 됐다고?
2024.08.22	유산 보호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
2024.09.26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모든 것
2024.10.24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금의 흐름
2024.11.28	나도 '제로 웨이스트' 할 수 있을까?
2024.12.26	문학이 온다, 번역이 온다, 평화가 온다

66

106

알아두면 어디서든 쓸데 있는  
유네스코 장학지식 이야기.  
유네스코 사업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와  
정확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Open Science Outlook(오픈 사이언스 전망)』  
통해 본 세계 각국의 움직임



© kovato1 / Shutterstock.com

## ‘백지장’도 ‘과학’도, 맞들면 나은 이유

2021년 11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전 세계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오픈 사이언스 권고」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약 2년 3개월이 흐른 지금, 개방과 공유, 그리고 협력을 통해 더욱 공평하고 효율적인 21세기의 과학 발전을 이룩하자는 그 다짐에는 얼마나 진척이 있었을까요? 유네스코가 권고 채택 이후 처음 발간한 보고서 『Open Science Outlook(오픈 사이언스 전망)』은 약간의 희망적인 소식과 더불어, 우리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sup>1</sup>

### 조금씩 낮아지는 장벽

보고서는 지난 2년 사이에 오픈 사이언스와 관련된 정책과 전략, 행정 체계를 도입한 국가가 11개국(남아

공, 라트비아, 레소토,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콜롬비아)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적인 성장’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오픈 사이언스가 연구 과정과 연구 인프라, 참여 인력 및 과학지식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미약하다고만 볼 순 없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고무적인 움직임은 또 있습니다. 오픈 사이언스의 ‘출발점’, 혹은 ‘첫 발’이라 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즉 유료 구독 등의 장벽 없이 폭넓은 접근권을 보장하는 과학 출판물의 수가 최근 10년 새 눈에 띄게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에는 전체 과학 출판물의 거의 절반이 오픈 액세스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체 공개 출판 및 데이터 저장소의 85%가 서유럽과

### 알쓸U잡 키워드

#### 오픈 사이언스? 과학을.. 열어..?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는 단어 그대로 과학 지식을 폭넓게 개방하고 과학 연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그 결실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연구소가 비공개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독점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면, 오픈 사이언스에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담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21세기의 과학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유네스코는 수 년간의 연구와 협의 끝에 폐쇄적 과학 모델 대신 공유와 협력과 개방을 근간으로 한 오픈 사이언스로의 전환 원칙을 담은 「오픈 사이언스 권고」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북미에 편중돼 있고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은 각각 전체의 2%와 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별 각개약진을 넘어, 오픈 사이언스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체적인 진전을 이뤄낼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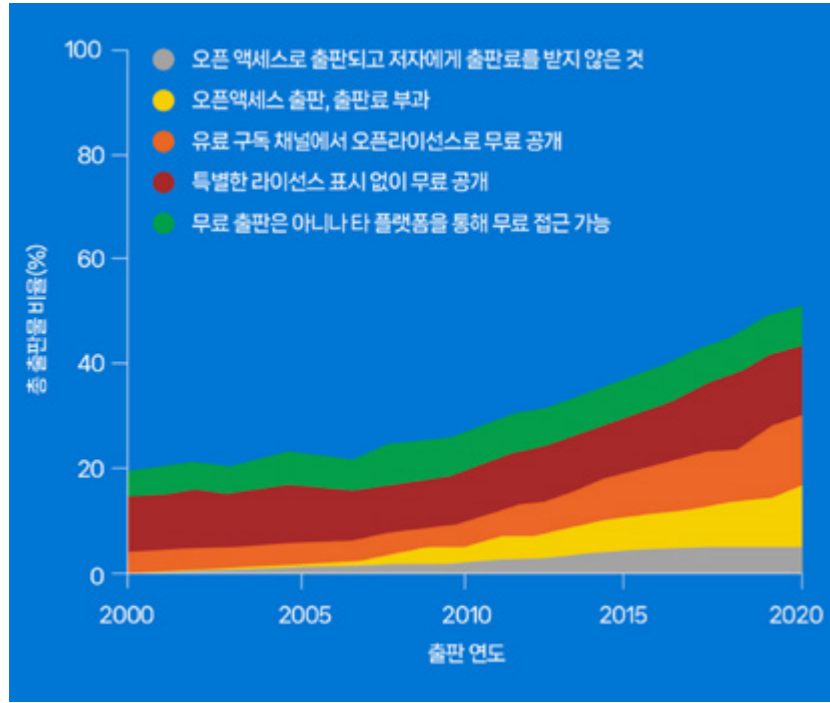
#### ‘풍선효과’를 막아라

보고서는 오픈 액세스 출판물의 증가 이면에 미처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강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강남 주변 지역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듯, 점점 늘어나는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학술 저널들이 독자 대상 유료 구독을 없애는

대신 저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출판료(publication fee)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021년에 발간된 『유네스코 과학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개발도상국 이하 국가의 과학자들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알리는 데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 지식의 공유를 가로막는 벽이 위치만 바뀌어서 다시 세워진 셈입니다.<sup>2</sup>

이러한 부작용이나 저항(?)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과학 출판물을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며, 마찬가지로 막대한 자금과 인력과 비용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오픈 사이언스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단순한 연구 출판물의 무료 공개를 넘어 연구 시설과 기자재의 공유, 과학에 대한 사회적 참여 및 대화의 확대에 이여지기 위해서는 과학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경쟁과 독점’의 20세기적 가치보다, ‘개방과 협업’의 21세기적 가치가 더 큰 보상과 더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너무 거창한 희망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1세기 인류 최대의 재앙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과학계의 개방과 협력이 이뤄냈던 눈부신 성과를 돌아보면, 그것은 순진한 꿈이 아니라 근거 있는 분석의 산물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네스코가 오픈 사이언스의 실현을 향한 앞으로의 발걸음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 <https://www.unesco.org/en/articles/number-countries-open-science-policies-has-almost-doubled-adoption-unesco-recommendation>  
2 [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bhP8oIGvWPWY6WfPliz8aRGMiWZ4Or\\_1636445084\\_2.pd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bhP8oIGvWPWY6WfPliz8aRGMiWZ4Or_1636445084_2.pdf)  
3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why-open-science-is-critical-to-combating-covid-19-cd6ab2f9/>



'Open Science Outlook'(2023) p.36

'오픈 액세스'에는 그 수준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든 오픈 액세스를 채택한 과학 출판물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전체의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2024.03.28

글로벌 기업들과 유네스코의 '환상의 콜라보'

LVMH와 유네스코의 파트너십 하에 진행되고 있는 '벌을 지키는 여성(Women for Bees)' 프로그램의 대모(godmother)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2022년 캄보디아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sup>1</sup>

유네스코 영상 캡처

알쓸U잡 더보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오픈 사이언스의 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인류가 고통받던 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계는 이를 국경을 초월한 유례없는 협력을 통해 달성했습니다. 2020년 OECD가 발간한 코로나바이러스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사스(SARS)가 창궐했을 때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데 5개월이 걸렸던 반면, 코로나19 때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sup>3</sup> 보고서는 이것이 전 세계 117개 과학 및 보건의학 관련 조직들이 오픈 사이언스에 참여해 데이터와 연구 자료를 공유한 덕분에 가능할 일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보고서 역시 "2021년 중반 현재 전체 코로나19 관련 논문의 85%가 오픈 액세스로 나와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과학 논문의 40% 가량이 오픈 액세스

스였던 것과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엔데믹을 맞이한 지금, 보고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논문들이 공식적인 오픈 라이선스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료로 공개가 되었을 뿐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유료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처음이 제일 어렵다'고 했던가요? 지금 우리 앞에는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이들 과제가 더 큰 위기를 불러오기 전에 전 세계는 과학에서 그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그 성과를 되새기면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과학' 대신 '함께 연구하고 연대하는 과학'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로레알, 프라다, 루이비통×유네스코=♥

세계적 기업들이 자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기부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기업들에게 지적 협력과 도덕적 연대를 바탕으로 평화를 추구해 온 유네스코는 언제나 매력적인 파트너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돈만 낼게 알아서 해 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의지가 있는 파트너라면 유네스코와 손을 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답니다. 오늘은 유네스코와 손을 잡은 여러 파트너들 중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활동을 펼쳐 온 기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요.

로레알 × 유네스코 = 과학엔 '우먼파워'가 꼭 필요해요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로레알(L'Oreal)은 1998년

부터 유네스코와 함께 로레알-유네스코 여성 과학자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로레알은 과학 연구, 포용적 아름다움, 기후 행동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로레알-유네스코 여성 과학자상은 이제 유네스코의 과학 및 성평등 분야에서도 돋보이는 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았어요.

지금까지 과학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공로로 이 상을 받은 여성 과학자는 127명에 이르고, 그중 7명은 노벨상까지 수상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유명희 박사와 서울대학교 김빛내리 교수가 각각 1998년과 2008년에 수상한 바 있고, 2020년에는 신미경 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2022년에는 최소영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연구조교수가 전도유망한 신진 여성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인터내셔널 라이징 탤런트상’을 받기도 했어요. 이 파트너십은 단순히 상을 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116개 이상의 국가에서 3,900명 이상의 여성 과학자들을 지원하면서 과학 분야의 진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고 있는데요. 여성 과학자들은 과학계가 신기술의 가속화와 인구 고령화, 생물다양성 위협과 같은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더욱 다양한 시각, 더욱 포용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과학계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오늘도 연구실에서 땀을 흘리는 전 세계의 여성 과학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LVMH × 유네스코**  
= 모두 함께 가꾸어야 할 생물권, 그리고 인간

루이비통, 디올, 불가리, 모엣상동 등의 브랜드들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종합 명품 기업 LVMH는 2019년부터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Man and Biosphere, MAB)’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 지구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방지를 위한 브라질의 NGO인 FAS(Fight against deforestation)와 함께하는 ‘아마존 생물권보전지역 프로젝트’예요.<sup>2</sup> ‘지구의 허파’라는 별명에 걸맞게 아마존 유역에는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등 4개국에 걸쳐 모두 8곳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데

**알쓸U잡 키워드**

**인간과 생물권(MAB)프로그램이란?**

MAB(Man and Biosphere) 프로그램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1971년부터 시작된 정부 간 과학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한 자연 보전만이 아닌,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신선한 접근법을 채택한 MAB는 사회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는 개발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현재 전 세계에는 700곳이 넘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이 지정돼 있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2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

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모델을 실천에 옮기고 있어요. 한국에도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8), 강원생태평화(2019), 연천 임진강(2019), 완도(2021) 등 9곳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답니다. 흥미가 생긴다면 지난 2021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MAB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영상도 함께 감상해 보세요.



요. 날이 줄어드는 아마존의 삼림 지역은 이곳에 사는 원주민을 포함한 1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021년부터 유네스코와 LVMH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멸종 위협에 처한 생물종을 보존하고 이곳의 생태 환경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할 역량을 갖춘 젊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등의 42개 이니셔티브를 지원했어요. LVMH 산하의 화장품 브랜드 겔랑(Guerlain)을 통해 운영하는 ‘벌을 지키는 여성(Women for Bees)’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해요.<sup>3</sup> 이 프로그램은 불가리아, 캄보디아, 중국,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세계 곳곳에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환경적·경제적인 이유로 경작지를 갖지 못한 여성들이 양봉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동시에 토종벌과 생태계 보전에도 힘쓰도록 돕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꿀벌이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화제가 된 것도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네스코는 2025년까지 전 세계 25개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토종벌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라다 × 유네스코**  
= 푸른 바다 저 멀리 넘실거리는 미래

고급 패션 기업 프라다(PRADA)는 2019년부터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해양 문해력(ocean literacy)을 보급하고 그들로부터 바다 보존을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 비욘드(SEA BEYOND)’를 운영해 오고 있어요.<sup>4</sup>

2023년부터는 교육 분야를 넘어 과학 연구 보급과 인도주의적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분야에 초점을 맞춰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히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정보 접근성과 교육, 문화 보급 비영리단체인 ‘국경 없는 도서관(Bibliothèques Sans Frontières)’도 새 파트너로 참여키로 했어요. 이번 합의를 통해 프라다는 자사의 나일론 재활용 브랜드인 리-나일론 컬렉션(Re-Nylon Collection)의 수익 1%를 시 비욘드 프로그램에 투입할 예정이고, 올해에만 56개국 184개 중·고등학교에서 34,385명의 학생들이 해양과 기후의 상호 관계 및 관련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

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과학(The Science We Need for the Ocean We Want)'을 비전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 간 과학 연구 협력을 모색하는 유네스코-IOC에게, 넓고 푸른 바다를 가슴에 품은 미래세대의 지식과 참여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1 <https://youtu.be/BxxFnEPjeXs?si=EiP3oe-5gJRhiXF>
- 2 <https://www.unesco.org/en/amazon-biosphere-reserves-project>
- 3 [https://www.unesco.org/en/mab/women-bees?hub=88488&TSPD\\_101\\_R0=080713870fab2000c33c3dad50df030012d1d4d614296df4a706dba3ba4e81b5d3cd0b8ce9a53908b9effaf0143000a2855829670e9938ae0e59ce8eba3452f707fc9a20a1bfa258e5257dc24dfc763507db13ea7629589b71e46b4952a5ad](https://www.unesco.org/en/mab/women-bees?hub=88488&TSPD_101_R0=080713870fab2000c33c3dad50df030012d1d4d614296df4a706dba3ba4e81b5d3cd0b8ce9a53908b9effaf0143000a2855829670e9938ae0e59ce8eba3452f707fc9a20a1bfa258e5257dc24dfc763507db13ea7629589b71e46b4952a5ad)
- 4 <https://www.pradagroup.com/en/sustainability/cultural-csr/sea-beyond.html>



백두산 천지 전경

Stock for you / Shutterstock.com

2024.04.25

## ‘백두산(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한국의 입장

### ‘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과 백두산. 일타강사가 설명해 드림

지난 3월 20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18곳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새로 인증됐는데요.<sup>1</sup> 이 중에는 중국의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의 중국측 이름) 세계지질공원’이 있어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백두산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직접 문의하는 분도 계속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 알쓸U잡은 ‘일타강사’로 변신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려 해요.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 맏소사. 백두산이 중국의 세계지질공원이라니, 무슨 일이야?

먼저 세계지질공원이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유네스

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이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리하기 위해 회원국의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곳이에요. 단순한 보호구역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질유산의 사회·경제적 활용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랍니다.

알다시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이어지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은 백두산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그중 중국 영토에 속하는 부분을 지난 2020년에 ‘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이란 이름으로 인증을 신청했고 이번에 최종 인증을 받은 거예요.

#### 그럼 북한쪽 백두산은 세계지질공원이 될 수 없는 거야?

#### 알쓸U잡 더보기

#### ESD? ESG? 그리고 그린워싱

예전에는 기업의 환경 및 사회공헌 활동이 주로 회장님들의 '통큰 기부'로 갈음되었다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진 21세기 들어서는 기업들의 그러한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큰 소비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단순한 기부나 캠페인이 아닌,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도의적·윤리적 책임을 인식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았고, 최근에는 환경과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이를 더욱 확장시킨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기업의 대표적인 비재무적 지표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ESG가 유명세를 타다 보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가끔 ESD와 ESG를 혼동하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접하기도 하

는데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뜻하는 ESD는 ESG와 다르다는 사실을 이 기회를 빌려 알려드립니다. 물론 ESD를 통해 행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천하는 친구들이 많아진다면, 더 많은 기업이 ESG를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ESD는 ESG 확산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ESD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환경 소비자들의 지갑만 노리는 일부 기업의 '그린워싱(green washing;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을 날카롭게 분별해 내는 힘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북한도 이미 2019년에 자국 영토 부분을 ‘백두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한 상태예요. 북한에는 아직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한 곳도 없는데, 백두산이 그 첫 번째 신청지가 된 거죠.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해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 이 절차를 밟지 못해서 진행이 멈춰있는 상태예요. 조만간 실사가 진행되어 북한쪽 백두산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번 지정으로 “백두산이 창바이산이 됐다”는 식의 뉴스가 쏟아지는데

‘동북공정’을 비롯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영토 내의 백두산 지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고 해서 백두산 전체가 중국에 넘어갔다가 중국만의 지질공원으로 등재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백두산은 이미 중국과 북한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돼 있기도 해요.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중국은 1980년에, 북한은 1989년에 각각 자국 영토 내 백두산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올렸어요.

### 민족 분단도 억울한데, 이제 앞으로도 백두산은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관리해야 해?

지구상에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형성돼 있던 자연지형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국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보호구역 지정이나 유산의 활용을 두고 국가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나 다양한 보호지역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장소를 ‘접경(transboundary)’ 혹은 ‘초국경(transnational)’ 유산이나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접국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과 프랑스가 1997년에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피레네-몽페르뒤(Pyrénées-Mont Perdu)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들 수 있는데요.<sup>2</sup> 피레네산맥을 경계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가 해당 지역을 하나의 유산으로서 함께 관리하기로 한 거죠.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세계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아요. 백두산 역시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 접경 유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그러한 협력을 펼친다면, 그리고 한국이 이를 적절히 지원한다면 더욱 평화로운 관리와 보전이 가능할 거예요.

### 백두산이 기본적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문제라면, 한국은 뭘 할 수 있을까?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직접 내놓을 수 있는 대응책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애국가에도 나오는 백두산에 우리가 마냥 무관심할 수는 없죠. 외교부 역시 이번 집행이사회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백두산의 중국 영역 부분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주목하고, 백두산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며, 앞으로 등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도 기대한다”고 밝혔어요.<sup>3</sup>

북한이 유네스코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 협력을 펼치는 일도 필요해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 1995년부터 중국과 일본, 북한, 몽골 등과 함께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를 설립해 지역 내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남북 협력과 교류의 기반도 다져 왔는데요. 앞으로 세계지질공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여러 유산 관련 사안에서도 이와 같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1 <https://www.unesco.org/en/articles/unesco-names-18-new-geoparks>  
 2 <https://whc.unesco.org/en/list/773/>  
 3 [https://chn.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632&page=1](https://chn.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632&page=1)



1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2 프랑스와 스페인이 함께 초국경 유산으로 등재한 피레네-몽페르뒤의 풍경

© Jeonbuk West Coast Geopark  
 © Junaid Sorosh-Wali / UNESCO

#### 알쓸U잡 키워드

#### 한국, 중국,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황

새로 지정된 18곳을 포함해 전 세계에는 48개국에 213곳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중국은 ‘창바이산’을 포함해 이번에 무려 6곳을 새로 인증받아 총 47곳의 세계지질공원을 갖게 됐는데요. 그간 코로나19로 심사가 밀려 있던 것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인증하면서 이번에 그 수가 많았죠. 앞에서 언급했듯 북한에는 아직 세계지질공원이 없고, 한국에는 제주도(2010년 인증), 청송(2017년), 무등산권(2018년), 한탄강(2020년), 전북 서해안(2023년)의 5곳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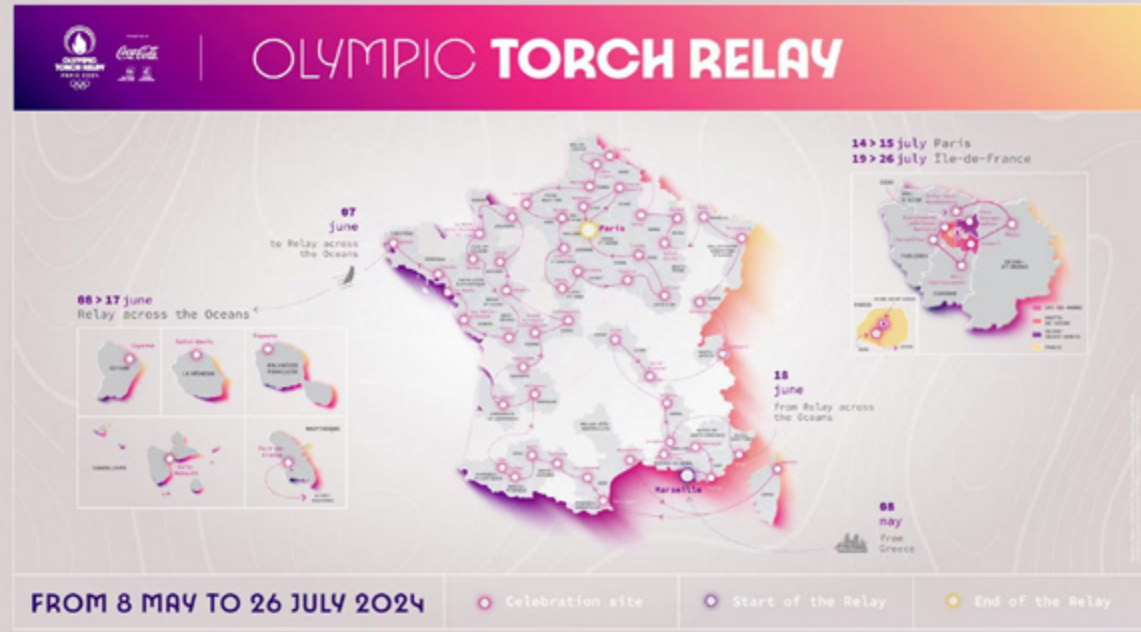
#### 알쓸U잡 더보기

#### 제주도에 설립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백두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전 세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중 2개 이상의 국제보호지역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지정된 장소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지역의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훈련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인 ‘국제보호지

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설립안은 2019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한국-유네스코 간 협정도 체결되어 제주도에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훈련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면 백두산과 같은 국제보호지역에서의 협력에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파리 올림픽 성화봉송 루트 미리 가보기



파리 올림픽 홈페이지 ©Paris 2024

파리 올림픽 성화봉송 루트

## 지금 올림픽 성화는 세계유산 순례 중

전 세계의 스포츠 축제인 2024 파리 올림픽이 이제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올림픽 기간 내내 경기장을 밝히며 정정당당한 경쟁과 상호 이해의 정신을 상징할 올림픽 성화는 이미 프랑스 전국 곳곳을 돌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본부가 위치한 국가답게, 혹은 문화 강국임을 자부하는 나라답게 이번 파리 올림픽 성화는 프랑스 내에 있는 무려 30여 곳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을 돌게 될 예정이랍니다.<sup>1</sup> 그리고 7월 26일에 열릴 개막식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이트에서 열린다는 사실! 그래서 알쓸U잡에서는 올림픽 성화가 방문하는, 우리에게 친숙하거나 혹은 새로운 프랑스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몇 군데를 미리 살펴보았어요.

#### 4월 16일 올림피아 고고 유적 (그리스)

모든 올림픽 성화는 고대 올림픽 경기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처음 불을 밝힌다는 사실에 그리스 서부 펠로폰네소스 지역의 올림피아 고고 유적(Archaeological Site of Olympia, 1989년 등재)에서 점화됐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가장 많은 조각들이 밀집해 있는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유적지에는 기원전 776년부터 열린 고대 올림픽 경기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이곳에서 불을 밝힌 성화는 지중해를 건너 5월 8일,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마르세유에 도착해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죠.

#### 5월 18일 프랑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

남프랑스의 아를(Arles)과 카르카손(Carcassonne) 등의 유서깊은 유적지를 거친 성화는 5월 18일에 우리에게

도 잘 알려진 프랑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Routes of Santiago de Compostela in France, 1998년 등재)에 들렀어요. 프랑스에서 출발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이어지는 네 갈래의 순례길은 중세시대 수없이 많은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네 개의 길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길 곳곳에는 중요한 역사적 기념물들이 흩어져 있고, 이들 역시 유산에 포함됐답니다. 다음날인 19일에 성화는 지난달 알쓸U잡에도 소개됐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초국경 세계자연유산인 피레네-몽페르뒤(Pyrénées - Mont Perdu)를 거쳐 보르도 지역으로 들어섰어요.

#### 5월 31일 몽생미셸과 만

와인의 고장, 보르도를 비롯한 프랑스 남서부 지역을 거쳐 북쪽으로 향한 성화는 에펠탑과 함께 ‘프랑스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낭만적인 장소인 몽생미셸 수도원에 도착해요. 프랑스 서부 및 북서부의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사이 해안 지대에 있는 몽생미셸과 만(Mont-Saint-Michel and its Bay, 1979년 등재)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심한 거대한 모래톱에 맞춰 기술적·예술적 성취를 이룬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딕 베네딕트 양식 건축물로 꼽히는 몽생미셸 수도원은 오래 전부터 ‘서구의 경이(Wonder of the West)’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이죠.

#### 6월 19일 오랑주 지방의 로마 극장과 개선문

북서부 대서양 연안까지 올라갔던 성화는 다시 남쪽으로 발길을 돌려 프랑스 남동부의 아름다운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지역으로 들어섰어요. 이 지역을 관통하는 론(Rhone)강 계곡 부근의 오랑주(Orange)에는 고대 로마의 거대한 건축물들인 오랑주 지방의 로마 극장과 개선문(Roman Theatre and its Surroundings and the “Triumphal Arch” of Orange, 1981년 등재)이 잘 보존돼 있어요. 길이 103미터에 달하는 극장은 고대 로마 극



1 하늘에서 본 올림피아 고고 유적  
2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의 Sainte Foy 교회  
3 몽생미셸의 일출

장 중 보존상태가 가장 뛰어난 편으로 꼽히고, 로마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인 기원후 10-25년에 건축된 개선문에는 ‘팍스 로마나’의 성립을 기념하는 내용이 돌을새김으로 장식돼 있어요.

#### 6월 30일 상파뉴 언덕, 샴페인 하우스와 저장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성화는 이번엔 프랑스 북동





1 Gromelle Grand Anglet/Wikipedia CC BY-SA 3.0



2 WFC, ©Association Paysages du Champagne/Michel Jolyot



3 ©UNESCO/Francesco Bandarini

1 오랑주의 로마시대 극장 전경  
2 샹파뉴 지역에 있는 Hautvillers and Ste Hélène 발효 저장소 풍경  
3 현대적 도시 계획의 예를 보여주는 르 아브르 시내 풍경

부의 샹파뉴로 향합니다. 바로 전 세계를 매혹시킨 샹파뉴 언덕, 샴페인 하우스와 저장고(Champagne Hillsides, Houses and Cellars, 2015년 등재)로 유명한 고장이죠. 프랑스의 정통 화이트 와인을 병 속에서 2차 발효시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샴페인)의 개발과 생산 과정은 농공산업(argo-industrial enterprise)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그 가치가 큼니다. 뿐만 아니라 시상대 위에서 샴페인을 펄! 하고 터뜨리는 것은 화해와 승리에 대한 프랑스식 스포츠의 상징

적인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올림픽 성화가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7월 5일 르 아브르, 오귀스트 페레가 재건한 도시**

노르망디 북부, 영불 해협을 바라보고 있는 항구 도시인 르 아브르(Le Havre)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극심한 폭격을 받아 도시 대부분이 폐허가 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난 후 1964년까지 이 도시는 차근차근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면서 도시의 옛 모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자 했는데요. 이 원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건축가 오귀스트 페레(Auguste Perret)예요. 그는 작업을 주도하면서 모듈 단위의 도시 구조, 콘크리트의 활용 등에 있어 현대적인 도시 계획의 방법론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이 도시는 르 아브르, 오귀스트 페레가 재건한 도시(Le Havre, the city rebuilt by Auguste Perret, 2005년 등재)로서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어요.

**7월 20일 퐁텐블로 궁전과 정원**

12세기부터 프랑스 왕실의 사냥터로 사용된 퐁텐블로 궁전과 정원(Palace and Park of Fontainebleau, 1981년 등재)은 파리 외곽 일드프랑스 주의 드넓은 숲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요. 퐁텐블로 궁전이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6세기에 이르러서인데요. 당시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 1세는 이곳을 ‘신 로마(New Rome)’로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 그 화려함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아요. 당시로선 가장 ‘힙’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양식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프랑스 예술 전통을 접목시켜 재탄생한 이 궁전의 건축 양식과 실내 장식은 이후 전 유럽의 미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7월 26일 파리의 센 강변**

드디어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7월 26일, 올림픽 성화는 파리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예술과 낭만의 현장, 파리의 센 강변(Paris, Banks of the Seine, 1991년 등재)에 도착하게 돼요. 센강 가운데 떠있는 시테섬의 그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과 생트샤펠 성당, 건너편의 루브르 박물관과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르드 광장, 그리고 퐁뇌프 다리에 이르기까지, 파리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꼭꼭 눌러담은 이곳에 마침내 성화가 도착하면서 파리 올림픽은 공식적인 시작을 알릴 예정이에요. 현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스타디움이 아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니! 그 새롭고도 흥겨운 분위기를 여러분께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 1 <https://www.unesco.org/en/articles/paris-2024-olympic-torch-relay-journey-through-unesco-world-heritage-sites>
- 2 <https://www.unesco.org/en/articles/global-sport-conference>
- 3 <https://kncu70.cafe24.com/%eb%8b%b9%ec%8b%a0%ec%97%90%ea%b2%8c-%ec%8a%a4%ed%8f%ac%ec%b8%a0%ec%9d%98-%ec%a7%84%ec%a0%95%ec%84%b1%ec%9d%b4%eb%9e%80/>



Jacky Delville/Wikipedia CC BY-SA 4.0



(파리)올림픽 홈페이지 ©Paris 2024

1 퐁텐블로 궁 정면  
2 센강 주변에서 열릴 파리 올림픽 개막식 상상도

**알쓸U잡 더보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스포츠의 미래를 고민해 볼 ‘유네스코 글로벌 스포츠 컨퍼런스’**

올림픽 개막을 앞둔 7월 23-24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유네스코 글로벌 스포츠 컨퍼런스(Global Sport Conference)도 열릴 예정입니다.<sup>2</sup> 세계 각국의 체육 관련 부처 및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할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게임을 바꾸자(Change the Game)’인데요.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스포츠 또한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변혁적인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스포츠가

가져다 주는 순기능에 주목하면서 이를 극대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는데요. 정당당당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스포츠를 위한 「스포츠 반도핑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 체결, 세계 대학 스포츠의 날(9월 22일) 제정 등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 중 일부예요. 이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스포츠의 가치를 위협하는 도핑 문제와 스포츠의 진정성에 대한 유네스코의 관점을 소개했던 『유네스코뉴스』도 한번 읽어보세요.<sup>3</sup>

### 달착륙선에 탑재되는 유네스코의 메모리 디스크



올해 말 달착륙을 시도하는 일본의 '하쿠토-R 미션2' 착륙선과 월면 탐사차 상상도

© ispace Inc.

## 인류 문화의 백업본, 달에 보내요

일본 머스크의 우주 로켓은 매일같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사(NASA)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의 끝, 혹은 우주 탄생의 순간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가깝게는 지구 궤도와 달에서부터 멀게는 화성과 목성, 토성의 위성까지 이르기까지 우주를 향해 다양한 탐사선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중엔 이웃나라 일본에서 올해 말 발사될 예정인 달착륙선 '하쿠토-R 미션2'도 있어요. 여기에는 달 표면을 돌아다닐 소형 탐사차가 실리는데요. 이 탐사체에 유네스코가 정밀기술기업 배럴핸드(Barrelhand)와 함께 만든 '메모리 디스크(Memory Disc)'가 실린다는 놀라운 사실! 평화의 염원을 담은 유네스코 헌장 첫 구절과 다양한 언어, 그리고 예술작품이 새겨진 이 디스크는 앞으로 영원히 달 표면에 남아 인류 문명의 기억을 간직하게 될 거예요.<sup>1</sup>

### 유네스코와 달의 첫 만남

'메모리 디스크'라는 이름답게, 유네스코가 달에 건네는 첫 인사라 할 수 있는 디스크에는 지구의 위치에 관한 정보와 함께 인류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새겨져 있어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장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문구, 바로 유네스코 패밀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유네스코 헌장의 첫 소절이에요.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and wo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이 문구는 아래에 작은 글씨로 무려 275개의 언어로도 적혀 있는데요. 인류 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담는 그릇인 언어의 다양성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유네스코의 신념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마침 올해는 유엔이 2022년부터 2032년까지로 설정한 '세계 토착어 10년(Indigenous Languages Decade)'의 세 번째 해이기도 해서 그 의미도 더욱 각별하죠.

뿐만 아니라 디스크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가 붙어 원문 및 그림과 함께 새겨져 있고, '모나리자' 같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에서부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소수 문화권 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회화 작품 100점도 그려져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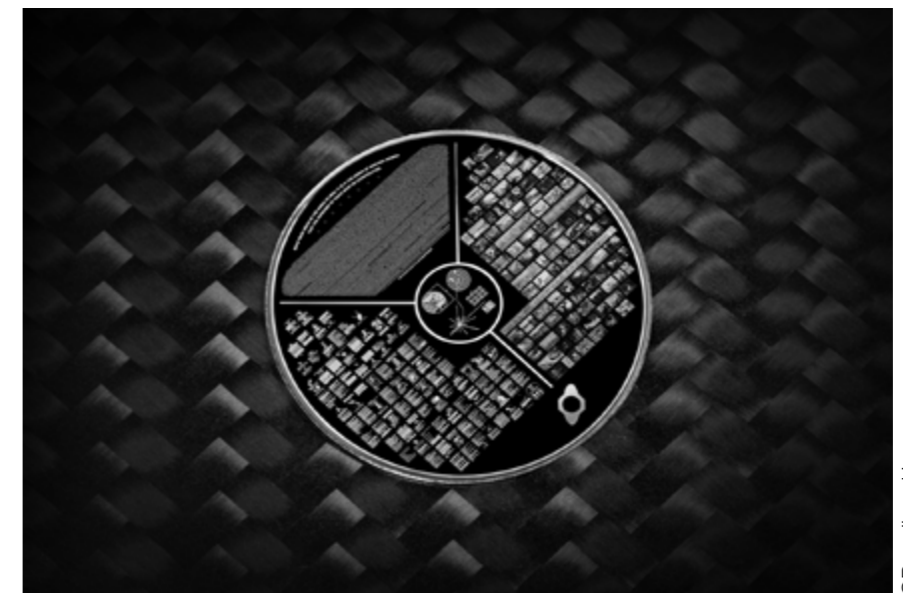
### '저장'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새겨넣은 이유

유네스코 헌장 첫 소절을 275개 언어로 '새겨' 놓았다는 표현에서 이미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이 모

든 내용은 디스크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디스크의 크기는 지름이 19mm. 동전 한 개 크기에 불과하죠. 모든 내용을 이 작은 크기의 디스크에 새겨넣기 위해 정밀기술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했고, 배럴핸드의 '나노피쉬(NanoFiche)'라는 신기술이 여기서 그 능력을 발휘했어요.

손톱만한 USB메모리에 어지간한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세상이 된 지가 언젠데, 방망이 깎는 노인도 아니고 왜 디스크에다 일일이 글자와 그림을 새기는 수고를 하느냐는 의문이 드는 독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배럴핸드의 설명에 따르면, 혹독한 우주 환경 속에서 수백만 년 이상 정보를 보존하는 데는 정보를 직접 새겨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요.<sup>2</sup> 인류의 조상이 수천 년 전 돌기둥에 상형문자를 새기던 그 원시적인 기술이 달에 착륙선을 보내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말을 섞는 21세기에다 유효하다는 사실은, 잊혀져가는 모든 문화도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유네스코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어요.

방사선 동위원소처럼 반감기가 있지도 않고,



©Barrelhand Inc.

유네스코와 배럴핸드가 함께 만들어 올해 말 달착륙선에 실리게 될 '메모리 디스크'

산소와 반응해 산화되지도 않는 니켈 디스크에 새겨진 이 정보들은 달에 건네는 유네스코의 첫 인사이자, 평화를 향한 70여 년 전의 초심을 절대 잃지 않겠다는 영원한 다짐이기도 해요. 한 땀 한 땀 새겨진 이 다짐은 대기가 없는 달 표면을 수시로 때리는 태양 방사선도, 급격한 온도나 자기장의 변화도 곳곳하게 견디면서 설령 지구에서 인류 문명이 사라지더라도 끝까지 남아 누군가에게 우리의 기억을 전할 거예요.



Shutterstock.com

'누비아 유적 - 아부 심벨에서 필레까지'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유적지 중 필레(Philae) 사원의 돌기둥에 새겨져 있는 상형문자와 그림.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우리에게 전해진 고대 이집트인의 인사처럼, 메모리 디스크도 평화와 다양성을 사랑하는 우리 인류의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 1 <https://www.unesco.org/en/articles/unescos-lunar-mission-preserving-humanitys-languages-and-cultures-moon>
- 2 <https://www.barrelhand.com/post/barrelhand-and-unesco-unveil-memory-disc>

알쓸U잡 더보기 | '덕질'이라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만만치 않죠

### 30여 개 언어로 『어린왕자』 들어보기

어떤 특정한 분야에 폭 빠진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오타쿠(御宅)'가 변형된 유행어인 '덕후', 그리고 이런 덕후들이 열심히 하는 행위를 말하는 '덕질'. 이 유행어를 차용해 표현한다면 유네스코는 지난 70여 년간 평화와 관용, 그리고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교육·과학·문화 영역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덕질'을 해 온 조직인데요. 어쩌면 평화에 대한 그 염원과 애정을 또렷하게 새긴 디스크를 달에 보내 영구히 보존한다는 것이야말로 그런 덕질의 결정판, 즉 '성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유네스코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활력과 열정을 자랑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또한 평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덕질에는 그 누구 못지않은데요. 이번에 달에 가는 메모리 디스크에 실린 『어린왕자』를 보면서 몇 년 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선보였던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바로 전 세계 30

여 개 언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함께 만든, '세계 여러 언어로 만나는 어린왕자' 오디오 클립이에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9년 '세계 도착어의 해'와 2월 21일 '세계 모어의 날'을 맞아 다양한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모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오디오 클립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에는 힌디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아르메니아어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언어로 원어민들이 낭독한 어린왕자의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언어의 보전과 다양한 언어의 소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번 들어 보세요!

세계 언어로 만나는 어린왕자 ▶



2024.07.25

### 유네스코 친선대사의 세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6월 26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유네스코 청년 친선대사 임명식에 참석한 세븐틴 멤버들과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가운데)

## 세븐틴, 유네스코 친선대사가 됐다고?

2022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고잉투게더 (#GoingTogether)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세븐틴이 지난 6월 26일에는 유네스코 최초의 청년 친선대사 (Goodwill Ambassador for Youth)로 임명되었는데요. 이제 명실상부한 '유네스코의 얼굴'로서 청년들의 꿈을 전 세계에서 더 크게 외치게 되었어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친선대사 임명식에서 세븐틴은 멤버 조슈아의 감동적인 수락 연설과 함께 100만 달러 기부를 약속하며 글로벌 청년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세븐틴은 청년들의 꿈과 연대를 강조하며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사명감을 쌓아온 만큼, 청년들의 꿈을 늘 응원하겠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세븐

틴과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와 창의성이 전 세계에 퍼지기를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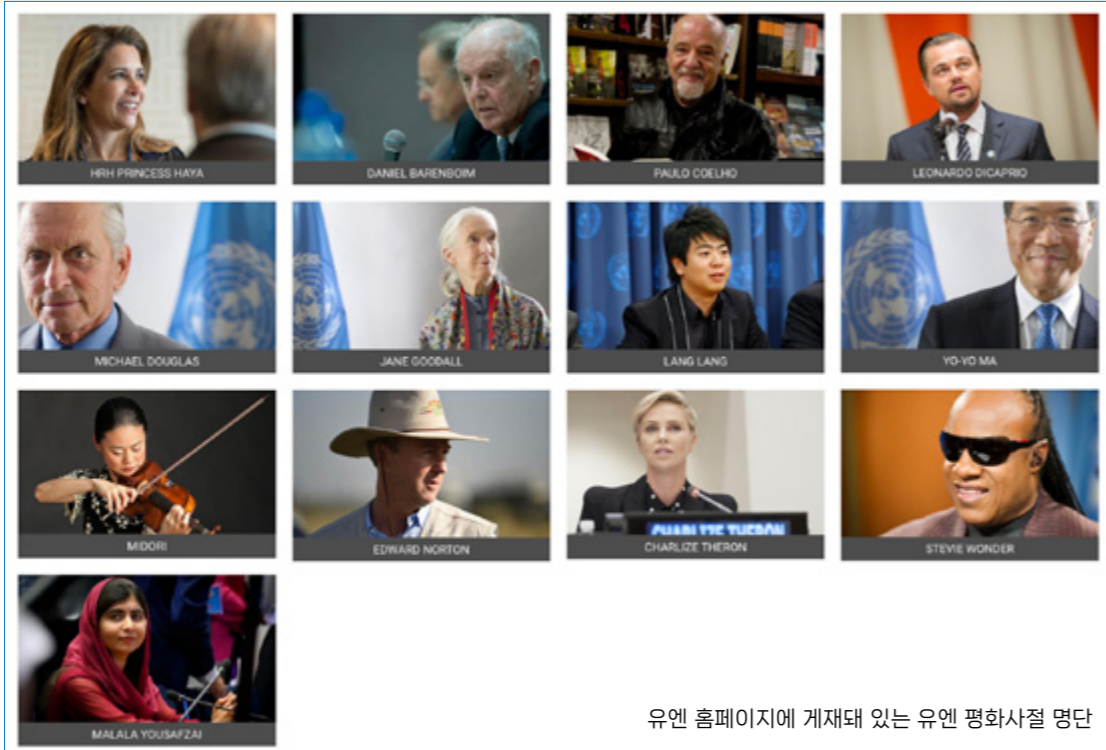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세븐틴, 앞으로 유네스코 청년 친선대사로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 국제기구의 얼굴이자 목소리가 될 친선대사들

이번에 세븐틴은 케이팝 아티스트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친선대사가 되었어요. 한국 음악인으로서 조수미 소프라노가 2003년에 유네스코 평화에

세븐틴 유네스코 청년 친선대사 임명식 현장 ▶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유엔 평화사절 명단

술인(Artist for Peace)으로 임명된 적이 있어요. 70년이 넘는 유네스코의 역사에서 현직 친선대사의 수가 50여 명이니, 이 자리는 그저 유명하거나 인기가 있으면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유엔의 다그 함마르셴드(Dag Hammarskjöld) 도서관에 따르면, 유엔 각 기구의 친선대사와 유엔 본부의 평화사절(Messenger of Peace)은 “예술, 문학, 과학,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또는 기타 공적 부문에서 업선된 인사들로, 유엔의 활동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을 돕기로 약속한 사람”을 뜻해요.<sup>1</sup> 더 짧게 말하자면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전 인류를 위해 쓰기로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의 한마디가 가진 파급력을 감안할 때 그 선정 과정은 간단치가 않고, 최종 임명 역시 유엔 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유엔 본부는 평화사절을 직접 임명하고, 유네스코를 비롯한 유엔 산하 기구들은 저마다 활동 영역과 잘 맞는 친선대사를 임명한 뒤 유엔 사무총장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요.

유엔 기구 전체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평화사

절로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작가 파울로 코엘료, 제인 구달 박사와 요요마, 스티비 윈더 등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방대한 사업 영역을 가진 유네스코 친선대사의 면면은 이보다 더욱 다양하고 그들의 활동 무대도 다채로워요.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기구인 만큼 세계 각지의 토착민과 소수민족 출신 친선대사도 적지 않죠. 이번 세븐틴의 임명에도 그간 미래의 주역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충분한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답을 도출해 나가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세븐틴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청년들의 꿈과 아이디어를 응원하는 동시에, 때로는 다른 친선대사 동료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평화를 향한 유네스코다운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이 멋진 청년들의 행보를 여러분도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

1 <https://ask.un.org/faq/14597>

알쓸U잡 더보기

세븐틴의 동료(?)가 될 유네스코 친선대사들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로서 유네스코는 친선대사를 임명하면서 각 대사로 특별히 집중하는 분야를 지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임명된 세븐틴이 '청년' 친선대사로 꼭 집어 지명된 것처럼요. 유네스코 친선대사들에게 붙은 ▲아동 및 여권 보호 ▲문화다양성 ▲생물다양성 ▲스포츠 ▲차별과 인종주의 반대 ▲교육 및 사회적 포용 등의 영역들을 보면 유네스코가 얼마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활동하고 있는지도 새삼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50여 명의 친선대사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특히 친숙한 몇몇 얼굴들과 그들의 주요 활동영역을 여러분께 소개해요.

평화와 화해 유네스코 특사 | 포레스트 휘태커 Forest Whitaker

연기력과 영향력을 겸비한 톱배우이자,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사회 운동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 연예인으로 꼽히는 포레스트 휘태커는 2011년에 유네스코 평화와 화해 친선대사로 임명됐는데요. 대사 임명 이후 그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던 남수단의 분쟁 지역으로 뛰어들어 소년병 징집을 막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그에게 유네스코는 2014년 '특사'라는 직함을 추가로 부여하면서 더욱 공고한 파트너십을 다졌어요.



사진 CC BY-SA 3.0 Gage Skidmore / Wikipedia

문화 간 대화 친선대사 | 허비 행콕 Herbie Hancock

재즈의 역사에서 결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뮤지션, 허비 행콕은 2011년에 유네스코 문화 간 대화 친선대사로 임명됐어요. 같은 해에 유네스코는 매년 4월 30일을 '세계 재즈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그 역사적 뿌리에서부터 공연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성과 자유, 포용, 그리고 소통의 가치를 듬뿍 담고 있는 재즈라는 음악을 통해 국적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에게 허비 행콕은 정말 든든한 짝이 되어 주고 있어요.



사진 CC BY-2.0 Raph\_PH / Wikipedia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인 안전 친선대사 |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hristiane Amanpour

1990년대를 대표하는 분쟁 지역 취재 기자 중 하나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는 비록 CNN이라는 미국의 글로벌 언론사에서 일하면서도 핍박받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하는 강단을 보여준 기자예요. 자신을 '무슬림 옹호자'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언론의 일은 기계적인 종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 당차게 받아췌던 그를 유네스코가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죠. 그는 2015년에 유네스코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인 안전 친선대사로 임명됐고, CNN의 대담 프로그램 '아만푸어'를 진행하면서 여전히 존경받는 언론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사진 CC BY-SA 2.0 Peabody Awards / Wikipedia

### 토착민 친선대사 | 알리차 아파리시오 Yalitza Aparicio

알리차 아파리시오는 2019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로마』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멕시코 배우예요. 그는 사실 배우이기 이전에 취학전 교육과 영유아 교육에 학위를 가진 선생님이기도 한데요. 연기를 전혀 배우지 않은 채로 출연한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배우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네스코는 2019년에 그를 토착민 친선대사로 임명하면서 토착민들의 문화유산과 지식을 보전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애써주기를 요청했어요.

사진 CC BY-SA 4.0 Milton Martinez / Wikipedia



2024.08.22

### 유산의 올바른 보존 방법이란?



1896년 에드워드 커티스가 찍은  
아메리칸 인디언 족장의 딸 앤젤린 공주

위키미디어, Public Domain

## 유산 보호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

여기, 사진 속 인물은 1896년 미 서부에 살던 아메리칸 원주민 '시애틀(Seattle)'족 족장의 딸 '앤젤린 공주(Princess Angeline)'입니다. 얼굴 가득한 주름,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깊고 검은 눈, 회한이 서려있는 듯 비뚤어지게 다문 입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속절없이 빼앗겨야만 했던 북미 원주민들의 가슴 아픈 역사와 사라져 가는 기억의 한 조각이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민속학자인 에드워드 커티스(Edward S. Curtis)의 작품으로, 그는 1901년부터 1930년까지 30여 년간 미 서부 80여 개 부족을 방문해 원주민들의 신화와 민속, 사회구조, 종교, 노래, 언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 펴낸 『The North American Indians』는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의 소중한 기록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커티스는 원주민

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릇된 이미지를 만들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일조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그는 원주민들의 순수함, 혹은 때묻지 않은 원시성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진 속에서 탁상시계 같은 현대적 문물을 지워 버리기도 했고, 민속 춤을 추는 장면 등을 찍기 위해 모델료를 주고 원주민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커티스의 양면적인 모습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줍니다. 오늘날 보호받고 있는 수많은 유산들은 지배자와 침략자의 시선 혹은 의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원주민들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며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 파판(Chris Pappan)과 클리 베넬리(Klee Benally)와 같은 아메리카 원주민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 오래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이미지를 해체하고, 오늘날의 현실 속 원주민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그것을 보호·관리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타당한 것일까요? 2024년 6월, 아일랜드 골웨이에서 열린 '제7차 비판적 유산연구협의회(Association of Critical Heritage Studies, ACHS) 국제컨퍼런스'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 결과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몇 가지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서, 유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한층 넓혀 보기를 바랍니다.

### 유네스코의 유산 보호 시스템, 이대로 괜찮을까?

회의에 참가한 다수의 학자들은 1972년 제정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유네스코가 과연 인류 유산의 수호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중의 눈에 유네스코는 세계의 유산 보호와 평화를 위해 일하

는 멋진 조직으로 비치고 있지만, 실상 유네스코 내에서 유산은 회원국 간 평화를 깨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권위주의적인 거버넌스 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역량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와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토머스 슈미트(Thomas Schmitt) 교수는 대체로 관리 상태가 양호한 유산만을 선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현재 유네스코의 유산 보호 시스템은 파괴나 훼손으로부터 취약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체제 자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슈미트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은 유산의 보호관리 책임을 유네스코 및 회원국에만 위임하는 대신, 사회 전체가 유산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참여와 협력의 기반을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체성과 가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산 보전 방법은 없을까?

뉴욕주립대학교의 세스 아수마(Seth Asumah) 교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삶을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아프리카 전통'을 예로 들면서



아메리카 원주민 천막 안에 '작은 깃털'과 그의 아들 '노란 콩팥'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찍은 커티스의 기록사진. 원본에서 보이는 둘 사이에 있는 탁상시계가 출판본에서는 지워져 있다



위키미디어, Public Domain



1800년대 후반 작가이자 음악가, 교사, 작곡가, 여성참정권 운동가로 활동한 아메리칸 원주민 지탈라-사(Zitkala-Sa)의 모습을 담은 2021년 2월 22일자 구글 두들(google doodles; 특별한 날을 맞아 장식한 구글 로고). 크리스 파판을 포함한 아메리카 원주민 예술가들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

우리가 유산을 기념하고 보호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아픔, 현재의 도전과 기쁨, 미래의 희망과 불안을 모두 아우르는 포용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수마 교수는 물질적으로 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유산과 관련된 모든 정체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차이를 결핍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회 정의와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고자 하는 오늘날의 문화 다양성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유산 연구는 단지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포용적인 유산 해석과 보존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 유산 연구는 오로지 연구자들만의 몫일까?

스털링대학교의 루언 리스(Luan Rees) 박사는 그동안 대부분의 유산 관리 접근 방식이 유산을 그저 건축

환경 안에 있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요소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리스 박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는 유산의 보호 및 보존의 초점이 관련 규제 틀 안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일에만 머무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유산의 연구와 관리에 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몇 년 동안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산 관련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도시 계획자와 유산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지역 연구에 있어 연구자 중심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연구가 기획·실행돼야 하며, 연구의 방향성 역시 연구 결과나 질보다는 해당 커뮤니티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1세기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은?

오르후스대학교의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교수

는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박물관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비 교수는 박물관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상징인 영국의 아이언브릿지 계곡으로부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이는 오늘날 기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의 역사가 식민주의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박물관은 이러한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부터 탈피해 새로운 방식으로 유산을 다룸으로써 유산 보호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더 넓은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산 보존이란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를 찾는 과정임을 새삼 되새기게 해 주는 지적이었습니다.

통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가게 될 때, 유산 보호는 비로소 건축물이나 유물의 보존을 넘어, 그것들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진성 연구단장

### 유산을 통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방법은?

이번 회의에서 탈식민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출생지나 관련된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유산의 보존과 재구성이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역사적 정의와 정치적 인식 변화를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북서부 응용과학예술대학의 로베르타 버샤트(Roberta Burchardt)는 식민지 시대 유산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지배자'적인 시선에서 설명되고 기술된 이야기를 넘어, 기존의 체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식민지의 역사적 부채를 인정하고 현대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직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민지 시기의 폭력과 불의를 인정하고 이를

#### 회의를 마치며

4일 간 학회에 참여하면서 접한 강렬한 질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역사와 유산'들을 둘러싼 여전히 식지 않은 뜨거운 논쟁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듯, 유산은 그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재이며,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입니다. 유산 보호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설계하는 일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단지 유네스코나 회원국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유산과 역사의 당사자이자 목격자이자 서술자인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2024.09.26

## 우리나라 열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이 된 창녕군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있는 교동 송현동 가야 고분군

창녕군

##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모든 것

7월 1일-5일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36차 인간과 생물권 사업 국제조정이사회(MAB-ICC)'에서 창녕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sup>1</sup> 이로써 우리나라의 열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이 탄생했는데요. 이 소식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했던 관계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신청부터 지정 과정까지 많은 활약을 한 도윤호 교수의 설명을 눈여겨 봐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은

이번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창녕은 우리나라의 열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이 됐어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높은 생물다양성 가치를 지닌 지역

을 핵심구역으로 하여 인근의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곳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8),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이상 2019), 완도(2021)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은 창녕군 전역(530.51km<sup>2</sup>)을 아우르고 있어요. 그중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우포늪습지보호지역과 화왕산 국립공원 일대는 핵심구역으로, 두 핵심구역을 연결하며 생태통로 기능을 수행하는 토평천, 계성천, 창녕천 유역은 완충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 외 지역은 협력구역으로 설정돼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역 생태계를 관리하도록 했어요.

**생물권보전지역, 창녕군엔 어떤 의미일까?**

창녕군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창녕군의 핵심 생태계인 우포늪과 화왕산의 밀접한 연결성이었어요. 우포늪의 수원인 토평천의 발원지가 화왕산이라는 사실이 두 생태계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데요. 습지 생태계와 산 생태계가 토평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토평천 주변으로 발달한 농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어요. 생태계와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와 인간이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녕군 전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에도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창녕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삶이 하나의 큰 생태계 안에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의미가 있어요.

**보전지역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삶이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창녕군은 우포늪을 중심으로 이미 20여 년간 지역민과 시민단체가 보전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온 곳이라서 자연생태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없지는 않았고, 한편으로는 그간 우포늪을 중심으로 보전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다



창녕 우포늪

김영민

**알쓸U잡 돋보기**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신청부터 지정까지, 도운호 교수가 팔 걷고 나선 이유**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창녕군의 부곡온천에 자주 갔었다고 하는 도운호 교수는 대학 학부생 시절에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철새 관찰 행사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창녕 우포늪을 방문했다고 해요. 이후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치며 연구 대상으로 우포늪과 창녕의 여러 장소를 다녔고, 그러면서 우포늪과 화왕산 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도 교수가 창녕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약 10여 년 전부터인데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환경 보전 수단으로서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았어요. 창녕 우포늪도 람사르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서식지로 인정

받으면서 20년 이상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전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죠. 도 교수는 이러한 보전활동이 창녕군 전역으로 확장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창녕군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우포늪뿐만 아니라 창녕군 전체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녕군은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많은 종들이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연환경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창녕군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생태계 보전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른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어요.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창녕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생물권보전지역은 단순한 보호구역 지정과 달리 지역민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활동이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지역 이장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관련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녕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성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화왕산과 우포늪, 두 핵심지역이 갖는 생태적 가치는?**

역세 군락으로 유명한 화왕산과 세계적인 습지 생태계인 우포늪, 이 두 핵심지역은 각각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먼저 화왕산은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는 산이에요. 봄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녹음과 시원한 계곡을 만날 수 있고, 가을에는 은빛 억새밭이 장관을 이루고, 겨울에는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지죠. 이곳에서 다양한 식물과 곤충들이 공존하며 복합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세계적인 생태자원인 우포늪은 다양한 수생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이고, 특히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찾아오는 중요한 기착지예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많은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이자 번식지 역할을 하면서 수질 정화와 홍수 조절 기능을 통해 지역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화왕산과 우포늪은 창녕군의 역사와 문화 유산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화왕산 정상에 둘러싸고 있는 화왕산성은 선사시대의 화산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유적으로 이 지역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고, 우포늪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또한 이들 지역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생태적 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데요. 새로운 생물종이나 생태적 상호작용, 고유의 환경적 혜택 등이 추



가로 발견될 수 있어요. 이러한 미발견된 가치들과 더불어, 이 지역 생태계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보호 활동은 생태계의 건강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자연의 혜택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 가치는 결국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이 지역 생태계 보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창녕군은 우리나라의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주 노령화된 지역이에요. 따라서 주민들의 보전활동 참여 방법에 대해 도시 지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달리 말해 도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만, 창녕군과 같은 지역에서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일상에 밀착된 활동이 필요한 거죠. 먼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나 일상적인 마을 관리 활동이 자연스럽게 생태계 보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그들의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전통적인 생태 지식을 활용한 자연 관리 등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일상적인 보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창녕군이 당면한 과제예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민의 인식을 높이고,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 방법을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해요.

도윤호 공주대학교 교수

1 [https://unesco.or.kr/240708\\_01/](https://unesco.or.kr/240708_01/)

### 알쓸U잡 더보기

####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

지역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고 보전하는 일은 단순히 정부나 특정 단체의 책임이 아니라, 창녕군민, 관련 기관,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일이에요.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창녕의 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어야 해요. 무엇보다 **자연보전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전통적인 농업 방식, 마을 관리, 일상적인

활동 모두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해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곳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타이틀 없이도 자연스럽게 보전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보전 프로그램이 소망하는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2024.10.24

유네스코 활동 재원,  
어떻게 와서 어디로 흘러갈까

Sunshine Seeds/Shutterstock.com

##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금의 흐름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 수 있다면서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바닷가에서 한손 가득 퍼올린 모래알처럼, 돈이란 제대로 쓰고 관리하지 않을 땐 평화를 지키기는커녕 나도 모르게 흩어져 사라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평화를 만드는 데는 돈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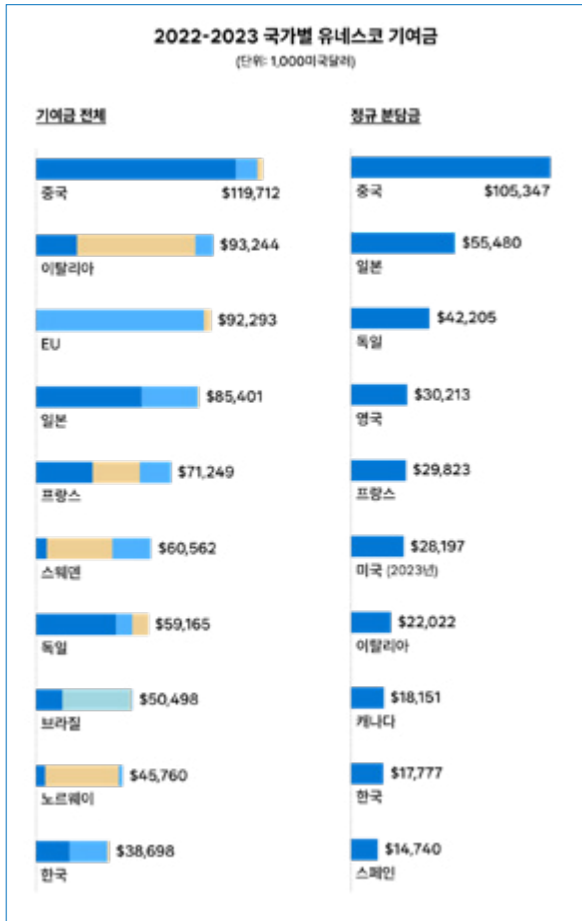
평화가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달린 일이라 할지라도, 저 말이 ‘절대 틀렸어!’라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별로 없을 거예요.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기 위해, 혹은 단지 굶주림

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힘은 갖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공짜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평화의 방벽을 만들고 전 지구가 마주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네스코는 어디서 그 자금을 끌어오는 걸까요? 또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번 뉴스레터는 유네스코의 예산과 지출 상황을 상세히 정리해 놓은 코어 데이터 포털(Core Data Portal)에서 지난 2년간의 유네스코 예산 흐름을 살짝 들여다 보았어요.<sup>1</sup>



표제: 유네스코 데이터 포털



표제: 유네스코 데이터 포털

(Voluntary Contribution)이예요.

- 때가 되면 딱딱딱 들어오는 분담금보다 자발적 기여금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건, 그만큼 유네스코의 예산 상황이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유네스코가 늘 허리를 졸라매고 조직과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예요. 더불어 유네스코는 기여금을 다양한 곳으로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어요.

### 그럼 누가 제일 '큰손'일까?

- 회원국별 정규 분담금이 각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유네스코 창설 이래 미국은 늘 압도적인 경제적 기여를 해 오고 있었어요. 미국이 내는 분담금이 전체 유네스코 예산의 약 22%에 달할 정도였죠. 하지만 미국은 2011년부터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 등에 반발하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았고, 급기야 유네스코를 탈퇴했다가 작년 말에 다시 유네스코로 돌아왔어요.
- 미국이 없는 사이 분담금 1위 자리는 중국이 차지했어요. 2022-2023년 기간에 중국은 정규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을 합쳐 약 1억 1971만 달러를 냈어요. 이제 미국이 다시 돌아온 만큼 다음 번 회기에 중국이 이 자리를 지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 지난 2년간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 EU(EU 차원에서 낸 자발적 기여금 총액), 일본, 프랑스가 뒤를 이었고, 한국은 약 3869만 달러로 열 번째 자리를 차지했어요. 자발적 기여금을 뺀 분담금 순위로만 보면 중국-일본-독일-영국 순이고, 한국은 전체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은 정규 분담금을 냈어요. 2022년까지는 8위였는데, 미국이 복귀하며 밀린 분담금 일부를 내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6위에 자리했기 때문이에요.

### 유네스코 활동 자원, 어떻게 확보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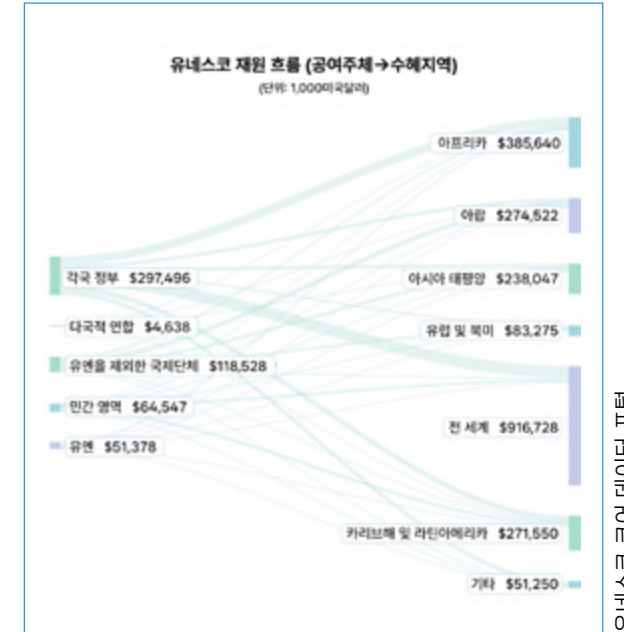
- 작년 말 기준으로, 유네스코가 2022-2023년 두 해 동안 확보한 자원은 총 12억 7500만 1천 달러예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 7365억 원 정도죠.
- 그중 각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분담금 (Assessed Contribution)은 약 5억 3464만 달러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해요. 나머지는 분담금 외에 회원국이 내놓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발적 기여금

###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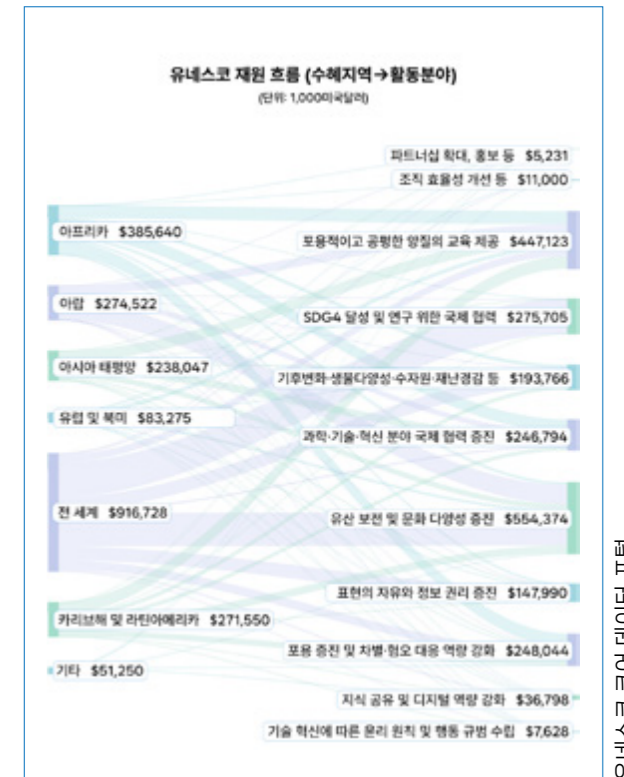
- 유네스코의 자원을 공여 주체별로 나눠보면 개별 회원국 정부, 다국적 연합, 유엔을 제외한 국제단체, 민간 영역, 그리고 유엔으로 나눌 수 있어요.
- 여기서 유입된 자금이 투입되는 대상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역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일 많고(약 9억 1672만 달러), 지역별로는 아프리카(3억 8564만 달러), 아랍(2억 7452만 달러), 카리브해-라틴아메리카(2억 7155만 달러), 아시아태평양(2억 3804만 달러), 유럽·북미(8327만 달러) 순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이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 유네스코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죠.

###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쓰이는 거야?

- 유네스코의 주요 사업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곳은 역시 교육 분야예요.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평생 제공하고(약 4억 4712만 달러),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달성 및 교육 연구를 위한 국제 협력(약 2억 6937만 달러)을 추진하는 데 많은 예산이 쓰였어요.
-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세계유산 사업을 비롯한 문화 분야 사업도 빼놓을 수 없죠.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문화 다양성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약 5억 5431만 달러가 들어갔어요.
- 그 뒤로 포용 증진과 차별·혐오발언·편견에 맞서기 위한 역량을 높이고(약 2억 4804만 달러), 과학 및 기술 혁신 분야의 국제 협력 증진(약 2억 4679만 달러), 기후 변화·생물다양성·수자원·재난경감 지식 확보(약 1억 9376만 달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표제: 유네스코 데이터 포털



표제: 유네스코 데이터 포털

### 더 밝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걷어가는 법

유네스코에 소중히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회원국들과 국제기구, 그리고 뜻이 있는 민간 기업 등의 단체들을 모두 합하면 그 수가 603개에 달해요. 유네스코는 이렇게 받은 자금을 전 세계 172개국에서 추진 중인 2,064개의 프로젝트에서 알차게 쓰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들은 ▲교육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의 다섯 개 주요 분야를 포함해 총 14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유네스코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여 주체들, 그리고 유네스코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을 받는 수혜국들,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두 해 동안의 재원에서 드러난 숫자는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숫자는 정말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 분야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평화를 만들고 미래 문제에 대처하는 일을 하는 데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순 없어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힘차게 달려 나가고 싶은 마음을 꼭 누

른 채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다만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유네스코의 비전을 국내에서 구현하고, 동시에 우리의 비전을 유네스코 무대에서 펼쳐 나가고자 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회원국 위원회 중에서 규모도 크고 손꼽히는 활력을 보여주는 위원회이지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약속한 '사람과 자원, 지혜를 모아 지적·도덕적 연대를 다지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을 빛내고 인류에 공헌하는 일을 모두 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정기적이든 일시적이든 후원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sup>2</sup> 마침 11월 10일까지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투게더 걷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어요!<sup>3</sup> 내 건강을 챙기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잠깐 고민해 보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걷기도 좋고 사색하기도 정말 좋은 이 가을날의 캠페인을 놓치지 마세요!

1 <https://core.unesco.org/en/home>  
 2 [https://unesco.or.kr/spon\\_home/](https://unesco.or.kr/spon_home/)  
 3 <https://unesco.or.kr/walktogether/>



2024.11.28

유네스코 Green Citizens,  
캐스린 켈로그의 '제로 웨이스트' 팁

유네스코 Green Citizens로 활동 중인 캐스린 켈로그

goingzerowaste.com

## 나도 '제로 웨이스트' 할 수 있을까?

캐스린 켈로그(Kathryn Kellogg)는 뮤지컬 학교에서 연기를 배워 전업 배우가 됐지만, 꿈꾸는 바대로 연기만으로는 자신의 생계를 해결할 순 없었어요. 주머니에 있는 마지막 한 푼까지 아껴써야 했고, 학생 시절부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질환을 갖고 있던 그는 생활비 절감과 체질 개선을 위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흥미롭게도 그렇게 시작된 제로 웨이스트의 삶은 그녀의 건강과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삶의 궤적까지 바꾸어 놓았어요.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을 공유하고 책도 쓰게 되면서 캐스린은 이제 세계적인 제로 웨이스트 인플루언서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sup>1</sup>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제로플라스틱 대변인, 원 모먼트(One Moment) 사의 CSO(지속가능성 책임자) 등 직함도 다양한 그는 지난 10월에 유네스코 그린 시티

즌즈(Green Citizens) 이니셔티브에도 합류해 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방안들을 함께 살펴보고 실천해 나가기로 했어요.<sup>2</sup> 캐스린이 운영하고 있는 [goingzerowaste.com](http://goingzerowaste.com)에는 제로 웨이스트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수많은 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속가능성은 '남의 일'이나 다름 없었던 그가 어떤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매우 쏠쏠해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의 삶에 관심이 조금 생기게 된 분들을 위해, 그 마음가짐과 행동을 계속 이어가게 해 줄 5가지 팁을 그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뽑아 봤어요.

### 제로 웨이스트? 너무 거창한 목표라고 두려워 말기

제로 웨이스트란 이름 그대로 내가 일상을 영위하면

서 아무런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음식물을 꼭 필요한 만큼만 사고 만들어 남기지 않도록 하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쓰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 등이 제로 웨이스트를 달성하는 주요 방법들이죠. 하지만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쓰레기를 단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요. 제로 웨이스트란 명칭을 다른 걸로 바꾸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요.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캐스린도 그런 목소리를 잘 알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적절하면서 귀에 쪽 들어오는 말을 아직 찾진 못했다고도 해요. 게다가 단지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쓸모 없는 목표일까요? 캐스린은 자신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sup>3</sup> 비록 자신이 블로그에 올린 방안들도 완벽함과과는 거리가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갖든 매우 현실적인 방안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있어요. 결국, 우린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지구상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이니까요.

### 나만의 '왜?'를 찾아보기

여러분은 어쩌다 지속가능한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캐스린은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체질 개선을 위해 아껴쓰고, 나눠쓰고, 또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플라스틱 제품과 결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 내린 결심 속에 '지구'는 없었지만 그 결과 지금은 누구보다 지구를 위한 삶을 실천하게 된 거죠. 이처럼 지금까지 익숙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동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이걸 하려는 거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 대답이 생태계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

### 알쓸U잡 더보기

#### UNESCO Green Citizens란?



Help our planet in 2022!



유네스코 그린 시티즌스란 기후변화에 맞서 행동하길 원하는 청년들을 유네스코의 과학 지식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과 연결시키고자 전 지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동 과제예요.<sup>4</sup> 과학적으로 확인된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세계 시민들이 인식하고, 지역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 대응 행동을 확산시키는 것을 유네스코가 돕고자 하는 체계죠.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아이디어와 혁신과 모범 사례를 만들어 온 대상을 찾아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 지역 행동가들이 더 많이 주목받으면서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한 교육 아이디어와 행동들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 65개국에서 150개가 넘는 지역 단위의 그린 시티즌스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져 활동 중이에요. 이 프로젝트들을 한번 훑어보면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컨 기후위기가 나와 가족의 건강일 수도 있죠. 캐스린은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어딘가에 써 보기를 권해요. 이렇게 써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

의 결심은 더 단단해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면서요.

### 내 결심도 '지속가능'한지 살펴보기

누구에게나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결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신의 행동이 너무 많은 시간과 품을 들여야 하는 일이라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쉽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스린은 내 행동이 그 자체로도 지속가능한지를 늘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스스로를 "주방에서 한 시간 이상 서있을 수 없고, 빨래는 너무 너무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인간"이라 칭하는 캐스린은 그래서 자신의 취향과 성향, 게으름의 정도를 감안해 환경을 위한 내 행동이 과연 지속가능할지를 판별해 줄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쓴다고 해요.<sup>5</sup> 여러분도 이를 응용해서 자기 행동의 지속가능성을 판별하는 지수를 만들어 보세요.

1. **넉넉히 만들어 보관할 수 있는가?** 다듬은 채소, 수프, 빵, 각종 소스나 음식 등 얼릴 수 있는 것들은 한 번에 충분히 만들어 냉동실에 두어요. 이것들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간편조리 식품과 배달 음식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2.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을 넘지 않는가?** 캐스린이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방안들은 대부분 그 일을 하는 데 한 시간 미만이 소요되는 것들이라고 해요. 자신의 경우 그것이 무엇이든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일이라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래요.
3. **멀티태스킹 가능한가?** 2번 항목과 관련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을 하면 더 지속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리 하면서 설거지 하기, 양치질 하면서 식탁 정리하기 등등이 그 예죠.
4.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가?** 뭔가를 직접 만들거나

(DIY)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걸 또 반복해야 한다면 그 결정을 고민해 본다고 해요. 캐스린의 경우는 한 번 만들어서 6개월은 쓸 수 있어야 직접 만든다고 해요.

5. **날 너무 힘들게 하진 않는가?** 어떤 행동이든 그것을 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요리든 재활용이든 DIY든, 즐길 수 있는 것과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 주변 사람들이 함께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기

내가 우리와 지구를 위해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내 가족 혹은 파트너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누구든 속이 상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캐스린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동참을 이끌어낼 열쇠로 **시간, 인내심, 그리고 친절**을 꼽아요.<sup>6</sup>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대신, 자신이 꾸준히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캐스린의 남편도 처음에는 지속가능성에는 무관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캐스린이 묵묵히 일상에서 실천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저렇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구나(It just makes sense!)'하고 생각했고, 자신도 차츰 동참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상대방도 바뀌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존중해주세요! 이 행동은 결국 '나의 선택'이고, 다른 이들에게 나의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 내 목소리가 가진 힘 믿기

다른 이에게 나와 같은 행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지구를 아끼는 나의 생각이 내가 사는 곳, 나아가 내 나라와 세상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은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가 궁금할 땐? ESD 공식 프로젝트!

학창시절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배웠던 분? '저요'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모두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과도한 자원 사용 등 중요한 도전 과제에 적절히 대응할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돕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을 교육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육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식과 기술들을 지역적 맥락에서 탐구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 환경에서 ESD 실천 사

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어요. 매 2년마다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국내외의 모범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 현재까지 누적 175개 프로젝트가 인증받았고, 그중 82개 프로젝트가 공식프로젝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 담당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ESD 한마당'이 지난 11월 14일 유네스코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인증된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모범 프로젝트들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SD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세요.<sup>7</sup>

로 중요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행동에 나서는 일도 지금보다 더 쉬워질 테니까요. 우리 동네에 더 많은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한가요? 거리를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보기 싫나요? 분리수거가 좀 더 잘 되면 좋겠나요? 그렇다면 전화, 청원, 혹은 환경을 위한 행사나 거리 행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내 목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용감하게 나서 보세요!

- 1 <https://www.amazon.com/101-Ways-Go-Zero-Waste/dp/1682683311>
- 2 <https://www.unesco.org/en/articles/zero-waste-living-kathryn-kellogg?hub=701>
- 3 <https://www.goingzerowaste.com/blog/what-is-zero-waste-what-is-the-circular-economy/>
- 4 <https://www.unesco.org/en/green-citizens>
- 5 <https://www.goingzerowaste.com/blog/the-five-rules-of-personal-sustainability/>
- 6 <https://www.goingzerowaste.com/blog/going-zero-waste-when-your-partner-doesnt-want-to/>
- 7 <https://esd.unesco.or.kr/>

#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2024. 12. 26

한국 문학의 세계화,  
유네스코도 할 말 있어요!



www.nobelprize.org

## 문학이 온다, 번역이 온다, 평화가 온다

지난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에서 열린 노벨상 축하연 단상에 오른 한강 작가는 특유의 수줍은 듯 차분한, 맑고도 또 단단한 목소리로 짙막한 수상 소감을 영어로 말했습니다.

“...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묻고, 이 행성의 모든 생명과 인간이 각자의 관점에서 상상해 보기를 요청하며, 모두를 연결합니다. 따라서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일종의 체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 역시, 생명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대로 언어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 우리가 연결되는 길목에는, 서로 다른 언어의 바다 위에 다리를 놓아주는 번역(통역)이 있죠. 고유한 질문과 관점으로 가득찬 각각의 세상들을 타인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일. 그래서 유네스코는 번역을 서로 다른 세상을 이어주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sup>1</sup>

### ‘한국’이라는 세상을 세계에 알린 번역 사업

생소하고 알려지지 않은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마음 속에 평화의 방벽을 쌓고자 하는 유네스코는 일찍부터 번역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네스코는 설립되자마

자 1930대부터 국제 연맹이 수집하고 있던 전 세계 번역 데이터베이스 색인인 'Index Translationum'을 넘겨받아 운영했고,<sup>2</sup> 1960년대에는 소수의 주류 언어들의 위세에 눌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소수언어 민족의 문학작품 번역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본부의 이러한 사업 추진에 발맞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시 한국 문학을 세계에 소개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1965년 8월 유네스코 회관에서는 '한국문학번역협회(가칭)' 창립식이 열려 피천득, 주요섭, 백낙청 등 13명의 회원들이 한국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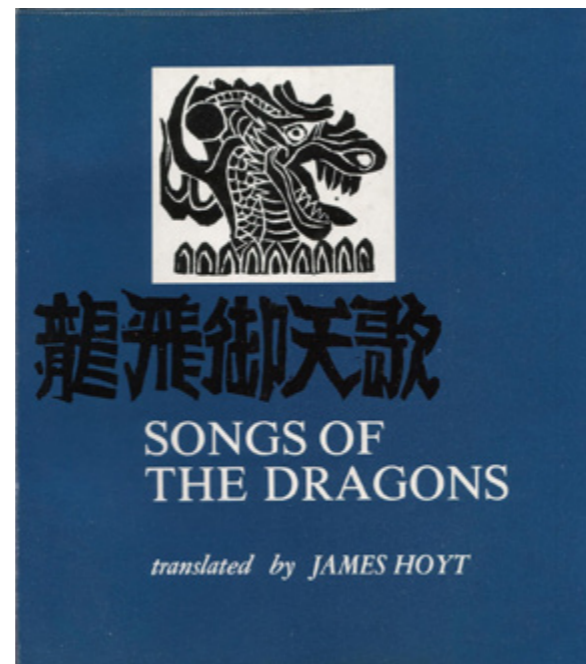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사이 일본은 탄탄한 번역 저변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세계에 알렸고, 1968년에는 가와바타 야스나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반면 한국의 상황은 1971년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노벨문학상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도 적당한 작품을 찾지 못해 추천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을 정도로 척박했습니다(조선일보 1971년 2월 16일자 7면). 해당 기사는 한국 문학 번역을 지원하는 기관 설립을 요청하는 문학계의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한국 문학과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려는 노력들이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언급했는데요. 당시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출판부는 『한국시(詩)선집』과 『한국사』를 번역해 내놓았고, 『한국시선집』 불어판과 『용비어천가』 번역도 진행하는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해외에 한국 문학의 역사와 현황을 알리는 데 힘써 왔습니다. 1961년 창간 이후 한국 문화를 영문으로 전 세계에 소개하면서 수십 편의 단편소설과 200여 편의 시를 번역해 온 영문 월간지 『코리아저널』의 활약도 빠질 수 없습니다.

부족한 번역 기반과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국 문학 번역 사업을 추진해 오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70년대에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활

용한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신탁기금이란 사용처를 미리 지정하고 유네스코에 기부하는 기금인데요. 한국 정부는 1974년 6월에 한국문학번역기금 2만 달러를 유네스코에 신탁했고, 여기에 유네스코 본부가 2만 달러를 추가해서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과 출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이후 10년에 걸쳐 영문 15종, 불문 5종 등 20여 권의 한국문학집이 해외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짝을 띄운 한국 문학 번역은 1992년 교보그룹의 문학 전문 재단인 대산문화재단이, 그리고 2005년 정부 주도로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되면서 전 세계 독자들의 머릿속에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기에 이릅니다.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면서 하려는 일은 (제비 한 마리가 아니라) 봄을 부르는 일이다.”

곽효환 전 한국문화번역원장은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다룬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sup>3</sup> 커



1970년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해외출판추진위원회를 통해 번역, 출간된 영문판 『용비어천가』

다란 문학상을 타는 것이 번역의 목표는 아니며, 한강 작가의 이번 수상 역시 “한국 문학이 거쳐야 할 관문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전 세계의 소수언어 문학을 번역해 보존하고, 한국 문학과 문화의 전달에 애쓴 것도 그저 하나의 문화 사업 이상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매개이며, 문학은 그 언어를 가장 세심하게 어루만져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한강 작가의 말대로 문학 역시 “생명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문학이라는 그릇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하나의 그릇에서 열 개, 백 개의 그릇으로 옮겨 담는 번역이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우리 마음 속에 평화의 씨앗을 옮겨 심는 일일 거예요.

2024년 12월의 겨울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 <https://courier.unesco.org/en/articles/translation-one-world-another>  
 2 <https://www.unesco.org/xtrans/bsform.aspx>  
 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54>

우리 문화를 번역하는 일,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1983년에 발간된 영문판 『한국전통음악자료집』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더 잘 알려야 할 필요성이 커지던 시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한국 문학 번역 사업은 단지 문학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및 유네스코 본부와 협력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일 외에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리의 역사와 언어, 사상에 관한 영문 학술서적도 출간했는데요. 그 결과물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을 사진과 함께 편집하여 출판한 『Traditional Performing Art of Korea』, 한국의 역사를 소개한 『The History of Korea』 등이 있고, 특히 한국 전통문화 연구의 전기를 마련한 『자료로 본 한

국문화사』의 영문판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은 지금까지도 한국학 연구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3년에는 유네스코 국제문화진흥기금(IFPC)의 재정 지원을 받아 영문판 한국전통음악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범패, 아악, 산조, 주악도, 진도씻김굿 등에 대한 수준 높은 학술 연구 결과물을 소개했는데요. 당시까지 이 시리즈는 1981년에 간행된 한국 음악 자료집인 『Source Readings in Korean Music』과 함께 한국 전통음악에 관한 가장 방대한 영문 학술 단행본으로 손꼽혔습니다.

# 유네스코 Talks

- 2024.02.22 인공지능에게 우리 아이 공부를 맡기기 전에
- 2024.03.28 AI 시대의 내 일자리, 두려워하거나 준비하거나
- 2024.04.25 한국의 대 국제기구 기여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 2024.05.23 디지털 시대에 종이책이 주는 경험이란
- 2024.06.27 늙어가는 한국,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워야 할까?
- 2024.07.25 알레allez 알레allez 알레allez, 교육의 마법을 느껴봐
- 2024.08.08 큰 퍼즐판에 '한 조각'이어도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 2024.09.26 모두에게 미래를 대비할 기회를 주는 것도 교육 기술의 책무
- 2024.10.24 해녀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소명이라
- 2024.11.28 '경기미래교육'이 꿈꾸는 교육의 미래란?
- 2024.12.26 지속가능발전, '사람'을 중심에 두는 환경정책설계로부터 시작됩니다

110

143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면?

유네스코가 만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스튜어트 J. 러셀 UC버클리대 컴퓨터과학 교수

## 인공지능에게 우리 아이 공부를 맡기기 전에

혹시 '챗GPT'와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나요? 깜짝 놀랄 만한 어휘와 지식을 자랑하는 이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절로 내 영어실력도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회화 공부법을 설명하는 글과 동영상들이 수없이 나오고, 학원 강사가 쓴 인공지능 활용 영어공부법을 설명하는 책도 보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 더 나은 교육, 혹은 더 수익성 높은 교육 사업을 이야기하는 교육 관련 기업들의 구상을 보면, 머지않아 우리 아이도 인공지능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될 것 같고 선생님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교육의 미래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지난 2021년 내놓은 '교육의 미래 보고서'('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신기술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고 포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술은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보다 더 숨

가쁘게 발전하고, 그러한 기술이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와중에 우리는 신기술이 정확히 어떤 혜택과 어떤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 자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이끌 교사의 역할에 대신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둘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이를 차분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발행한 『꾸리에』에서 유네스코는 인공지능 분야 권위자인 스튜어트 J. 러셀 Stuart J. Russell UC버클리대학교 컴퓨터과학 교수(사진)를 만나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신러닝과 강화학습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러셀 교수가 피터 노르빅 Peter Norvig과 함께 쓴 책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는 전 세계 135개국 1,500여 개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핵발전소를 대하는 심정으로' 신기술을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해당 인터뷰(영문)의 내용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1 <https://courier.unesco.org/en/articles/stuart-j-russell-teachers-work-may-change-we-will-always-need-them>



— 최근 몇 년 동안 교육 분야에서 신기술이 더욱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등장이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줄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원격교육이 확산했고, 이제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출현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집단적으로 받는 학습에 비해 개인 교사와의 수업이 2-3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지난 60년 동안 개발된 AI 기반 개인 학습 시스템은 학생과 대화를 나누거나 질문에 답하면서 학생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이 가르치는 개인 교습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콘텐츠를 제시만 할 뿐,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학습자는 인공지능과 꽤 일관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약점이 적지 않고 앞으로 해결돼야 할 일이 많지만, 저는 인공지능이 10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어린이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그렇게 된다면 교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역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교사는 여전히 꼭 필요합니다. 현재 (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인공지능이 특별한 '교육적 역할 (pedagogical role)'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역할이란 예컨대 단지 학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과정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게 이러한 '교사가 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대한 인상적인 사례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열리더라도 학습자가 세상의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학습자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기 위해, 학습자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은 무엇이며 타인과 협력하고 사회 안에서 역할을 하는 법을 알기 위해 성인 조력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한 교사가 8-10명의 학생과 함께 지내면서 일종의 '멘토'처럼 개별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교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 팬데믹을 거치며 전 세계의 디지털 격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이 이러한 격차에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새로운 기술이 초·중등 교육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한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 보급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모델은 교사와의 화상통화보다 훨씬 적은 인터넷 대역폭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오히려 병목현상이 각 문화와 언어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와 인공지능 교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일니까요. 정부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이를 촉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외 원조의 일부를 여기에 쓸 수도 있겠죠. 만약 기업 일부의 탐욕이나 정부 일각의 부패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비극일 겁니다.

— 그러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교육 부문 신기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공지능과 관련한 많은 규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고, 유네스코 역시 회원국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윤리적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는 특

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데이터가 교사나 감독자에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미성년 학습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논의할 수 있는 주제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챗GPT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수조 개의 매개변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고, 제 생각엔 알아내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방법을 모른다"는 개발사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오히려 규제가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핵발전소 운영자가 폭발을 막을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운영을 맡길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그런 시대가 열리더라도 학습자가 세상의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호르헤 셀라 마이크로소프트 필란트로피즈 아메리카 지역 디렉터

## AI 시대의 내 일자리, 두려워하거나 준비하거나

인공지능(AI)은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해몽직한 이러한 고민은 이제 정말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열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 및 윤리에 관한 유네스코 기업위원회(UNESCO's Business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hics)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그 해답 중 일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sup>1</sup> 생성형 AI 시대의 일을 주제로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웨비나의 패널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필란트로피즈 아메리카 지역 디렉터인 호르헤 셀라(Jorge Cella)가 있었는데요. 그의 발표와 질의응답 중에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 부분을 추려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sup>1</sup> [https://youtu.be/ycHUzNkNJE?si=TeSNsTVM9vdYQW\\_k](https://youtu.be/ycHUzNkNJE?si=TeSNsTVM9vdYQW_k)

—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일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가 일단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 직책이 직책이니만큼 '직업의 미래'에 관한 질문을 늘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해요. 이것은 마치 15세기 사람에게 21세기 직업의 미래를 묻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처리하는 일이 개인 단위에서, 그것도 거의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하게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전에는 대학교나 정부 기관, 기업의 연구소쯤 돼야 이 정도 성능의 컴퓨터를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클라우드로 이러한 컴퓨터에 접속해 비용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죠.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이에요. 이 기술 덕에 개인은 슈퍼컴퓨터가 미리 처리해 놓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해 필요한 프로젝트를 직

접 수행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 이러한 변화 앞에서 개인이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하는가'예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재료, 즉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그럴 법한 대답'을 내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는 무엇보다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갖고 질문을 던지고, 또한 그 답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일기예보를 예로 들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일기예보가 틀릴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답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령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 올 확률 90%'라고 했으면, 설령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일기예보는 비가 내리지 않을 10%의 확률을 맞춘 셈이기 때문이에요. 말장난 같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이고,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예요. 비 올 확률 90%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우산을 챙길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산을 챙기지 않기로 결정하고는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를 비난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도 이와 같아요.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엄청 많은 일을 하게 도와주는 일종의 부조종사예요.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속도로 가야 할지 조언해 줄 수 있지만, **결정은 바로 조종사인 여러분의 몫**이죠. 그 결정을 인공지능에게 미루어선 안 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비판적 사고가 중요해요.

– 인공지능의 역할이 어디까지나 '부조종사'라면, 인간의 일을 빼앗기보다는 인간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이란 뜻일까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예컨대 인공지능이 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개별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높여줄 거예요. 수업을 준비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예재를 만드는 일 등을 생성형 AI가 보조하면서 교사의 생산성을 약 45% 올려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생성형 AI가 스스로 코딩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 개발자의 역할이 사라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코딩에 관해 더 많이 아는 개발자일수록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초보 개발자라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20-30% 정도겠지만, 숙련된 개발자라면 그 폭이 50-60%에 이를 거예요.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우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도울 겁니다. 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준비를 해야 해요. 예컨대 생성형 AI 활용법 같은 것들은 이미 다양한 언어로 무료로 공개된 것이 적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등의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생산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우리 일자리를 파괴할지, 혹은 더 많이 만들어 낼지에 대한 제 대답은 언제나 '둘 다'입니다. 사실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해 온 것은 기계가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있어왔던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입니다. 유네스코를 비롯해 유네스코의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활동이 그래서 더 중요하죠. 오늘날의 일자리 문제는 기

회의 부족이 아닙니다. 사실 기회는 너무나 많고, 이 기회를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도 결코 중요치 않아요. 오히려 앞서 강조한 '비판적 사고'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인간 모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기술은 이러한 잠재력을 실질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창의력을 구체화하고 아이디어를 내다 팔 수 있도록 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는 모두가 함께 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렇게 될 때 기술은 인간을 돕고, 또한 모두 함께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우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도울 겁니다. 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준비를 해야 해요.”

홍승목 전 네팔대사

## 한국의 대 국제기구 기여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국제기구를 잘 아는 한국인 전문가의 따뜻한 조언, 혹은 냉철한 '팩폭'을 듣고 싶어하는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외교부 출신으로 유네스코 본부 정규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무총장을 보좌했던 홍승목 전 네팔대사는 바로 그런 한 마디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문가 중 한 사람입니다. 청년기자단이 홍 대사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홍승목 대사는** 1980년부터 외교부에서 직업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구 소련 정부와의 최초 협상을 비롯한 북방외교, 그리고 교토의정서 초안 제정 작업 등의 지구환경보호외교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습니다. 1998년부터 5년 동안 파리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정규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외협력총국 아시아 태평양과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유네스코와 회원국 간 협력을 도우면서 사무총장이 회원국 방문 시 주요 브리핑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로 복직한 후에는 주필리핀대사관 공사와 주네팔대사를 역임하였고, KOICA에서 이사를 지낸 뒤 2013년에 퇴임했습니다.

— 공무원 출신으로 국제기구 고위직에 진출한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대사님께서 다른 국제기구가 아닌 유네스코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유네스코는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외교부와 연관성이 높은 국제기구이면서, 그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점도 매력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교부에서 유네스코 업무를 담당하는 상사로부터 "유네스코 사무국에 공석이 생겼는데 지원해 보는 게 어떠냐"는 권고를 받았는데요.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하는' 외교관 업무에서 벗어나 '홍익인간'의 정신에서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도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 유네스코는 밖에서 생각하신 대로였는지, 혹시 유네스코의 한계를 느낀 사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시기인 90년대 후반은 새로운 천 년을 앞두고 유네스코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안팎에서

많았던 때였어요. 유네스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똑같이 '평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지만, 안보리가 '평화 유지(peacekeeping)'를 강조한다면 유네스코는 '평화 증진(peace promotion)'이 더 중요한 목적이예요. 저는 당시 새로 부임하신 마쓰우라 고이치로 사무총장님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유네스코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네스코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계유산은 각국의 영토 내에 '점(spot)'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지역과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수준에서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세계유산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 증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예를 들어, 점이 아니라 국경을 가로지르는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이웃국가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나아가 21세기의 평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사무총장께서 처음에는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 본뜻을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해요.

— 한국은 현재 유네스코 정규분담금 세계 9위, 자발적 기여금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유네스코 한에 한국인이 많이 진출해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의 수가 적은 것이 한국인의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오히려 저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면서 '국제기구를 한국인 직원으로 채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된 쪽이예요.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립됐는데, 그러한 '개발'의 경험과 기억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요. 그뿐인가요. 업무헌신도(work ethics) 면에서도 한국인들은 탁월하다고 봐요. 물론 이러한 강

점들이 있다고 해서 국제기구가 한국인을 알아서 먼저 채용하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제기구가 한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윈윈(win-win)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 한국인 채용을 늘리는 인센티브라니, 솔깃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 선진국 정부가 제공하는 신탁기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부분은 선진국의 '예산동결정책'에 따라 인건비 등의 경상비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기금 마련이 기구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결국 신탁기금을 다루면서 기금 마련 능력을 인정 받은 직원이 승진 등의 인사고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한국정부가 신탁기금 설치를 이러한 세세한 전략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의 적지 않은 기여에도 한국인 직원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한국정부가 국제기구에 신탁기금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과의 연계를 고려한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앞서 한국의 개발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기억이 국제기구에 도움이 될 거라 하셨는데, 국제무대에서 한국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러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해요. 이를 위해 정책을 연구할 기관과 정부 내 담당부서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시대적 소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인류 전체의 복

지를 위한 전략을 세우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한국인을 키워서 국제적 기여를 늘려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를 단지 '일자리'의 관점에서만 보자는 뜻은 아니에요. 인류 전체의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러한 기구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국제기구 안에서 한국인의 활약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 마지막으로, 장차 국제분야에서의 활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기구에 '입사'하는 것 자체만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좋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분야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업무를 맡아야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을 인정받기도 쉽거든요.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한 언어 능력을 꼭 갖춰야 합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책을 통해서 배우는 영어가 아니라 생활영어(colloquial English)를 많이 익혀서—제 경우에는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200-300페이지 분량의 사전이 큰 도움이 됐어요—외국인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김아진, 최어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기자단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러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해요.”

2024.05.23

더글러스 러시코프 작가

## 디지털 시대에 종이책이 주는 경험이란

더글러스 러시코프(Douglas Rushkoff)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급속도로 확장하던 1990년대 후반에 '바이럴 미디어', '디지털 네이티브' 등의 용어를 제시하고 개념화한 세계적 미디어 이론가입니다.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스크린에이저'(screenager; 틴에이저와 '스크린'의 합성어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매달린 젊은이'를 일컫는 용어라는 말을 언급한 지도 거의 30년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는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종이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꾸리에』가 러시코프 박사를 만나 디지털 시대와 독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 보았는데요. 2024년 4-6월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발췌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sup>1</sup>

<sup>1</sup> <https://courier.unesco.org/en/articles/douglas-rushkoff-reading-still-unique-experience-kids>



— 저서에서 '스크린에이저'를 언급한 것이 1996년이었는데요. 스크린은 그 이후의 새로운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스크린 세대입니다. 저 역시 일을 하느라 바쁜 부모님 대신 제3의 부모와도 같은 브라운관 TV 앞에서 세상의 '양분'을 섭취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언급한 스크린에이저는 태어날 때부터 대화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말해요. 화면을 보며 타이핑하고 무언가를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죠. 제 생각에 2000년대 중반이 이러한 스크린 세대가 정점에 도달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와이드스크린 TV가 가득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3-4살짜리 아이가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스вай프(쓸어넘기기 동작)'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였죠.

—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의 아이들은 스크린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학의 인기도 여전히 높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독서는 뇌 안에 새로운 영역을 생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독서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경험이고, 아이들은 심지어 책을 읽을 때 숨 쉬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해요. 언론학자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도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책과 같은 몰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책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따뜻한 매체'라면,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완결되지 않은 메시지를 제공하고 독자가 그 나머지를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차가운 매체'라 할 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은 여전히 책이라는 (고전적 형식의) 매체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책은 저자가 쓰고, 독자는 자신의 자율성을 저자에게 넘긴 채 저자가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형식이예요. 선형적인 내러티브 구조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점에서 책을 읽는 독자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연극 관객과 다르지 않아요. 스스로 선택을 하는 등장인물을 보면서 그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대리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각 매체들이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용되기만 하면 각기 다른 긍정적인 부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매체의 특징을 이해해야 해요. 책은 선형적인 스토리텔링에 강점이 있어요.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각자가 주체성을 개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소셜 미디어는 제한된 상황에서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데 매우 유용해요.

— 그렇다면 종이책을 읽는 것과 스크린으로 책을 읽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종이책은 3차원적인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에요. 서가를 직접 둘러보며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은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아 화면을 스크롤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독자는 종이책과 공간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에 따라 기억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한편으로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저는 이것이 스크린으로 책을 읽는 것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더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내가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는 등, 오디오북은 또 다른 차원의 몰입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온라인 경험 역시 이처럼 공간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메타버스가 그 좋은 예죠. 이제 우리는 가상 공간 속 무한의 터널로 들어가는 대신 우리 이웃, 우리가 익숙한 공간을 창조하고 있어요.

— 스크린에 몰입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무엇에든 부모는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아이가 하루 8시간을 소셜 미디어에 쓴다면 당연히 걱정을 해야죠. 또한 점점 우울하고 불안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도 지적해야 해요. 저는 우리 일상에 새로운 매체를 들이는 것에 대해 새 반려동물을 집에 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면서 어떤 것을 장려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주의해야 할 것은 스크린 자체가 아니예요. 대신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편향된 플랫폼으로부터 아이에게 제공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핵심입니다.

채재은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 늘어가는 한국,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워야 할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초저출산이 이어지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도 더욱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생애 첫 20년'에 집중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얼마나 유효할까요?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은 어떻게 정립돼야 할까요? 이미 1970년대부터 평생교육의 개념을 이야기해 왔고, 바람직한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 개혁'을 요청해 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채재은 가천대 교수를 초청해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브라운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들만 알고 있기 너무너무 아까워서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해 여러분께 전합니다.

채재은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화여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하고 교육부에서 약 십년간 근무했습니다. 2006년부터 교수,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정책 관련 전문가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 수형자 현황만 봐도 이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수형자 3명 중 1명이 50대 이상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수형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교정시스템에 고령 수형자를 돌볼 의료체계 및 낙상사고 방지 등을 포함한 안전시설 확충, 70대 혹은 80대가 될 수도 있는 출소 이후의 나이를 감안한 수형자 재교육 체계의 개편 등을 요구할 거예요. 교도소의 구조와 관련 인력 배치,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죠.** 교도소를 예로 들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오래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거의

바꾸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어요.

— 인구구조의 변화를 곧바로 ‘나의 일’로 체감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라도 인공지능(AI)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면서는 그 변화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사회, 특히 교육 변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AI가 향후 50년 내에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65%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취업자는 36만 명 증가했지만 60세 미만 취업자는 4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러한 ‘AI 기술 발달과 고령화’의 두 축이 19세기에 정립된 현재의 ‘공장형 학교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고민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듯 **모두가 똑같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가서 18-20세에 다 같이 졸업하는 오래된 시스템이 과연 지금도, 미래에도 유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해요.** 여전히 이 연령대에 교육 예산의 80%를 쓰고 있지만, 이미 세상은 60세 은퇴 뒤에도 80세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특히 현재 노년층 중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는 50-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대부분 여전히 너무나 건강하고, 능력 있고,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인 세대와 완전히 달라요. 이들을 오로지 복지, 즉 ‘노인 부양’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대신에 일과 교육과 복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생교육 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이며, 이를 활용해 세대별로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해요.

— 그렇다면 현재의 공교육 체계 또한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18-20세까지의 학령기를 지난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평생교육이 아니라 세대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지원할 것인지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다 보면, 자연히 현재의 학제에 대한 고민도 새로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12년(초등 6년, 중고등 6년)으로 구성된 지금의 학제는 적절한 것일까? 대학의 역할과 유용성은 여전할까? **‘교실’이라는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AI의 시대가 열리면서 각 교육 단계에서 학생 간 편차는 더욱 커질 거예요. AI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학습의 주도권이 교사에서 학생에게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차례대로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지금의 학제가 얼마나 유효한지,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 양성 방법은 이대로 좋은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새로운 교육 모델, 새로운 학제나 학교의 역할이 제시된다고 해도 교육의 공공적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동체로서의 교육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이전처럼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을 가르치는 영역에서 기존의 학교 모델은 점점 그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부분에서 교육이 가져야 할 역할이란 ‘같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닐까요? 타인과 대화하는 방법, 올바른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공지능이 가르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지식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일보다는 ‘개별 학생들의 고민’들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사가 더 늘어날 필요도 있을 거예요. 혼자 배우는 게 더이상 어려운 일

이 아닌 세상에서, 교육은 공동체 활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고민을 해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유네스코 논의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맞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도 한국 교육의 좌표 설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모두가 똑같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가서 18-20세에 다 같이 졸업하는 오래된 시스템이 과연 지금도, 미래에도 유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해요.”

살리프 트라오레 유네스코 교육 친선대사

## 알레allez 알레allez 알레allez, 교육의 마법을 느껴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이번 달 초까지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각각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코파아메리카'와 '유로' 대회가 열려 전 세계 축구팬들을 즐겁게 해 주었는데요. 특히 프랑스 축구팀을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유명한 응원곡이 있어요. 바로 'Magic in the Air'라는 곡이에요. '오 필승 코리아'가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에서 빠질 수 없는 노래이듯, 이 곡은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경기가 있을 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응원가인데요. 일단 한 번 들어볼까요?

몸이 절로 들썩여지는 노래에서 어딘가 이국적인 분위기가, 특히 아프리카 특유의 흥겨운 리듬이 느껴지나요? 그것은 이 곡이 바로 코트디부아르 출신 그룹 '매직 시스템(Magic System)'의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1997년에 결성된 매직 시스템의 원년 멤버이자 현 리더이기도 한 살리프 트라오레(Salif Traoré)는 아살포(A'salfo)라는 무대 이름으로 프랑스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매직 시스템을 이끌며 고국인 코트디부아르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간 그의 음악, 그리고 언제나 희망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의 노래는 유

네스코도 일찌감치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2년부터 그는 교육 친선대사로서 유네스코와 손을 잡고 전 세계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살리프 트라오레 대사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어요!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최하는 '유네스코 한-아프리카 교육협력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는데요.<sup>1</sup> 이번 포럼에서 자신의 대표곡 제목을 딴 'Education in the Air'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한 트라오레 대사를 유네스코 뉴스레터가 그냥 보낼 순 없었죠. 늘 희망과 사랑의 가치를 노래해 온 그의 삶에 어떤 배경이 있었을지, 친선대사로서 그가 교육에서 기대하는 '마법'이란 무엇일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 보았어요.

<sup>1</sup> [https://unesco.or.kr/240621\\_01/](https://unesco.or.kr/240621_01/)



매직 시스템의 'Magic in the Air'로 만든 월드컵 영상



– 대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대사님 개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Abidjan)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이렇게 유네스코 교육 친선대사로 활동하기까지, 교육이 대사님 인생에 미친 영향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에서는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학교에 다닌다는 건 특혜를 받는 것이라 생각할 정도였죠. 저는 이러한 환경에서 다행히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우리에게 학교란 가정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가정이었고,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형제애나 우정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배우는 장소였어요. 덕분에 저는 제 삶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교육에 대해 부족하게나마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제 노래의 주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통해 이렇게 유네스코와의 인연도 맺게 되었지요.

– 자연스레 대사님께 교육은 단지 글을 읽고 셈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음악인이니만큼 교육의 문화적 기능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도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예술, 문화, 창의산업 부문에서 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육과 문화가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교육이 문화를 필요로 하듯이, 문화 역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화 활동은 그동안 습득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무리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목표한 바를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오늘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교육 덕분이예요. 교육은 모든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던 음악적 재능만으로는 지금의 위치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받은 덕분에 지금처럼 예술가로 성공할 수 있었고, 제가 고국에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학교를 짓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교육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 교육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시 아프리카 교육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이번 '유네스코 한-아프리카 교육협력 포럼'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인데요. 대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의 대 아프리카 교육 개발협력의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전쟁을 경험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ODA 지원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현지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ODA 지원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ODA를 통한 예산과 물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



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매직 시스템의 대표곡 'Magic in the Air'를 개사한 노래 'Education in the Air'와 함께 #DanceForEducation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어떤 캠페인인가요?

#DanceForEducation은 '교육이 모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획한 캠페인이에요.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 동작을 따라해 보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DanceForEducation 해시태그를 붙여서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면 됩니다. 캠페인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 되었는데도 전 세계에서 약 800만 명이 참여했어요. 한국 인구의 1%, 미국 인구의 1%, 프랑스 인구의 1%, 스페인 인구의 1%가 추가로 참여한다면, 2024년 말까지 우리의 목표였던 2,0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어요. 2024년은 아프리카 연합이 교육의 해로 선언한 해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 아프리카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끝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프리카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한국인들, 아프리카를 아는 한국인들, 아프리카를 방문해 본 한국인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를 알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을 나누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에 처음 방문했지만, 어디에서든 환대를 받고 거리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아프리카가 바로 그들의 앞마당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분리하는 유일한 것은 지리적 위치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합니다. 아프리카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다른 한국인들과도 나누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언젠가 서울에서 매직 시스템과 함께 하는 대형 아프리카 콘서트를 열고, 아프리카 리듬에 맞춰 춤추는 한국인들을 보게 된다면 매우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 백영연 선임전문관  
번역 | 김혜나 전문관

“저는 교육과 문화가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교육이 문화를 필요로 하듯이, 문화 역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화 활동은 그동안 습득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2024.08.08

제23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수상자 김유선 교수

## 큰 퍼즐판에 ‘한 조각’이어도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활동하고, 혹은 병들거나 죽는 것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작은 세포들의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올해로 23번째를 맞은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학술진흥상을 수상한 김유선 아주대 교수는 바로 그런 세포의 삶, 특히 세포의 죽음(cell death, 세포사멸)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조절 기전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6월 14일에 열린 시상식에서 만난 그에게 이 작은 세포 속에 담긴 비밀, 그리고 여성과학자로서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유네스코회관에서 유네스코 뉴스레터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는 김유선 교수

- 2024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학술진흥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과 함께,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포의 죽음의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세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는 곧 우리 몸의 질환과 연결되는데요. 세포가 죽음을 회피하는 경우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암입니다. 암세포는 죽음을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잘 죽일 수 있을지를 찾아내려 합니다. 반면에 세포가 너무 쉽게, 많이 죽어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퇴행성 신경질환, 즉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병이에요. 여기서는 암세포와 반대로 세포가 죽지 않게 잘 보호하는 게 관건이고, 그러려면 세포가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야겠지요? 제 연구가 바로 그 부분에 관한 연구입니다. 암세포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 수 있기에 로레알에서 저에게 이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상 자체보다도 이번 수상 과정에서 이 상



의 가치를 알게 되어 더욱 기뻐했습니다. 저와 실험실의 제 후배들이 열심히 하는 일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로 인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후배와 동료들에게 이런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행복해요. 더불어 부모님께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해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시상식에 오셔서 제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부모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감사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시상식에서 “살아있는 세포의 일정에 우리(연구자)의 일상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도전과 성실함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요. 내 일상을 오롯이 연구에 맞춰야 한다는 점이 여전히 여성 과학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요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학계의 여성 비중을 늘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세포를 키우고 배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이 꾸준히 밥을 주고 아프지 살펴보고, 숨쉬게 해 주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실험이 세포의 일정에 맞춰 인큐베이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이어져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절대적인 '시간'을 연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해내기 어려울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실험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아프는데, 나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실험을 하는 시간에 대한 지원 시스템, 즉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여학생들의 경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 차별을 극복하는 데 핵심일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바뀌는 계기 또한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다른 여성 동료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았습니다.

과학은 감각이 필요한 일이며, 여성은 그러한 타고난 감각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유네스코가 말한 대로 '여성이 함께하는 과학'이 꼭 필요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완해 주고,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들여다봐 주면서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의 과학이 발전하는 데 더 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교수님의 발자취는 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여성 동료와 후배들에게 귀감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도 이러한 영감이나 도움을 주신 연구자 또는 멘토가 계셨나요?

미국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하는 동안 연구 동료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이와 성별, 국적에 상관 없이 서로에게 과학에 대한 영감을 주고받고 있어요.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시기에 늘 같이 밥을 챙겨 먹으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작은 문제를 같이 풀어나갔던 그 친구들이 과학을 대하는 태도와 과학을 대하는 생각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기도 했어요. 지금도 해외 학회를 하면 다 같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어요.

— 과학계에서 여성과학자로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도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차세대 여성과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격려의 메시지가 있다면요?

실제로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작은 일인데, 이거 해서 뭐해요?"라고요. 그런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아예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비록 우리는 직접 약을 개발하진 않지만 그 약이 작동하는 '기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작은 조각이 맞지만, 큰 퍼즐판에 '한 조각'이어도 그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100개 퍼즐 조각 중 1개만 없어도 퍼즐은 완성되지 않으니깐요. 그러니 수많은 논문 중에서도 이것 하나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학 쪽은 처음에는 여학생들이 많다가도 위로 올라갈 수록 점점 그 숫자가 적어집니다. 숫자가 적기에 활동의 폭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끼리라도 과학 연구에서의 네트워킹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활동적으로 다양한 자리에 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  
최연수 전문관, 이윤하 전문관

인터뷰를 마치며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큰 퍼즐판에 '한 조각'이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말, 100개 조각 중 1개가 없으면 퍼즐은 완성될 수 없다는 말이 특히 와 닿았어요. 아주 작게만 보이는 지금의 나의 노력도, 연구도, 글도, 커다란 퍼즐판을 맞추기 위해선 꼭 필요한 거겠죠. 마치 작은 세포들이 모여 몸을 이루는 것처럼요. 작은 하루, 작은 일상, 작은 목소리가 모이고 모이면, 커다란 무언가를 분명 만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작은 세포 같을지라도 없어서는 안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과학은 감각이 필요한 일이며, 여성은 그러한 타고난 감각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유네스코가 말한 대로 '여성이 함께하는 과학'이 꼭 필요합니다.”

에듀테크기업 에누마(Enuma)  
이수인 대표

## 모두에게 미래를 대비할 기회를 주는 것도 교육 기술의 책무



통신 인프라와 개인 스마트 단말기,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방식의 교육 도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에듀테크(Edu-tech) 기업들이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수학, 영어, 문해 기초교육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에누마(Enuma)도 그중 하나인데요.<sup>1</sup> 에누마의 '킷킷스쿨(Kit Kit School)'은 유네스코와 일론 머스크, XPRIIZE 재단이 함께 개최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우승하며 큰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sup>2</sup> 게임을 기반으로 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스스로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킷킷스쿨을 보면, 이 에누마라는 스타트업 을 이끄는 리더의 면면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유명 게임회사의 기획자였다가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뒤 자녀의 학습을 위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에누마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의 주인공, 이수인 대표를 만나보았어요.



에누마의 킷킷스쿨

– 대표님, 안녕하세요. 에누마는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영유아 대상 수학 학습 프로그램인 토도수학(ToDo Math)을 내놓았고, 이어서 ‘킷킷스쿨’로 전 세계 문해력 증진 학습도구 경연에서 우승하기까지 했어요. 그 비결을 ‘소프트웨어 업계 경력을 가진 대표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분석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습이 어려운 아이’ 를 대상으로 한 제품을 만들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IT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이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이해하기

는 쉽지 않은데, 이런 아이들에게 유효한 제품을 만들 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더 많이 배우고 높은 수준 으로 공감하려 계속 노력해야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 아이가 장애가 있어 학습이 어려울 거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게임개발자 출신이라는 경험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게임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학습이 더 효율 적일 수 있도록 돕고, 공부하는 시간이 덜 괴롭고 의미 있기를 바랐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몰입하게 하는 게임의 힘을 믿고 있었고,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현지에 잘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들과의 효과적인 협력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원칙이었어요. 우리 경험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고, 다른 세계의 문화를 존중하고, 파트너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활동을 펼치려다 실패한 에듀테크 기술의 사례가 많아요. 이들의 사례나 파트너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기술을 밀어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희는 교육과 개발협력 배경을 가지고 회사에 합류한 동료들이 다른 문화의 아이들과 환경에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고, 파트너들로부터 최대한의 도움을 끌어내도록 노력했어요.

–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교육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듀테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해야한다고 믿으시나요?

에듀테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SDG 4(지속가능발전 목표 4번)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학습콘텐츠를 지원하고 교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어려운 아이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학교 모델의 한계를 해결할 수도 있죠. 디지털 미디어의 높은 접근성은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서 이후의 직업을 준비시키는 것도 에듀테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AI와 디지털 기술은 선진국의 학교에서 먼저 보급될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교육 격차와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텐데요. 이런 부작용을 낮추고 모든 학생들에게 미래 기술을 접할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에듀테크 기업이 가져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기술은 교육을 앞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80%의 사람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표님의 발언<sup>3</sup>은 유네스코의 2023년도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술: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 와도 밀접하게 닿아있는 것 같습니다.<sup>4</sup> 아동의 개인정보 문제, 교육계의 특정 기업에 대한 기술 의존 문제, 라이선스 문제 등 ‘디지털 격차’ 혹은 ‘디지털 불평등’과 관련한 우려가 특히 교육계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보다는 어린 나이에 제한없이 인터넷 콘텐츠에 노출된 학생에게 벌어질 수

있는 디지털의 부작용을 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중독적이며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담배나 술, 마약, 성적 접촉, 도박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많이 나와 있는 반면, 아이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자극'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화된 현재의 IT 기술이 인간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잘 디자인된 디지털 기술이 학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므로, 그것을 잘못 활용할 때의 폐해도 이익만큼이나 잘 따져봐야 해요. 규제 없이 디지털에 노출된 아이들이 장기적인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디지털 기술은 학습 측면에서 이미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사람 간의 단절을 심화시켜 '협력성'과 '사회성 함양'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것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까요?

저는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최근에 와서야 그동안 늘 들던 '역량 중심의 21세기 교육'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중요한 네 개의 역량, 즉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성 ▲협력 ▲상호작용은 디지털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프로젝트 기반 수업 등을 통해 교실의 많은 아이들이 함께 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미래의 교실에서는 교사의 주도 하에 학생들이 이런 역량의 훈련에 집중하고, 여기에 필요한 콘텐츠와 정보는 디지털을 통해 재빠르게 탐색해서 사용하고 표현하게 될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혼자서 학습해도 괜찮은 지식은 디지털

로 혼자서 공부하기도 할 겁니다.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이라 불리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 매우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교실 내에서의 단절과 소외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적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에 학교라는 장소는 디지털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역량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어야 해요. 이를 모두가 이해한다면, 교사의 역할이나 디지털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나 VR이 인간에게 좋은 경험을 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흘러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하더라도 인간이 생활하며 교류하는 주요 공간이 디지털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AI의 시대에는 인간이 자원 생산에 기여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몸을 움직이고, 더 깊은 사고를 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균형 잡힌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제 아이가 디지털 안에서 더 깊은 자극을 찾는 미래보다는,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더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를 바라는 쪽입니다.

— “이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널려있는 공부 콘텐츠가 아닌, 사회적 기술”이라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이 교육의 중심을 차지하는 세상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교육의 목적에 대한 많은 정의 중에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성인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콘텐츠를 읽고 보고 시험을 푸는 일은 교육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그렇게 배운 것이 앞으로는 그리 중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계속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호작용과 협력을 이끌고 학생들을 바람직하게 기여 하는 인간이 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전히 교사에게 있을 거예요. 미래의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미래의 역량을 함께 탐구하고 훈련해 나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이를 위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1 <https://enuma.com/ko/>
- 2 <https://www.xprize.org/prizes/global-learning/teams>
- 3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0/01/2022100100019.html](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0/01/2022100100019.html)
- 4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6147\\_kor](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6147_kor)

“규제 없이 디지털에 노출된 아이들이 장기적인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본부 인터뷰에 응한  
제주 해녀들

## 해녀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소명이라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잡은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2월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열렸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영작들이 영화제를 채웠는데, 그중에서 바다만큼이나 깊은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2012년 설립 이래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제작



사인 A24가 만든 다큐멘터리, '마지막 해녀들(The Last of the Sea Women)'의 포스터였어요.<sup>1</sup>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의 주인공인 해녀들의 삶과 도전을 조망하고 있어요. 해녀의 뒤를 잇는 사람들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의 해녀들이 바다 안팎에서 낼 수 있는 힘은 이제 예전 같지 않지만, 바다의 안녕과 해녀 문화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절대 굴복할 생각이 없는 '삼춘'(어르신을 부를 때 쓰는 제주말)들의 강인하고도 유쾌한 모습은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내는 청년들에게도 큰 힘을 주고 있어요.

부산국제영화제를 놓쳐버렸는데 그럼 이 다큐멘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걱정 마세요. 바다 환경과 문화를 지켜 나가는 이들의 멋진 모습이 궁금하다면, 마침 '파친코' 시즌 2가 상영되고 있는 애플 TV+에서 볼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해녀의 삶과 직업으로서의 해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면, 유네스코가 현직 해녀 두 분을 직접 인터뷰한 영상도 있어요.<sup>2</sup> 그 내용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편집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 해녀가 하는 물질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장영미 해녀, 이하 '장'** 해녀는 산소호흡기를 쓰지 않고 자기 숨으로 호흡해야 해요. 기계를 쓰는 것은 해녀가 아니에요. 본인의 숨으로, 자기 할 수 있는 것 만큼만 잠수한다는 게 해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늘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당부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말이에요. 해녀들만의 룰도 있는데요. 무조건 많이 잡아서는 안 되고, 자기 잡고 싶은 대로 다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몇월부터 몇 월까지는 소라만 잡고, 다른 시기엔 전복만 잡고. 그렇게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 안에도 일정 크기 이상의 해산물만 잡아야 해요.

– 물 속에서 엄청 오래 숨을 참으면서 깊게 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형미 해녀, 이하 '김'**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늘 받기는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물질은 오히려 마라톤과 가까운 것 같아요. 숨을 참으려고 하면 2분 가까이 참을 수는 있지만, 매번 이렇게 하면 하루 네 시간 동안 이어지는 긴 작업의 페이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에 35초 정도를 참으며 작업을 해요. 그 이상 하면 몸에도 무리가 가고 작업을 이어가기 힘들어요. 잠수 깊이도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낮은 수심은 3미터 정도 되고, 저 같은 경우 가장 깊게는 10미터까지 들어가 봤어요. 먼바다로 나가 소라를 잡을 때 깊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 해녀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김** 물질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제주도가 화산활동으로 생긴 섬이다 보니 표면이 뾰족뾰족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파도가 세게 쳐서 이런 바위에 부딪치면 옷이 찢어지고 살까지 베이는 경우가 있어요. 파도가 늘 위험하고 힘든 대상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는다면 엄마에게 물질을 배울 때였어요. 엄마가 정말 엄하게 훈련시키셨거든요. 잠수를 힘들어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 물 속에 들어간 제 머리를 밟고 계셨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 힘든 기억 때문인지 지금은 해녀로서의 자부심도 더 크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2016년에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궁금해요.

**장**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지역에서 여촌계장도 맡고 있는데 제가 계장을 맡은 이후만도 일곱 명이 들어왔어요. 물론 젊은이들이 처음엔 잘 할 줄 모르죠. 하지만 선배들이 가르쳐 주고, 때로는 자기가 잡은 것을 건네주기도 하면서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절대 욕심부리지 마라, 시간을 두고 차차 배우면 된다, 하고 말해 줘요.

– 젊은 해녀들이 유입되면서 생긴 변화도 있을까요?

**장** 지난 5-6년 사이에 해녀 문화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해녀 전통 노래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난타 같은 공연도 여촌계마다 하고 있고 더 하려고 해요. 이런 일들을 70-80대 고령자들이 먼저 벌이기는 힘든데, 젊은이들이 들어와 이끌어 주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요즘 애들은 물속에도 카메라를 들고가서는 "삼춘, 이거 한번 봐봐!" 하면서 우리에게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풍경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셔야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젊은이들에게서 배우는 게 많아요.

- 청년들에게 해녀라는 직업의 장점을 소개해 주신다면?

**김** 저의 경우 아이가 둘 있는 상태에서 이혼할 때까지는 회사원이었어요. 이혼을 한 이후 이후 원래 해녀 일을 해 오셨던 엄마에게 장난삼아 '나도 물질이나 할까?' 했던 게 그 시작이었어요. 해녀라는 직업이 물론 물 속에선 힘들지만,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땐 바다에 안 나가면 되니깐 오히려 아이를 키우기에 수월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해녀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요. 저는 학교 다닌 게 아니라 엄마에게 직접 물질을 배워 자리를 잡기까지 3년 정도 걸렸어요. 보통 3-5년 정도 배우면 해녀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해요.

**장** 우리 해녀들은 모두 함께 작업을 해요. 노련한 상군(상급기술자)들이 하루에 10kg를 잡을 때 젊은 하군들은 1kg를 채우기 힘든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합쳐서 머릿수대로 나눠 가져요. 대신 젊은이들은 물로 올라온 뒤 해야할 일들을 더 많이 나눠 맡죠.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자신을 똑같이 바라봐 주는 어른들에게 고마워하고, 어른들 역시 아이들이 자신을 존중해주시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 계속 이어져야 해요.

- 해녀 문화가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김** 60년대에는 24,000명까지 있었던 해녀가 지금은 3,200명 정도 남았고, 실질적으로 물질을 하는 해녀는 그보다 더 적어요. 70대 이상이 65%일 정도로 고령화도 진행됐고요. 그래서 젊은 해녀가 더 필요하고, 해녀학교 등을 설립해 이를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젊은 해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지 좀 더 고민했으면 해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대응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바닷속에서도 백화현상 등이 심해지고 해산물이 없어지고 있어요.

- 물 밖에서도 해녀 문화를 알리기 위해 바쁘다 하셨는데, 해녀 민요 한 곡조 소개해 주신다면요?

**장**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저높은 파도에~ 우리 어멍  
날 낳을 적에~ 무슨 날에 낳았단고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제 그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진

1 [https://youtu.be/ry0BgZ\\_N6YI?si=rXRzKsJS5OuqN62](https://youtu.be/ry0BgZ_N6YI?si=rXRzKsJS5OuqN62)  
2 <https://www.unesco.org/en/articles/haenyeo-guardians-jeju-coastal-legacy>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경기미래교육'이 꿈꾸는 교육의 미래란?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2024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sup>1</sup>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 교육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교육의 미래와 교육 변혁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인데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포럼 개최에 앞장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보았습니다.



1 <https://futuresedu2024.kr/>

-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먼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교육이 시도하는 미래교육”을 선보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포럼을 통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경기교육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학교 밖으로 공교육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확장해 모든 학생이 소외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의 변혁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경기교육은 모든 길이 '학교'에서 시작되고 학교로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 '하이러닝'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모든 교육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사회의 교육 역량을 학교와 결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공유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

소하는 경기온라인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교육의 틀과 경계를 넘어 학교 안팎의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미래교육을 향해 도전하는 경기교육의 모습을 이번 포럼을 통해 선보이고자 합니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교육의 담론이 경기도에서 실천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하며, 교육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세기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성장에 우리 교육이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 것은 틀림 없지만, 그것이 미래의 성공도 보장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다시 상상해 보는 이번 포럼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께서서는 우리 교육에서 중단해야 할 것, 계속해야 할 것, 그리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교육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교육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AI·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 다양성의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 위기 등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런 변화는 우리 교육에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에서 먼저 중단해야 할 것은 가르치며 배우는 주체를 한정하고, 교육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두었던 기존 교육의 관습과 틀 속에서 그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일들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 사회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해야 할 것은 학교에서 존중과 배려, 협력과 책임을 통해 인성을 키우고 공동체 속에서 역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자연

과 기술 등 교육의 여러 주체를 확장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미래 '창출'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은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엔진'이라는 생각을 갖고, 연대와 협력의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일일 것입니다.

— 인공지능과 디지털 학습을 비롯한 신기술이 교육에 불러 일으키는 변화의 바람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학교의 모습과 교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 시스템의 책임자로서 그러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미래 사회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들은 이러한 세상을 견인하는 동력이지요. 이런 흐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학교가 교육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공교육 시스템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AI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면 학교 현장은 지식 전달 위주에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교사의 역할도 지식 전달을 넘어 안내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티칭(teaching)'에서 '코칭(coaching)'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정답 맞추기 교육, 지식 쌓기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 길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교육 역시 이런 변화에 교육 체제를 맞추고 교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사, 학교, 공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이뤄져야 합니

다. 학생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정체성과 잠재력을 찾아가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통해 전 세계 교육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가 2021년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교육받을 권리, 공동재로서의 교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경기교육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확장한 실천 사례를 소개할 것입니다. 포럼 기간 중 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10곳을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도 기대가 큼니다. 참가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교육 방향과 실천을 확인하고, 세계 교육 전문가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교육이 제시하는 보다 나은 교육의 방향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우리나라는 교육 신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나 아동 학습자 데이터의 전용이나 유출 문제 등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조심스런 접근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고 '신중함'도 중요한 상황에서 이 둘 모두를 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미래 사회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AI가 대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AI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자체 개발해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AI·디지털 교육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올바른 소양을 길러줘야 합니다. 경기교육은 이를 대비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분별력 있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해 줄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조하고 보안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속도와 신중함을 모두 확보하면서 학생의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시민 역량을 균형 있게 키워 학생들이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가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진

“AI와 디지털 기술들은 이러한 세상을 견인하는 동력이지요. 이런 흐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학교가 교육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곽영훈 세계시민기구 대표

# 지속가능발전, '사람'을 중심에 두는 환경정책설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올림픽부터 엑스포와 인천국제공항까지 지난 약 50년간 한국의 다양한 국제 이벤트와 주요 도시 계획에 참여해 온 곽영훈 대표. 건축과 공공정책부터 평화운동,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에 이르기까지 그의 활동 영역은 유네스코만큼이나 넓고 깊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 그리고 분열된 사회를 어루만질 포용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 그간의 경험담과 오늘날의 생각 속에서 '평화'를 향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그를 만나 보았어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도 인연이 깊은 그는 김여수 제16대 사무총장 시절(2000.10~2004.10)에 이곳 유네스코회관 옥상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온전히 보이는 옥상정원을 만들라고 제안한 바 있다고 한다.

— 대표님,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먼저 호칭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MIT와 하버드대에서 건축과 교육환경학을 공부하신 뒤 대학 교수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원을 하셨고, 현재는 '사람과환경그룹'과 유엔한국협회 회장이자 세계시민기구(World Citizens Organization) 대표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심지어 태권도 유단자(9단)이시기도 하세요! '호칭 부자'라 해도 모자랄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주시길 원하시는지요?

저를 그냥 성곽길 환경미화원으로 불러 주세요. 실제로 요즘 서울 성곽길 주변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호칭이 제일 좋은데, 사람들은 다들 그건 꼭 빼고 다른 호칭으로 부르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호칭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꽃이며 별이라고 은유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별이 더 빛나고 어느 꽃이 더 예쁘지 가릴 수 없잖아요?

— 1988년 서울올림픽 주경기장과 올림픽공원

자문위원을 맡으셨고, 이후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대회장 계획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그림'을 구상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1962년 한국 학생 대표로 세계 학생 대표들과 함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기위해 미국을 방문했어요. 미국의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삶의 질의 격차를 목격했고,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격차의 원인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이를 극복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상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글로벌 이벤트 유치는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와 지역계획과 국가계획이 연계되고 확장되는 전략적 국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밑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분야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에 저를 인터뷰한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에서 표현했듯 '애플(A.P.P.L.E.)', 즉 Architect(건축가), Planner(도시계획가), Political scientist(정치학자), Landscape architect(조경가), Educator(교육자)가 된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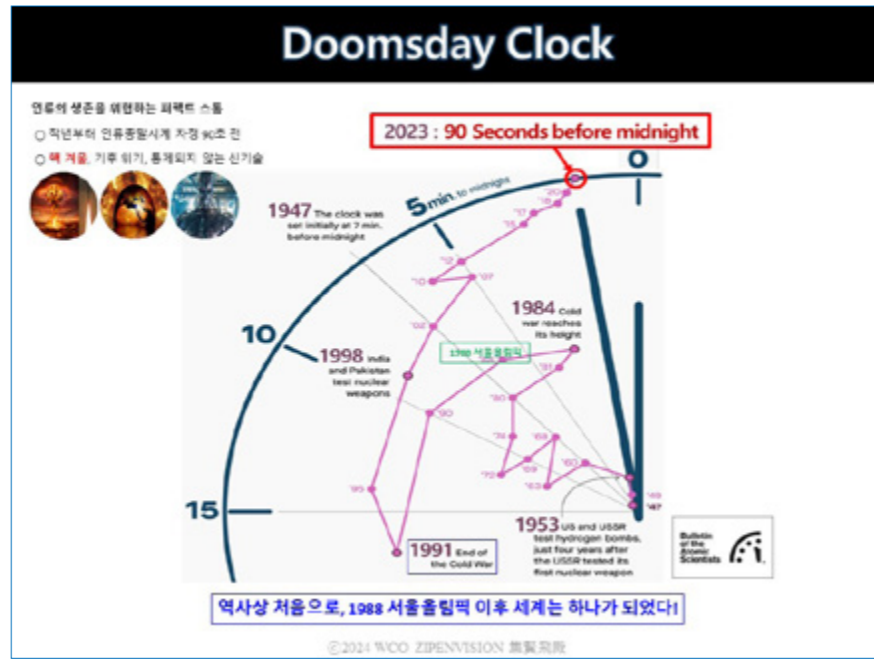
저는 이러한 세계적인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이 행사를 무엇을 위해 하는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주제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그 결과 동서 이념의 벽(Ideological Wall)을 허물겠다는 주제가 떠올랐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그러한 벽을 정말로 허물었고 그 결과를 실제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계획을 추진했던 핵과학자 그룹을 중심으로 시카고 대학에서 고안한 인류의 위기 지표, 즉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sup>1)</sup>는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냉전 종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인류 종말의 시간이 17분



이나 늦춰지면서 2차대전 이후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1993 대전 엑스포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과학기술의 길(Technological Way)을 찾고 보여주고자 했고, 2012 여수 엑스포에서는 그렇게 벽을 허물고 찾은 길을 통해 전세계에 지식을 전파(Epistemological Wave)한다는 주제를 제시했죠. Wall-Way-Wave로 개념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면서, 나아가 K-Culture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우리의 국가발전 정책 설계와 실현력을 증명했고 이제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이 했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구 멸망 시각을 자정으로 두고, 자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통해 인류의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운명의 날 시계'의 시간 변화 흐름 (곽영훈 대표 제공)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 교육 역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할까요?

제가 다방면, 다차원의 국가발전 환경 설계와 정책 계획 공부를 하고 올림픽과 엑스포 같은 행사 주최와 국가 발전 전략에 기여하며 성공했습니다만 그 과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마저 저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는 요새 청년들이 쓰는 단어인 '중꺾마' 정신으로 더욱 분발했지요. 이런 개인의 삶, 꿈, 일 속의 직접 경험에 비추어 한국 교육의 방향을 몇 가지만 짚어 볼게요.

먼저 학제적(學際的, transdisciplinary)으로 개개인의 소질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위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가 설계되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세계시민'임을 알고 이

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표현하고자 '지정과문경학(地政科文經學, Geopolitechnomics)적 사고'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즉 지리(지정학)와 정치, 과학기술, 문화, 경제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자의 소질을 길러내는 교육이 되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더 욕심을 낸다면, 각기 다른 믿음과 국적에 기반해 서로를 갈라놓은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초월(超越)의 개념을 넘어, 서로를 인정하자는 개념을 담아 만들어 본 '포월(包越)의 정신도 제안하고 싶어요. 국가와 종교나 이념 등으로 인한 인류의 분열과 반목이 증폭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성 교육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올림픽과 엑스포 등을 준비하시면서 가졌던 고민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갖고 계신 고민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 집중, 이와 반대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절벽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2024년의 우리나라가 도시와 인간의 공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현 시점에 매우 적절한 질문이네요. 환경 정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것은 국가경영의 제1순위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제 자연 환경을 바꿔가면서 인간 척도(human scale)에 맞지 않는 고층 콘크리트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는 것을 우선 그만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문명을 담은 그릇이고 '유기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도시는 물리 공간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 역사문화적 환경, 시각·미각적인 환경과 자연생태적 환경을 모두 아울러 보아야 합니다. 가족-집-동네-도시-나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행복을 고민하면서 서로 잘 어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 설계를 해야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하루 생활권'입니다. 무조건 도시로 모일 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집을 짓고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과 건축 기술이 발달 되어 해역(海域)에도 새로운 집과 동네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상상의 나라를 떠 볼 수 있습니다.

— 설계에서부터 정책적 의지의 발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과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우리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모든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이끈 모든 세대들에게,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지만 환경과 평화도 늘 함께 생각하고 일하며 살았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발전을 이룩한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입니다. 대한민국인들이 스스로 이룩한 것이예요. 지금 전 세계 인류의 열풍을 보세요. K-팝, K-무비, K-드라마, K-뷰티, K-푸드, K-패션, 그리고 최근 K-문학까지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인들이 해낸 일을 정치가 잘 도와주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바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보듯,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더욱 고민하고 이끌어 주세요. 사람 살기 좋은 곳, 세계인이 오고 싶은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초록빛 백두대간 녹지축이 다 연결되고, 사람이 걷는 길이 모든 동네까지 잘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예진 청년기자,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진

# 따끈따끈 파리통신

2024.03.14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도 OT가 있다?!
2024.04.11	길이는 1분, 울림은 100배
2024.05.09	유네스코와 슈퍼 선거의 해
2024.06.13	유네스코에서 일하는 n가지 방법
2024.07.10	백 년 만의 파리 하계올림픽을 맞이하며
2024.08.22	췌, 발자국을 남기지 마세요
2024.09.12	또 다른 모두의 올림픽, 패럴림픽의 진짜 의미
2024.10.10	미슐랭 스타 셰프! 그런데 지속가능성을 한 스푼 결들인
2024.11.1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미리 만나본 '썰'을 품니다
2024.12.12	동시통역사가 사라진 날

146

169

한국과 유네스코,  
가장 빠르고 유익한  
근황 업데이트

집행이사회 준비로 바빴던 대표부의 3월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도 OT가 있다?!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제219차 집행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58개 집행이사국이 참여해 유네스코의 주요 사업 및 행정 사안에 대한 제안과 심의·결정권을 갖는 기구로,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네스코 총회와 함께 유네스코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꼽힙니다. 그간 『유네스코뉴스』를 통해 집행이사회 결과를 매번 확인하면서도 그 전후의 상황을 접할 길이 없었던 저는 주재관으로 근무하면서 보다 상세히 집행이사회의 준비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4년을 임기로 선출된 58개 집행이사국과 유네스코 옵서버 국가 및 기구들이 참가해서 약 2주간 진행되는 이 회의는 그 기간과 규모에서 짐작할 수 있듯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합니다. 우선 회의 준비는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유네스코 규정에 따라 집행이사회 날짜는 직전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통상 1년에 2회 개최하는 집행이사회는 4월과 10월에 열리는 게 관례였는데요. 최근에는 상반기 집행이사회의 일자가 매년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월에, 올해는 3월에 개최가 되니 편차가 꽤 크죠? 이처럼 바뀌는 일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회원국들도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개최년도 11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집행이사회는 4월과 10월에 개최하는 것이 회원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초·중·고등학교는 4월 초에 2주간 방학을 하다 보니, 자녀가 있는

파리 본부의 사무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 강도와 추가근무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4월의 회의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프랑스의 학교들은 2개월간의 여름방학 외에도 대략 6주 수업 후 2주 방학이 있다고 합니다). 회원국들도 이를 이해하고 지난번 집행이사회에서 올해 집행이사회 일자를 3월 중순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에는 몇몇 회원국들이 회의 일정을 다시 4월 말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네스코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가 끝난 게 작년 11월 말인데, 불과 4개월 만에 집행이사회를 치르려면 사무국과 회원국 모두에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꽤 많은 회원국들이 이 의견에 지지를 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전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정도 집행이사회 의장의 권한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집행이사회 의장은 숙고 끝에 일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회의 준비가 끝난 상태고, 뒤늦은 일정 변경은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날짜가 확정된 집행이사회 시작 30일 전, 의장은 집행이사국과 옵서버 국가 및 기관들에게 초청장을 이번 회의에서 다룰 의제(안) 및 일정 안내와 함께 발송합니다. 의제는 대개 유네스코 사무국이 준비하지만 회원국이 원할 경우 직접 의제를 제안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회원국이 제안하는 의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집행이사회 본회의가 열리기 3주전쯤에는 준비회의(preparatory group meeting)가 개최됩니다. 본회의 3주 전쯤 이틀에 걸쳐 준비회의를 하면서 본회의에서 하기 어려운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집행이사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되는 의제 수가 늘어나면서 준비회의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2월 21일과 22일에 열린 준비회의에서는 미리 논의한 안건의 수가 좀 줄었습니다.

올해 또 한 가지 새로웠던 점은 집행이사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된 부분입니다. 새로 선출된 집행이사회 의장의 제안으로 1월 29일에 집행이사국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모든 회원국들을 초청하여 집행이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직원들의 주요 준비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주제별/사업별 정보회의(information meeting)입니다.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 회의 주제와 사업 정보를 나누는 회의, 그리고 본회의까지, 유네스코에는 정말 다양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집행이사회를 앞두고도 유엔미래정상회의, 세계물포럼, 자원동원전략, 오픈사이언스, 언론인안전, 지질공원 등을 주제로 한 정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때로는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가 너무 많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는 유네스코가 투명성과 설명 책임성을 실천하려는 노력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개최되는 집행이사회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유네스코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up>1</sup> 아, 물론 유네스코 뉴스룸을 통해서도 회의 결과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뉴스레터 구독도 잊지 마세요!

홍보강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sup>1</sup> <https://www.unesco.org/en/executive-board>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소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길이는 1분, 울림은 100배



‘영상의 시대’라 불려도 무방할 것 같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과 말, 댓글과 댓글이 쉴 새 없이 파열음을 내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음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유네스코는 소리와 음악적 표현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촉진하는 교육을 강조하고자 매년 ‘소리의 주간(Week of Sound)’을 지정해 여러 행사를 열고 있어요. 그중엔 전 세계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When Sound Creates Image!)’ 공모전도 있는데요.<sup>1</sup>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을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는 전 세계 학생들이 210개 작품을 접수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어요.

소리의 주간을 기념하는 공모전인 만큼 각 작품들은 주최측이 제시하는 사운드트랙에 맞춰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데요. 올해 사운드트랙으로는 프랑스의 유명 전자음악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인 론(Rone)이 작곡한 ‘코다마(Kodama)’가 선정됐습니다.

론은 지금까지 여러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맡았는데, 2021년에는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영화 《파리, 13구》의 사운드트랙으로 프랑스 세자르상 음악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어요.

이번에 공모된 작품들은 이 사운드트랙에 저마다 다양한 주제와 영상을 입혀 ‘더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더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는데요. 불과 1분 남짓한 길이의 짧은 영상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고도 넓은 울림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심사 결과 대상을 포함한 총 5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태전고등학교에서 출품한 작품이 ‘스페셜 멘션’으로 언급된 3개 작품에 포함되었다는 기쁜 소식! 이 작품과 더불어 대상을 포함한 총 세 개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모두 다 보아도 3분 밖에 걸리지 않으니 미래세대의 신선하고 열정적인 시선을 꼭 한 번 감상해 보세요!

### 대상 Grand Prize

#### 무당벌레의 시선 - 깨지기 쉬운 세상 Ladybug's witness: fragile world

그비다스 나기스(Gvidas Nagys) | 클라이페다 기술학교, 리투아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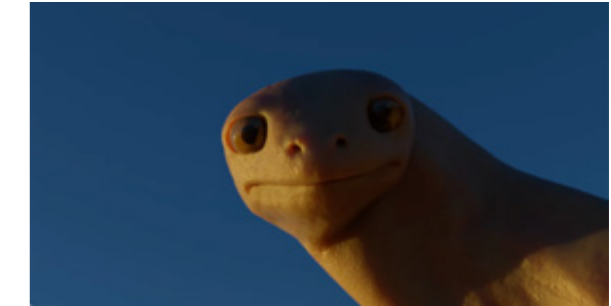
알록달록한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무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유럽 문화권에서 무당벌레는 ‘성모마리아의 벌레(Marienkafer, 독일어)’, ‘작은 마리아(Marquita, 스페인어)’, ‘주님의 작은 소(Божья коровка, 러시아어)’라는 훨씬 성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런 무당벌레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경이롭고 아름다운 자연과 달리 산산이 부서진 채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당벌레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 심사위원상 Jury Prize

#### 경주 The Race

새뮤얼 사(Samuel Saar) | 포스카 김나지움, 에스토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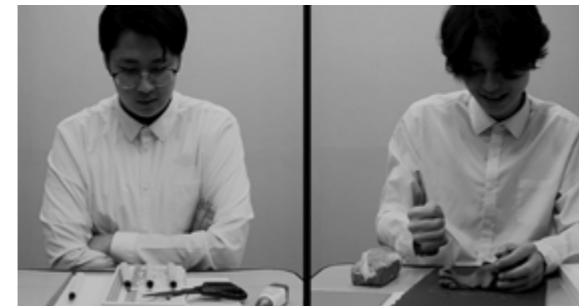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광활한 습지 위를 한 레이싱카가 질주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리 급한지, 운전자는 엔진에 불이 붙어도 모른다 봐요! 이리다 넘어질 것 같은데... 대체 그는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걸까요? 주변 풍경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달리던 운전자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지만, 그런 운전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또한 느리게 흘러가던 자연이었죠.



### 스페셜 멘션 Special Mentions

#### 선 Line

박은호 | 태전고등학교, 한국



어떤 방 안에 두 학생이 앉아 있어요. 둘 다 머리등 절한 표정으로 자기 앞에 놓인 흰 종이를 살펴봐요. 모래시계 있는 걸 보니, 시간이 다 흐르기 전에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하나 봐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겐 재료만 있고 다른 한 사람에게겐 도구만 있어요. 묘한 경쟁심 속에 둘은 각기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 하지만 될 리가 없죠. ‘아 몰랑!’ 하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답을 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으니깐요. 그러던 어느 순간 둘은 아, 하고 깨닫게 되죠. 힘을 합치면, 함께 한다면 어쩌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어요.



### 유네스코학교가 궁금해요?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 ASPnet)는 인권과 평화, 지속가능발전,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등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예요. 1953년에 시작된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에는 현재 182개국 12,000여개의 학교가 가입돼 있고, 2024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484개교가 가입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 현황과 활동 사례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asp.unesco.or.kr)를 방문해보세요.

<sup>1</sup> <https://www.lasemaineduson.org/discover-the-3-winners-and-17-finalists-of-the-sound-creates-image-competition-in-partnership-with-the-unesco-associated-schools-project-network>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선거들

## 유네스코와 슈퍼 선거의 해



지난 2021년 재임이 확정된 후 기자회견에 응하고 있는 오드레 아졸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2024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슈퍼 선거의 해’라 불리고 있습니다. 무려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명의 유권자가 올해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저는 본 투표일보다 앞서 지난 3월 말에 주프랑스대사관에서 재외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의무를 잘 마쳤답니다.

선거 결과가 국가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네스코는 각국의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전해주는 언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선거 기간에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면밀히 살피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법집행의 역할: 대중 집회와 선거 기간 중 언론인 안

전 보장』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를 발간해 선거 기간 중 언론인의 안정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 접근권 보장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거로 떠들썩한 몇몇 나라들과는 달리 유네스코는 큰 선거 없이 올해를 보낼 예정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유네스코의 주요 선거는 유네스코 총회가 열리는 홀수 해에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의 슈퍼 선거의 해는 언제일까요? 적어도 한국으로서는 작년이 슈퍼 선거의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개의 중요한 부속위원회(집행이사회, 세계유산위원회) 선거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속위원회의 이사국/위원국으로 선출되면 관련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

다. 유네스코의 활동 전반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집행이사회,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에서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는 특히 유네스코 회원국이라면 모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인싸’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두 선거에서 모두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면서 작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에게도 작년은 슈퍼 선거의 해였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정부간위원회의 선거 여럿이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에서는 제가 파견을 온 지 3개월 만에 집행이사국과 사무총장 선거가 열려서 바짝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IOC 사무총장 선거에는 한국이 입후보하지 않아 투표만 하면 됐기에 비교적 부담이 없었지만, 한국이 이사국 진출을 위해 입후보한 IOC 집행이사회 선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993년부터 IOC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는데, 적어도 제가 담당자로 있는 시기에 그 역사가 중단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사실 이사국 진출을 위해 투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룹 내에서 사전 합의를 통해 무경합(clean slate)을 달성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집행이사국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날 타 회원국이 자진 사퇴해 경합이 해소된 바 있는데, 작년에는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그룹과 동유럽 그룹에서 결국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투표 당일. 지나가던 한 회원국 대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한국을 지원할 거라는 얘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투표 용지를 받아 기입하는 제 손은 살짝 떨렸습니다. 호명을 받고 나가서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돌아올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투표 직후 바로 발표됐는데요. 당선국 명단에 ‘Republic of Korea’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몇주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비로소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유네스코 IOC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기여한 것을 회원국들이 인정해 준 것 같아 기쁘기도 했습니다.

홍보강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유네스코 본부 직원들의 면면

# 유네스코에서 일하는 n가지 방법



© UNESCO/Christelle ALIX

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다양한 배경의 유네스코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다루는 주제부터 방대한 데다 194개 회원국으로부터 너무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직원들의 근무계약도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직원들의 면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유네스코뉴스』 작년 8월호에서 유네스코 출입증을 소개하면서 녹색 카드는 대표부 직원용, 남색 카드는 유네스코 직원용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sup>1</sup> 좀 더 정확하게는 유네스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바로 남색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사

람은 당연하게도 유네스코 직원인데요. 우리가 흔히 ‘국제기구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국제공무원(international professional) 외에도 유네스코에는 소재 국가에서 채용된 행정직원(general service staff)이나 국내 전문관(national professional officer)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직원과 비슷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의 근무계약도 2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계약직원의 형태도 여러 종류입니다. 주로 단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계약직원을 채용하는데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맺는 프로젝트 계약(project appointments), 짧게는 반나절부터 길게는 20일까지, 최대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단기 계약(short

term contract), 1~12개월까지고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s), 6~12개월에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임시 계약(temporary assignment), 그리고 1~11개월에 연장이 불가능한 컨설턴트(individual consultants)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 조금 헛갈리는 표현이 ‘컨설턴트’인데요. 보통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젊은 지원 인력을 유네스코에서는 컨설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턴 또한 빠질 수 없죠. 유네스코 인턴은 학부 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고, 선발될 경우 3~6개월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유엔기구의 인턴은 원칙적으로 무급 인턴인데, 그럼에도 경쟁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한번은 프랑스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청년이 유네스코 인턴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하소연을 우연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인턴과 비슷하지만 파견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종의 유급 인턴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sponsored trainee(지원 연수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유네스코 사무국과 정부 및 기관 간의 협약을 기반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근무합니다. 유네스코 인턴은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채용하는 방식인 반면, 지원 연수생은 먼저 소속 국가나 기관에서 1차 선발을 하고 유네스코 사무국이 이를 최종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유네스코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선발하는 국제환경전문가 과정에 참가하는 분들이 주로 환경 분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 이들 인턴과 지원 연수생들의 출입증은 밝은 오렌지색입니다.

국내에서 선발하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에 관심이 있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이들은 한국 외교부가 선발 후 2년에서 4년까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유네스코에서도 JPO로 근무 후 유네스코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유네스코 본부에 2명, 지역사무소에 1명이 JP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엔자원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 UNV)으

로 유네스코에서 근무하는 분도 5명이 있는데요. 유엔개발계획(UNDP) 산하 기구인 UNV에서 선발된 이들은 전 세계 유엔 기구에서 1년에서 2년 동안 근무하는데, 대부분 현장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유네스코에서 근무하는 한국의 UNV들도 모두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형태는 바로 파견 근무입니다. 한국의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일정 기간 유네스코에서 근무하는 건데요. 이 또한 ‘secondment(직원 파견)’과 ‘loaned expert(전문가 파견)’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둘 다 파견 국가 및 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보통 1년에서 4년까지 근무를 합니다. 차이점이라면 ‘secondment’는 유네스코 직원의 지위를 갖고 ‘loaned expert’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 내부 업무망 접속 권한 등에서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한 데 모여있는 만큼,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부에서 근무하다 보면 유네스코의 업무 속도나 방식에 실망하거나 답답해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저는 오늘도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홍보강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1 <https://kncu70.cafe24.com/%ec%a3%bc%ec%9e%ac%ea%b4%80%ec%9d%98-%ea%b0%80%eb%b0%a9-%ec%86%8d-%ea%b7%b8%ea%b2%83%ec%9d%b4-%ec%95%8c%ea%b3%a0-%ec%8b%b6%eb%8b%a4/>

유네스코 본부 커리어 웹사이트 바로가기



올림픽을 바라보는 유네스코의 시선

# 백 년 만의 파리 하계올림픽을 맞이하며



press.paris2024.org

2024 파리 올림픽

작년 유럽 문화유산의 날(2023.9.16~17)을 맞아 방문했다가, 인기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르본느 대학이라고 부르는 파리1대학인데요. 이곳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을 기념해서 근대올림픽 창설이 결정된 회의장을 방문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림픽의 아버지’,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설립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제1차 총회가 바로 이곳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 총회에서 5일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2000여 명의 전세계 회의 참가자들이 투표를 했고, 그 결과 우리가 아는 올림픽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 걸려 있는 회의장은 평상시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학 관계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대올림픽의 시작을 주도한 나라여서인지, 프랑스는 지금까지 무려 다섯 차례나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네 번이 동계 올림픽이었고, 하계올림픽은 1924년에 개최된 후 정확히 100년만인 올해 파리에서 다시 개최됩니다. 프랑스인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해가 될만 하죠.

TV 뉴스에서는 매일 성화봉송 소식을 전하고, 각종 광고와 이미지들도 올림픽을 이야기합니다. 올림픽 관련 행사와 전시도 많은데요. 최근 집 근처 구청에서도 쿠베르탱 재단 주최 전시가 열려 그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쿠베르탱이 주창한 올림픽의 다섯 가지 목표(vision)를 알게 됐는데, 이 중에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를 통한 평화’, ‘모두를 위한 스포츠’는 유네스코의 활동과 정신에도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목표는 ‘올림픽 정신’, ‘종교로서의 스포츠’였습니다.) 특히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목표는, 처음엔 아마추어 정신을 강조했지만 차츰 엘리트 선수들의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는 올림픽의 순수한 면모를 다시 보여주기엔, 올림픽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전용 구장 건설을 최소화하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에펠탑 앞의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테니스 경기를 하고, 앙발리드 광장에서는 양궁 경기를 하는 식입니다. 이 두 곳 모두 유네스코 본부 건물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올림픽 기간 중에 교통 및 인파 통제 등과 관련해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유네스코 본부 직원들의 근무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궁급했는데요. 재택근무가 강화될 거란 예상과는 달리, 최근에 공유된 계획에 따르면 유네스코 본부는 기본적으로 정상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본부 건물 주변은 교통 통제 구역과 매우 가깝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통제구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필요시 직원들은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혼란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펠탑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유네스코 옥상에는 글로벌 뉴스통신사 AP(Associated Press)가 자리를 잡고 올림픽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외벽에서는 ‘게임의 문화(Games Cultures)’라는 주제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박물관(스위스 로잔 소재)과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전시는 문화 다양성과 스포츠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1924년 이후 올림픽의 개·폐막식 사진 140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진들 속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사진을 발견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유네스코는 문화 올림피아드(culture olympiad)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올 초부터 파리를 비롯한



1 올림픽 창설이 논의된 파리 제1대학 회의실  
2 유네스코 외벽 전시: '게임의 문화' 섹션에서 보이는 88 서울 올림픽 사진

프랑스 전역에서는 주로 스포츠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피트니스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제대로 운동을 한 덕에 끝난 뒤에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지만, 책장들 사이에서 스쿼트를 했던 경험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거예요.

올림픽 기간인 7월 말부터 8월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스포츠 관련된 대규모 국제 회의들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7월 23-24일에는 ‘Change the Game’이라는 주제로 세계 스포츠 회의가 열리고, 이 기간 동안 스포츠장관회의도 함께 개최됩니다. 8월 27-28일에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공동주최하는 세계 장애포용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8월 28일에는 패럴림픽 성화 봉송이 유네스코 본부에서 진행되는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홍보강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지속가능한 여행과 유네스코

# 쉿, 발자국을 남기지 마세요



saiko3p / Shutterstock.com

관광객들로 가득한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풍경

여러분의 이번 여름 휴가는 어땠나요? 남은 한 해와 더위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휴가와 여행은 우리에게 늘 꿀맛 같은 휴식이지만, 이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들은 다양한 문제로 몸살을 앓기도 해요. 지난 7월 말에는 세계적인 관광 대국 스페인에서 시민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제발 그만 좀 오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sup>1</sup> 이처럼 관광은 지역 사회의 경제적 버팀목이면서도 주민들의 일상과 현지 자연·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정부들은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 overtourism)’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 왔고, 관광객들도 단순히 소비하고 먹고 마시는 여행이 아니라 현지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

면서 그것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여행을 점점 더 추구하고 있어요. 자연과 문화와 지역 사회, 그리고 관광객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트렌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 쉽지 않은 일을 해내기 위해 세계의 관광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세계경제포럼 미래 지속가능관광 미래위원회 공동의장인 조지프 치어(Joseph M. Cheer)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 교수가 『유네스코 꾸리에』 7-9월호에 기고한 글(일부 발췌, 수정)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아요.<sup>2</sup>

### 세계 각지로 떠나는 ‘황금의 무리’들

과잉 관광이란 무엇일까요? 2019년에 펴낸 책 『Overtourism: Excesses, Discontents, and Measures

in Travel and Tourism(과잉 관광: 여행과 관광의 과잉, 불만족, 그리고 대책)』에서 저자는 그것을 ‘방문객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 결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혹은 시즌에 따라 생활양식이 변하고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빠지는 등의 고통을 겪게 되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관광의 개념은 항공 교통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1963년 독일 지리학자 월터 크리스탈러(Walter Christaller)는 급증하는 관광 수요를 우려하면서 “어떤 지역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죄를 짓는 것만 같아서 그곳을 언급하기가 점점 꺼려진다”고 말했고, 1975년 루이스 터너(Luis Turner)와 존 애시(John Ash)는 『The Golden Hordes: International Tourism and the Pleasure Periphery(황금의 무리: 국제 관광과 쾌락의 주변부)』를 펴내면서 돈을 들고 세계 각지로 떠나는 관광객들의 무리를 “문화를 파괴하는 야만인”으로 비유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금의 무리’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관광업은 전 세계 GDP의 9.1%, 약 9조9천억 달러를 차지하면서 지역과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의 그들

오늘날 과잉관광으로 신음하는 지역은 세계 도처에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리에서는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지역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에서 과한 행동을 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 속도를 사회 인프라가 따라잡지 못하면서 교통 체증도 심각해지고 수자원 고갈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도 문제입니다. 보라카이와 코모도섬 등 동남아 여러 유명 관광지에서 볼 수 있듯, 사회 및 생태 환경이 외부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는 소규모 섬 지역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대형 크루즈선 관광

역시 과잉관광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요. 세계적 크루즈 관광지이기도 한 베니스에서는 크루즈선이 정박하는 특정 지역에만 관광이 집중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잉관광의 충격은 지역과 국가에 상관 없이 점점 일상적인 일이 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휴가철을 노린 임대업이 성행하고, 기존의 주민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주변부로 밀려나고, 작은 개인 가게들이 있던 자리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똑같은 사진 찍기에 바쁜 관광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애초에 그곳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 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

과잉관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그 방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장기적으로 성공인지 실패인지 여부는 수 차례의 관광 시즌이 지나 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그중에는 이미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는 대책들도 있습니다.

크루즈선의 기항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금지시킴으로써 ‘당일치기 관광객’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과잉관광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도시 중심부에 있던 크루즈선 터미널을 외곽으로 옮겨서 효과를 보고 있는 암스테르담이 그 예입니다. 특정 장소에 집중되던 관광객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장소로 분산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앞에 모인 관광객들의 동선을 그 주변 다른 작품들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고, 암스테르담은 유명 셀카 장소였던 ‘I Amsterdam’ 표지판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관광 당국은 여행 계획을 짜는 관광객들이 더 다양한 장소를 찾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 또 다른 모두의 올림픽, 패럴림픽의 진짜 의미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휴가철 단기 임대업을 등록제나 허가제로 전환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늦은 시간의 소음과 수면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행 금지 시간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보라카이섬 같은 곳은 자연 환경이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기간 관광지를 폐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에 비해 관광객들에게 일종의 '여행세'를 걷는 것은 과잉관광의 충격을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베니스와 일본, 그리고 모든 관광객에게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발리 등의 사례는 관광객 숫자를 제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균형 잡기, 어렵지만 해야 할 일

과잉관광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관광이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그 장소에 변화와 충격을 남길 수밖에

에 없다면, 결국 그것을 적절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역 사회와 관계 당국은 무엇을 지키고 이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지를 두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방문자 수를 줄이는 방법은 그것이 지역 경제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지역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언제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관광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번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론리 플래닛의 공동 설립자 토니 휠러(Tony Wheeler)가 말했듯, 세상에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도시 하나 하나마다 그런 장소들을 부러워하는 소외된 커뮤니티가 여남은 개씩 있기" 때문이니까요.

발췌, 번역 | 김보람 <유네스코 뉴스레터> 편집장

- 1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europe/2024/07/22/20240722500009>
- 2 <https://courier.unesco.org/en/articles/travel-without-leaving-trace>
- 3 <https://visitworldheritage.com/en/home>



8월 28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패럴림픽 성화를 전달하고 있는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UNESCO / Marie ETCHEGOYEN

세계 최고 선수들의 땀과 노력, 선의의 경쟁과 눈부신 우정이 우릴 흥분케 했던 2024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약 2주 후인 8월 28일 아침, 저는 또 하나의 올림픽이자 진정한 모두의 축제인 파리 패럴림픽 성화 봉송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로 향했습니다. 패럴림픽 성화가 유네스코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이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9시 30분까지 입장을 했는데요. 유네스코 직원들과 그 가족들, 주유네스코대표부 직원들, 당일 유네스코에서 개최된 국제 장애 포용 회의(International Disability Inclusion Conference) 참가자들과 함께 성화를 기다렸습니다.

패럴림픽 성화는 유네스코의 일본식정원(Japanese garden)에서 세귀르홀(Segur Hall)을 거쳐 피아짜(Piazza)라고 부르는 중앙정원에 도착했는데요. 다

섯명의 성화봉송 주자 중에는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있었습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성화봉송용 유니폼인 하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패럴림픽 선수들과 함께했는데요. 워낙 사람들이 많아 저는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찍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유네스코 본부에서 하이라이트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해 주었어요.<sup>1</sup>

성화 봉송 다음으로 이어진 국제 장애 포용 회의(International Disability Inclusion Conference)에서 앤드류 파슨즈(Andrew Parsons)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패럴림픽 티켓 판매가 다행히 순조롭다는 소식을 전하며 개최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 보다는 미디어나 대중의 관심을 적게 받는 패럴림픽 운영의 어려움을 엿볼수 있었는데요. 제가 예약한 패럴

### 알쓸U잡 더보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

세계 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이트에서도 유산 지정 이후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면서 여러 고민 거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나친 관광객 밀집과 환경 훼손, 지역 자원 고갈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광객 관리에서부터 효과적인 유산 해석 방안과 혁신적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와 공동으로 '세계유산 여행' 플랫폼을 마련해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유네스코 유산 지역을 알리고 있으며,<sup>3</sup>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의 유명한 세계유산인 '모스타르(Mostar) 구시가'에서는 지역 당국과 함께 관광 밀도를 분산시키기 위해 관광객들이 도시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더 많은 문화적 체험을 하도록 장려하는 '모스타르 패스'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도심으로 들어가는 관광 버스에서 자동으로 관광세를 걷는 전자 납부 시스템을 두 지역에 설치하기도 했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에서는 'Cash for Work'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보트 투어 커뮤니티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관광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림픽의 양궁 결승전 티켓 가격이 올림픽 양궁 결승전 가격의 5분의 1 수준이었던 것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파슨즈 위원장은 패럴림픽을 유치한 국가들이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강화한 선례를 소개하면서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패럴림픽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장애가 인식되는 방식”이라는 말이 특히 인상깊었습니다. 이어서 연단에 선 아줄레 사무총장은 패럴림픽과 유네스코가 설립 배경과 가치에 있어 공통점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신체와 정신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패럴림픽과 유네스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인간의 마음에 평화의 방벽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전문기구인데요. 패럴림픽은 1948년, 전쟁 부상병들이 참가한 영국의 체육대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패럴림픽은 이후 한참이 지난 1960년 로마에서 개최됐지만 그때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금도 패럴림픽 성화는 영국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올해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양질의 체육 교육 세계 현황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Quality Physical Education)』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학생 3명 중 1명은 체육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의 3분의 1만이 포용적인 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유네스코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접근권 향상(improve access) ▲기반시설(infrastructure) ▲포용 교육(inclusive education) ▲포용적인 미디어(media inclusion) ▲데이터 취합(data collection)을 강조하는 행동강령(call to ac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포용적인 미디어’에는 미디어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스포츠에도 충분한 분량을 할애해 다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도 들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



영화 《Un p'tit truc en plus》  
예고편 보기



근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Un p'tit truc en plus》라는 영화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장애인들이 대거 출연한 이 영화의 제목은 한국어로 ‘작은 덩’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한국에서 개봉한다면 제목이 어떻게 번역될지도 궁금한데요. 영화는 막 보석상을 털 도둑 부자 콤비가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 우연히 장애인 교육시설의 여름 캠프에 참가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그것도 범의자가 필요에 의해 장애인 흉내를 내며 생활하는 이야기라니,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우려도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영화는 저의 예상을 뛰어넘어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이 넘치고, 유쾌하면서도 가슴 찡한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배우들은 때로는 일반인들의 편견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비장

애인의 장애인 흉내를 바로 알아차린다는지요), 때로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활용한 몸개그도 마다하지 않으며 관객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작은 덩’이 무엇인지 영화에서 직접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저는 장애인이란 무언가 중요한 것이 결여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덩처럼 별 것 아닌 무언가를 조금 더 짊어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도 각성의 소재도 아닌, 저마다 작은 덩을 가지고 있는 개성 넘치는 한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감독은 영화를 준비하면서 “장애인이 10명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통쾌하게도 이 영화는 5월 초에 개봉해서 아직까지도 극장에서 상영중으로(바로 얼마전에 유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됐네요), 이미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프랑스 역대 국내 영화 흥행 순위 10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작고 사랑스러운 영화가, 그리고 패럴림픽 선수들이 보여주는 멋진 승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강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1 <https://www.unesco.org/en/newsroom/multimedia?hub=701>

유네스코 친선대사로 임명된 세계적 요리사 다니엘 흠

# 미슐랭 스타 셰프! 그런데 지속가능성을 한 스푼 곁들인



9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요리사 다니엘 흠(오른쪽)에게 유네스코 음식 교육 분야 친선대사 임명장을 전달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왼쪽)

요즘 핫한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덕분에 요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마침 유네스코에서는 미슐랭 3스타 셰프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sup>1</sup> 유네스코와 세계적인 요리사? 언뜻 봐서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 이 조합은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 세계적 요리사와 유네스코, 음식과 문화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다

지난 9월 25일, 세계적인 요리사 다니엘 흠(Daniel Humm)이 유네스코의 음식 교육 분야 친선대사로 임

명되었습니다. 대개 임명식은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지만 이번엔 다니엘 흠이 운영하는 미국 뉴욕의 레스토랑 ‘일레븐 매디슨 파크(Eleven Madison Park)’에서 열렸습니다.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면서 일정을 조율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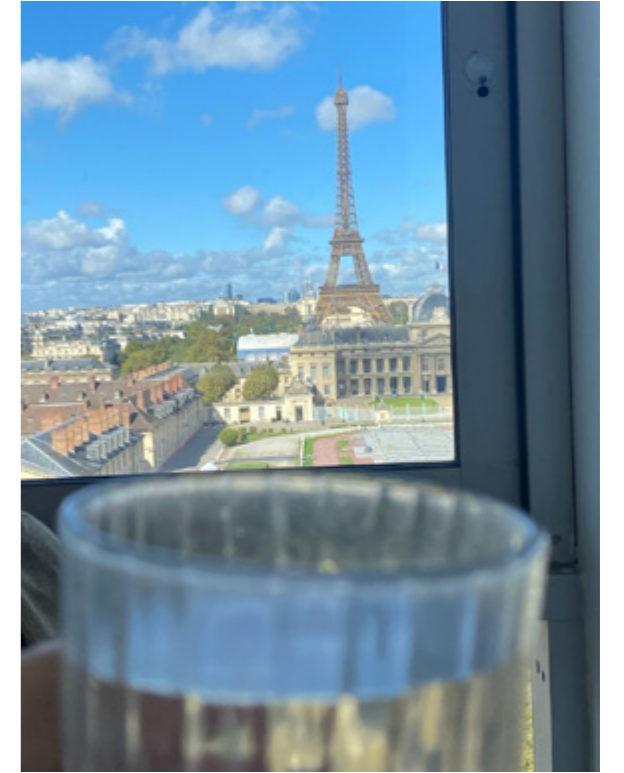
다니엘 흠은 스위스 출신의 요리사로,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2021년부터 모든 음식을 식물성 식재료만을 이용해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실천 중입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그의 식당은 얻는 것 만큼이나 지키기가 어렵다는 미슐랭 3스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친선대사로서 다니엘 흠은 지속 가능한 음식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통 요리 문

화의 보존 및 이를 통한 환경 보호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울러 유네스코가 계획 중인 ‘세계음식지도(International Food Atlas)’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세계음식지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백 개의 전통 요리 문화(한국의 김장, 프랑스의 바게트 등)와 56개 음식 창의도시(한국의 전주, 이탈리아의 알바 등)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유네스코의 친선대사로 요리사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유네스코 생물다양성을 위한 친선대사로 임명된 아르헨티나 출신의 마우로 콜라그레코(Mauro Colagreco) 또한 미슐랭 3스타 셰프로서 현재 프랑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중요시하는 그는 내년 1월에 다니엘 흠과 함께 유네스코 본부에서 채식 기반의 요리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큼니다.

## 유네스코 본부의 ‘삼시세끼’

유네스코 본부는 미식으로 유명한 파리에 있지만, 직원들의 식생활은 얼핏 봐서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점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도시락을 만들어 오거나, 샌드위치를 사 먹거나 구내 식당에서 간단히 한끼를 때우는 식입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라, 맛있다고 소문난 빵집이나 식당 앞에는 점심 시간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가장 높은 층인 7층에는 식당이 두 개 있는데요. 전형적인 구내 식당인 카페테리아와 좀 더 우아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저렴한 가격도 매력적이지만 특히 ‘에펠탑 뷰 맛집’이기도 해서 유네스코에 출장 오시는 분들께 꼭 한번씩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급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도 외부 식당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코로나19 이후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외에 커피와 간단한 스낵을 즐길 수 있



유네스코 본부 꼭대기층에 있는 ‘에펠탑 뷰 맛집’인 카페테리아

는 커피숍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컵을 가지고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년 내내 수많은 회의가 개최되는 곳인 만큼 커피 브레이크나 리셉션이 열리는 일도 잦은데요. 사실 음식의 양과 질 모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와인 등의 음료와 소량의 핑거푸드만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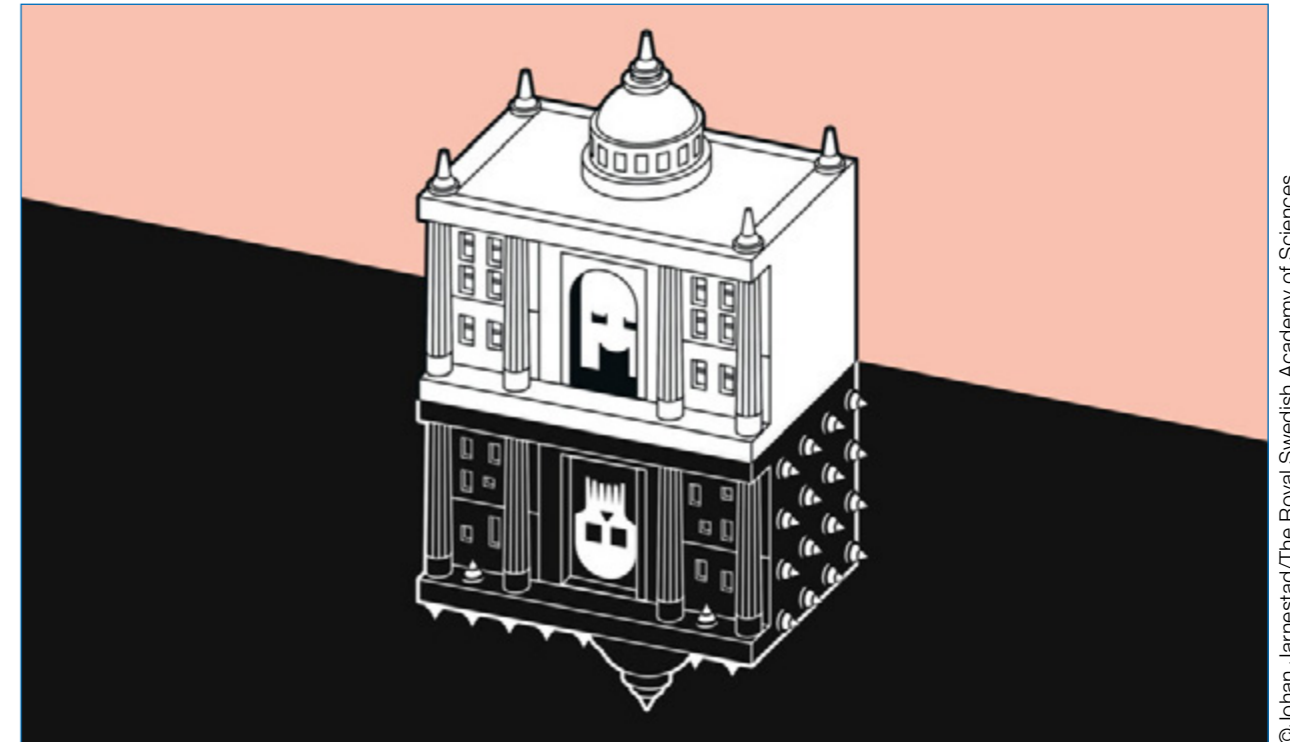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미리 만나본 ‘쌀’을 품니다

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리셉션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참지 못하고 라면을 끓이곤 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회원국이 주도해서 음식을 제공할 때인데요. 매년 개최되는 아프리카 주간, 남미 주간 등의 행사에서는 맛있는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고,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들의 관저에서 열리는 만찬 자리에는 각 회원국이 자존심을 걸고 마련한 훌륭한 음식이 나온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따뚜이’를 우연히 다시 봤는데요. 벌써 꽤나 오래된 영화지만, 천부적인 요리 재능을 갖고 있는 생쥐 레미와 요리 재능은 없지만 상냥한 요리 견습생 링귀니가 파리의 식당에서 만나 벌어지는 모험은 다시 봐도 재밌었어요. 특히 파리가 실제로 생활 공간 곳곳에서 생쥐를 만날 수 있는 도시다 보니—유네스코 본부에서도 직원들은 음식물을 절대 사무실에 남겨두고 퇴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 내용도 훨씬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링귀니처럼 요리 재능이 없는 저로선 다시 봐도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영화 속 전설적인 요리사의 말이 와 닿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비록 모두가 고급 식당에 갈 수는 없고 누구나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없을지라도, 음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마다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얼렁뚱땅 국적불명의 음식을 만들어 먹을 테지만—처치 곤란한 레드와인을 닭볶음탕에 부어 볼까?—유네스코와 손을 잡은 세계 최고 셰프들이 앞으로 선보일 지속가능한 음식 문화와 환경 보호 활동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예요.

홍보강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1 <https://www.unesco.org/en/articles/three-starred-chef-daniel-humm-named-unesco-goodwill-ambassador-food-education>



©Johan Jarnestad/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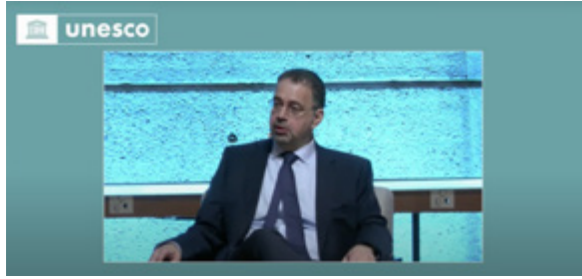
스웨덴 한림원이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공개한 수상 취지 일러스트. 대런 아세모글루 교수를 비롯한 수상자 3인은 "법과 제도가 허약해 착취받는 대중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의 번영에 포용적 사회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해 준 연구"를 해 온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10월 10일 파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쯤, 한국 친구로부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이후 한국 서점가에서 벌어진 난리법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한강 작가의 소설은 곧바로 품절됐고, 파리 시 공공도서관에 있는 거의 모든 책들도 대여가 됐습니다. 우리 대표부에 축전을 보내 온 회원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0월 14일, 노벨경제학상이 발표됐을 때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바로 전에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들었거든요! 강연 시작 전에 가브리엘라 라모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무총

장보가 곧 노벨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소개했을 때만 해도 저는 설마했는데 말이예요.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MIT 교수는 유네스코가 이번에 야심차게 시작한 엘버트 허시만 강연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강단에 섰는데요.<sup>1</sup> 유네스코는 중요한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학문 간 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적 탐구를 이어가도록 장려하기 위해 동 강연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연 시리즈 제목에 들어간 이름인 엘버트 허시만은 누구일까요? 산업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허핀달-허시만 지수



아세모글루 교수 강연 유튜브 영상



(Herfindahl-Hirschman Index)를 떠올렸다면 ‘리스펙’하겠습니 다. 저는 몰랐거든요. 허시만은 1915년 독일에서 태어난 경제학자로, 개발 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의 기초를 다졌고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독창적인 접근법과 학문적 엄격함, 실용적 문제 해결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유대인인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다른 유대인들의 피난을 돕기도 했는데, 이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한나 아렌트나 마르크 샤갈 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전쟁 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통역을 맡기도 했으며, 미국으로 귀화한 뒤 여러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다 2012년 9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앨버트 허시먼 강연 시리즈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아세모글루 교수의 주제는 “기술 발전은 공동의 번영을 구축할 수 있는가(Can Technological Progress Build Shared Prosperity)”였습니다. AI 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에 전 세계가 놀라움과 함께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과거의 기술 발전의 경험과 연계해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이미 여러 차례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적절히 해결하고 공동의 번영을 누려 왔다는 사실은 다행이지만, 아세모글루 교수는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한 기술 발전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는 수십 년의 기간은 인류의 긴 역사에 견주어 보면 매우 짧지만, 그 시기를 살아가는 개인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소중한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위협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AI 기술이 우리에게겐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아세모글루 교수의 주장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침 때문에 입에 사탕을 물고 강의를 이어가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는 이번 강의를 놓치지 마세요!

더불어 올해는 유네스코의 전신인 국제지적협력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Cooperation)가 설립된 지 100년이 된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9월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방식의 지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평화를 추구한 유네스코의 훌륭한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매년 개최될 유네스코의 허시먼 강연 시리즈에서 한국 연사를 만날 날도 기대해 봅니다.

홍보강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1 <https://www.unesco.org/en/articles/unesco-launches-inaugural-albert-hirschman-lecture-daron-acemoglu>

## 국제회의 동시통역이 중단되면 벌어지는 일 동시통역사가 사라진 날



유네스코 회의장에 놓인 동시통역 수신기, 그리고 작별 인사로 종종 쓰이는 인터넷 '짤(특정한 뜻을 담은 이미지)'

“여러분, 저희 통역사들은 오늘 근무하기로 예정된 시간이 15분 초과되어 이만 떠납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통역기를 통해 전해오는 안내가 한동안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저녁 6시 45분, 6개 언어 통역사들은 이처럼 짧은 인사말과 함께 제34차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 정부간위원회) 집행이사회 참가자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통역 중단으로 회의가 멈추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주로 소규모 작업단 회의나 전문가 회의 등에서나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번처럼 정부간 회의는 보통 기한 내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대표들이 모인 만큼, 회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통역사들과 협의하고 때로는 자정까지도 회의를 지속하곤 합니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연장된 여러 회의에 참가했지만 통역 문제로 회의가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의가 중단된 시점은 안건 결정문의 4분의 3정도를 논의한 상태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미 오전에 회의가 밤까지 연장될 것일 예감하고 있었고(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요), 당연히 유네스코 사무국이 통역사들과 협의를 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부 사정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문득 회의 중에 한 참가자가 ‘통역사가 내 말

을 잘못 통역해서 내 의견을 오해했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농담조로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통역사는 국제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의 내 내 고도의 언어능력과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 이기에 참가자들도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게 국제 회의의 기본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국제회의 참가 경험에 있는 분이라면 회의가 끝날 무렵에 참가자가 동시통역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거나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며칠간 이어지는 국제회의에서 통역사 한두 명의 목소리를 매일 듣다 보면 특별한 친밀감을 갖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저만의 내적친밀감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유네스코 동시통역사들이 있습니다.

통역사에게 자잘한 불만을 품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런 일은 매우 드물지만 통역사도 인간인 만큼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특히 국제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이 잘못 통역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위급 정부 대표의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대표가 발언할 때 통역기를 끼고 동시통역을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통역 실수만큼 큰 문제는 아니지만, 통역사의 목소리 톤이나 크기가 좀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매우 멋지다고 생각하는 유네스코 통역사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꿀보이스’는 너무나 부드러운 나머지(특히 오후시간대에는) 저도 모르게 졸음이 올 정도라 씩 반갑지는 않습니다. 동시통역은 보통 2인 1조로 진행되는데, 두 통역사의 목소리 크기 차이가 너무 커서 계속해서 통역기의 볼륨을 조절해야 할 때도 난감합니다.

물론 통역사들 역시 이런저런 불만이 없진 않을 겁니다. 유네스코의 통역사들은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그런 내용을 솔직하게 알려주십니

다. 대부분 발표자가 말을 너무 빨리하거나 목소리가 작을 때 나오는 지적인데요. 한번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빨리 얘기하셔서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차갑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정부간 회의에서도 통역사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회의 참가자들이 못마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나저나 통역사들의 갑작스런 ‘퇴근’ 뒤 회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36개 이사국 및 옵서버 회원국 대표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스웨덴 대표가 나서 동시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6개 유엔 공식언어(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대신 유네스코의 상용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유네스코대표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중에는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 유창하거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웨덴 대표의 제안에 바로 몇몇 회원국들이 찬성했고, 2년 만에 개최된 정부간회의를 제때 마치고 싶은 참가자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부 국가들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표는 영어로만, 다른 대표는 프랑스어로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대로 회의를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회의 중단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회(suspension)는 투표를 거쳐 참가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합니다. 다행히(?)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추가 회의 일정을 잡는 문제가 또 만만치 않았습니 다. 추가 회의를 개최할 예산을 확인해야 하고(회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통역비입니다), 회의장 예약도 필수입니다(주말의 맛집만큼은 아니라도, 늘 국제회의가 열리는 유네스코 본부의 회의장 예약도 정말 치열합니다). 결국 다음 회의 일정은 바로 잡지 못한 채 사무국이 추후 결정하고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는 길이

있음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하는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게 돼서 회의를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통역 관련 AI기술이 이미 곳곳에서 활용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회의 동시통역을 AI가 맡게 될 날도 언젠가 올지도 모릅니다. 통역사 퇴근 시간을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 물론 편리한 점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좋은 점만 있을까요? 정말 실제로 그런 날이 온다면, 저는 이번 회의를 떠올리며 한편으론 개성 넘치는 유네스코 동시통역사들을 그리워할 것 같기도 합니다.

홍보강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 함께 기억해요! 세계 기념일

2024.01.24	포용적인 교육을 향한 꿈
2024.02.13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2024.03.22	영화 '둔'에서 나온 생명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2024.04.15	잔나비시가 부릅니다, 비비의 밤양갱
2024.05.21	SNS를 뒤덮은 '크루키'! 그런데 이거, 다양성 맞아..?
2024.06.05	플라스틱의 재사용사용사용
2024.07.11	'삼둥이' 가족도, 비혼족도,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
2024.08.12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2024.09.08	나의 언어, 너의 언어, 우리의 마음
2024.10.28	무한반복 아-파트, 즐길 땐 즐기더라도!
2024.11.03	개구리도 침팬지도 우리 모두의 룸메이트!
2024.12.10	Defying Gravity - 누구도 우릴 억누를 순 없어요

172

212

세계 기념일 이야기,  
그리고 7OGETHER  
세계 기념일 캘린더 제작에  
참여한 아티스트와의 인터뷰

# 포용적인 교육을 향한 꿈

1월 24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교육의 날 (International Day of Education)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유네스코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입니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밖에 머무르고 있는 2억 5000만 명의 아동과 7억 6300만 명의 비문해 성인들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외 모든 인류에게도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지구촌 분쟁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누린 이들이 SNS 상에서 다는 댓글조차 다른 이를 차별하며 혐오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나요? 그

러한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완성시키기 위해, 교육은 지금까지처럼, 아니 지금보다 세상 곳곳에 더 널리, 더 깊이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세기까지 교육을 대하는 우리의 시간표가 국어와 수학, 과학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21세기 이후 우리의 시간표에는 평화와 연대와 공존의 가치가 반드시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학교가 변해야 하고,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 중심에 있는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야 합니다. 그 원대한 꿈을 이루는 일에 유네스코 패밀리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거죠? 세계 교육의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며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기념일 달력! 그 첫 장인 1월 달력의 일러스트를 '세계 교육의 날'을 주제로 꾸며주신 한페이지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교육에 대한 생각들도 들어 보았으니 여러분도 함께 읽어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페이지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는 일러스트레이터, 한페이지입니다. 때때로 그냥 지나쳐버리기 아쉬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을 한페이지로 만들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가요. '한페이지'는 소중한 찰나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남기겠다는 뜻과 저의 본명 '한지수'의 페이지라는 의미가 담겨있답니다.

— 이번 세계 교육의 날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셨는지 궁금해요.

작품의 제목은 '우리들이 만들어갈 세상'이에요. '교육' 하니까 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콘셉트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이가 나무를 심으면 마을이

생기고 아이가 별이나 모양을 그리면 그게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책으로 대표되는 교육에서 출발해 아이들의 손에서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세상을 그리고 싶었어요.

— 개인적으로도 교육이라는 주제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 역시 어렸을 때 미술학원에서 배운 미술이 제일 재밌었고, 그것이 지금의 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그 의미가 남달라요. 게다가 제가 작가로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늘 느끼고 있어요. 저는 교육을 '씨앗을 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씨앗을 심기 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심어보기 전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교육은 성별과 나이에 상관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잠재력을 펼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나'라는 토양에 여러 종류의 씨앗을 심어 볼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우리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대세'를 장악하는 주인공도 끊임없이 바뀌지만, 세월의 변화와 상관 없이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키는 것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라디오도 바로 그런 것들 중 하나입니다.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가장 오래된 대중매체인 라디오. 가장 오래됐다는 말은 가장 구식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 구식 매체가 최신 문명의 도구들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 없이 작동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라디오가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텔레비전 송신탑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빠르게 띄워 놓은 인공위성들이 여전히 '그림의 떡'인 아프리카나 태평양의 오지에서도, 민주주의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억압받는 나라에서도, 라디오는 정보와 교육과 즐거움을 전파하고 동시에 평화와 인권의 목소리를 널리 퍼뜨리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네스코는 2011년 제36차 총회에서 2월 13일을 세계 라디오의 날(World Radio Day)로 정했습니다. '유엔 라디오'가 설립된 1946년 2월 13일을 기념해 정해진 날짜입니다. 세계 라디오의 날의 올해

주제는 '라디오: 정보와 오락과 교육의 한 세기(Radio: A Century Informing, Entertaining and Educating)'인데요. 수많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속에서도 한 세기 이상 우리의 교육과 자유, 여가와 인권의 중요한 매개가 되어 준 라디오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뜻입니다.

내 목소리를 모두에게 전하고 그 누구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미디어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면, 라디오는 아직도 그 본질에 가장 충실한 미디어입니다. 정보통신 환경이 열악하고, 그마저도 잦은 지진과 산사태 등으로 인해 종종 끊기곤 하는 네 팔에서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만 명이 넘는 청취자들이 전국 400여 개 이상의 커뮤니티에 있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바이러스와 방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처럼, 라디오는 오늘도 묵묵히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절실한 목소리를 구석구석 나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라디오,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시대에도 '리스펙' 받을만 하죠? 또다른 100년을 꿈꾸는 라디오. 오늘을 맞아 지금 주변에 있는 라디오를 한번 켜보세요. 세계 라디오의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 유네스코는 배움이 학교 밖,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작가님도 지금 배우고 계신 게 있나요?

최근에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스스로 꽤 잘 하는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렸을 때 배웠으면 어쩌면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면서 미처 배우지 못해서 잠재력을 펼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 그렇다면 세계 교육의 날을 맞아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하고 제안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생전 안 해본 것 배워보기!'가 어떨까요? 나이와 상관 없이 마음껏 배우고 뜻을 펼쳐보는 거죠. 저는 축구 말고도 아이스하키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거든요. 이런 걸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뜬금없는 것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1월 24일이 그렇게 나도 모르는 나의 잠재력을 찾아보는 그런 날이 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 작가님 포트폴리오에 다른 작품들도 소개돼 있는데요, 그 중 두어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 1 중심 잡기

내 쫓대를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기, 내 소신껏 판단하기, 내 경험으로만 평가하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변 환경에 휘둘리기 쉬운 세상이라 나로 온전히 서있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중심 잡기에 힘을 써야겠죠.

### 2 스포트라이트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한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같은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 나에게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를 느끼는 찰나의 연속으로 살겠다.

— 끝으로 작가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저는 진짜 내 그림을 그리는 것, 뭘 만들어 보든지, 뭘 섞어 보든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재료로 그리는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것을 캔버스에 작업할 수도 있고, 도화지에 그릴 수도 있고, 제가 사용하는 태블릿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재현할 수도 있겠죠. 그 대상을 찾는 과정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커리큘럼도 만들고 싶고,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로부터도 영감을 얻으면서 작품을 풀어나가고 싶어요.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며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기념일 달력! 2월 달력의 일러스트를 '세계 라디오의 날'을 주제로 꾸며주신 폴파이프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라디오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어요.

— 안녕하세요 폴파이프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폴파이프'입니다. 제 이름 '봉관'을 영어로 말장난처럼 해석해서 폴파이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간단한 웹툰도 그리는 등 다양한 시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캐릭터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세계 라디오의 날을 표현한 이번 작품의 콘셉트와 제작과정이 궁금해요.

제가 그리게 된 '세계 라디오의 날' 소개 글에서 인상 깊게 다가온 문구가 있었어요. 어디에서나 메시지와 내용에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는 라디오. 이 문구를 보자마자 다양한 상황에서 라디

오를 듣는 사람들을 그려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겨났어요. 생각보다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많았어요. 행복한 순간, 릴스하고 있는 상황 또는 위기 상황 등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라디오가 많다는 걸 느끼면서 막힘없이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 평소에 라디오를 자주 들으시는지요? '라디오'에 얽힌 추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릴적 라디오를 듣다가 좋은 노래가 나오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빈 카세트를 녹음기에 넣고 기다리다가 라디오에서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나오면 타이밍을 딱 맞춰 버튼을 누르기 위해 애쓰던 기억이 나요. (너무 옛날 사람 같은 추억이네요 ㅎㅎ) 또, 새벽에 잠이 안 오면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를 듣던 기억도 납니다. 새벽 방송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진행하는 분들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방송을 했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DJ의 잔잔한 목소리에 끌려서 비슷한 시간대에 주파수를 맞추고 자주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 세계 기념일 아트웍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면 좋을까요?

그림에 담은 다양한 순간들을 보시면서 내 주변에도 비록 자주 쓰지 않지만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라디오가 하나쯤은 있지 않은지 찾아본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들어본다면 더할 나위 없어요.

—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림에 스토리를 입혀서 소통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올해에는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가벼운 만화를 꾸준히 그려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동안 디지털로만 그림을 그려왔는데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것도 목표예요. 음악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스트리밍으로 음원을 듣다가 턴테이블의 잡음 섞인 음악을 찾아듣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인공지능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원하는 그림이 똑딱 나오는 시대에 아날로그 그림은 오히려 더욱 가치 있게 남을 거라는 생각에 실물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2022년에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테마수업 워크북인 『교실에서 세계시민 되기』의 일러스트(사진)를 그렸어요. 그때 다양한 주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보면서 유네스코가 세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야기에도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이번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유네스코 활동을 70년 동안 이어온 것에 놀라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70년간 고생하셨고, 앞

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세요. 늘 응원하고 저도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세계 라디오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 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까요?

블루투스 스피커에 잠자고 있는 라디오 기능을 켜워보겠습니다. 만약 그날 운전하게 된다면 스마트폰을 차에 연결하는 대신 라디오를 한번 켜 봐야겠어요. '라디오'의 날인 만큼 '비디오'를 하루쯤 끊어보는 것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아아 이걸 살짝 자신이 없네요.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 영화 '둔'에서 나온 생명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둔: 파트 2>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은 척박한 사막 행성 '아라키스'.

물 한 방울 찾기 힘든 이 행성에 적응하며 살아 온 원주민인 '프레멘'들에게 물은 곧 생명이자 가장 희소한 자원이며, 이곳에서 살다 죽어간 모든 생명의 영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외부에서 온 주인공 일행에게 눈물 한 방울도 절대 흘려선 안 된다고 매우 엄숙하게 경고하죠. 그 장면은 코믹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관객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표면의 70%가 물로 덮인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물은 생명이고 자원이며,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물을 이용하는 지식과 물을 다스리는 기술 위에서 문명을 쌓고 번영해 온 오늘날의 인류에게도, 물은 여전히 마냥 쉽게 다가갈 수만은 없는 대상이에요. 인류가 손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 물의 0.5%에 불과하며,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희생자 중 70%가 물 관련 재해로 목숨을 잃었어요. 아직까지도 무려 22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가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은 1년 중 특정 시기에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요. 게다가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숫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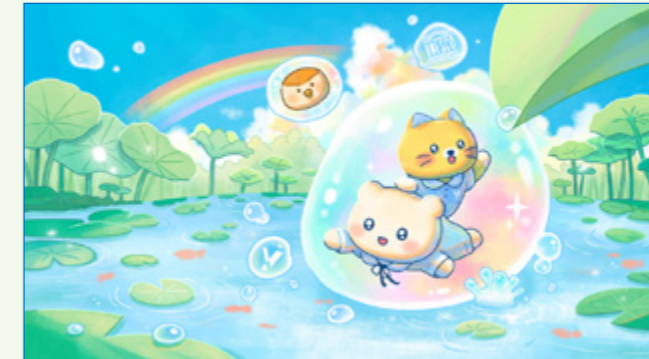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한정된 물을 두고 이웃끼리, 인접한 지역이나 국가

끼리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협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유네스코가 '세계 물 평가 프로그램(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WWAP)을 운영하며 유엔 기구인 '유엔워터(UN-Water)'와 함께 국가 간 협력과 연구를 모색하는 것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평화를 위한 물(Water for Peace)'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물은 평화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전제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자원이나 도구가 아닌 '인권'이에요. 우리는 물을 독점하거나 무기화하거나 악용하려는 시도 대신, 보다 포용적이며 평등한 방법으로 누구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해요.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연간 주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렛대로서의 물(Leveraging Water for Peace and Prosperity)'이에요. 경제 분야에서 자주 보는 용어인 '레버리지'가 사용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깨끗한 상하수 시스템이 가져오는 이득은 그 투자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유엔워터는 위생적인 상하수도 시스템에 1달러씩 투자할 때마다 약 4달러의 보건·환경·사회적 이득이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물을 두고 발생할 수도 있는 소모적 지역 분쟁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그 이득은 더욱 커질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물 한 방울의 이 예사롭지 않은 가치, 그리고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참여하고 싶다면, 만다라 색칠하기 등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자료가 있는 세계 물의 날 웹사이트 자료실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sup>2</sup> 세계 물의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1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2023/12/wwd2024\\_en\\_factsheet.pdf](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2023/12/wwd2024_en_factsheet.pdf)  
 2 <https://www.un.org/en/observances/water-day/resources>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며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기념일 달력! '세계 물의 날'을 주제로 일러스트를 그린 아콘찌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물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어요.

— 안녕하세요, 아콘찌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 아콘찌입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 속 캐릭터 '아콘찌즈'의 행복한 모습들을 따뜻한 색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 세계 물의 날을 표현한 이번 작품의 콘셉트가 궁금해요.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주제로 제가 가진 깨끗하고 맑은 색감을 자연 배경과 물방울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투명한 물이 흐르는 자연 속에서 천진난만한 아콘찌즈의 모습을 통해 보시는 분들이 물 부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려 보았어요.

—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알록달록한 색감을 아트웍에 맘껏 표현한 만큼, 그림에서 청량하고 깨끗한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이번 세계 기념일이 작가님께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는지요?

세계 물의 날 아트웍을 담당하고 기념일에 대해 찾아보면서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물을 낭비했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자연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일 뿐 아니라 에너지, 일자리, 기후변화와도 관계가 깊어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물을 통한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념해 함께 하고 싶은 행동한 가지가 있다면 제안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매일 3번의 양치를 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

## 잔나비시가 부릅니다, 비비의 밤양갱



유튜브 화면 캡처 / 출처: www.youtube.com/@aidijei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의 음성(목소리)을 학습한 시로 만든 '밤양갱' 커버곡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팬팬들이 듣기엔 인공지능과 최정훈의 진짜 보컬은 감히 비교가 되지 않지만!

'비비-밤양갱' 트렌드는 지나가고 있지만, AI 커버곡(원곡을 따라 부른 노래), 그리고 시를 활용한 작곡 등의 이슈는 여전히 뜨거워요. 지난 4월 초, 전남도교육청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박람회 주제곡 공모전에서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만든 노래가 1위로 뽑히기도 했어요.<sup>1</sup> 이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창작물과 공존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생성형 AI는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AI 기술로, 명령어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형식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 낼 수 있어요. 챗GPT를 통해 논문 등 글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까지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이죠. 키워드만 넣어도 도쿄 도심 속을 걷는 여성의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달리(DALL-E)나 미드저니(Midjourney), 노벨 AI(NovelAI) 등 AI 이미지 생성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고풍 '풍'의 그림을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어요.<sup>2</sup>

아직 시를 통해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저작권 표기와 관련해 정해진 규칙이나 법은 없어요. 때문에 4월 3일 빌리 아일리시 등이 속해있는 예술가권리연합(The Artist Rights Alliance)은 "전문 예술가의 목소리와 초상을 도용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AI의 약탈적 공격

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죠.<sup>3</sup>

인공지능 시대, 어디까지가 예술일까요? 예술은 어떻게 인간을 연결할 수 있고, 이 속에서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존중될 수 있을까요?

유네스코는 문화와 예술분야의 교육, 그리고 AI에 관한 윤리 의제를 논의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제기구예요. 지난 2021년에는 'AI 윤리 권고'를 채택하여 AI 윤리에 대한 최초의 세계적 표준을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올해, 유엔은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첫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소식이예요.<sup>4</sup>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기술을 '규제'는 어렵지 겨우 겨우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있는 AI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제사회 차원의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유네스코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일이기도 한 오늘(4월 15일)을 '세계 예술의 날(World Art Day)'로 지정했는데요. 예술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창의성, 혁신, 문화적 다양성을 키우고 지식을 공유하며 호기심과 대화를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접근성, 포용성, 평등이 보장되는 예술,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예술을 위해 유네스코는 앞으로도 노력할 거예요. 세계 예술의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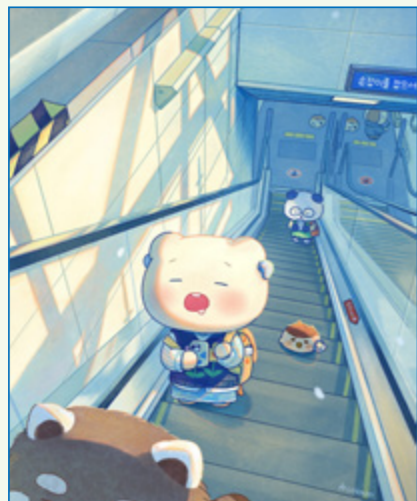


면 매일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약한 물은 연간 나무 2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오늘부터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양치컵으로 양치하기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작가님 인스타그램에 다른 작품들도 소개돼 있는데요, 그 중 두어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뽕뽕 여름시작  
아콘씨의 여름 최대 음식은 수박과 슬러시입니다!



출근길은 언제나 졸림 가득  
지금 혹시 이 모습이 이 뉴스레터를 읽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요?

가장 가까운 계획은 아콘씨의 첫 컬러링북 출간 소식입니다. 첫 출판만큼 열심히 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출간될 <아콘씨의 포근한 마을 컬러링북>을 기대해 주세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 축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캘린더 아티스트로 참여하여 뜻깊은 메시지를 유네스코와 함께 전달할 수 있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며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기념일 달력! 4월 달력의 일러스트를 '세계 예술의 날'을 주제로 꾸며주신 하이퍼펜션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예술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어요.

— 안녕하세요, 하이퍼펜션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하이퍼펜션이라고 합니다. 하이퍼펜션은 '지구는 생명체들이 묵고 있는 거대한 펜션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오래 전부터 지구와 동물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제로 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 이번 세계 기념일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길 원하셨는지, 또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작업에 처음 착수했을 때는 기념일마다 지정된 상징색을 작업에 꼭 사용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어요.

세계 예술의 날의 상징색으로 지정된 와인색은 평소 자주 사용하던 색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와인이 예술과 닮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풍미가 더해지기도 하고,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낯선 색깔을 사용해 보면서 뽀아나온 이런저런 상념들을 즐기며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예술 하면 떠오르는 사람과 오브젝트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한 이번 '세계 예술의 날' 작품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고 '하이퍼펜션'에 대해 더 궁금해할 대중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범우주 공공 사인보드 시스템

만일 우주에 지구의 것을 아득히 초월하는 문명권이 있다면, 그 문명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있다면 어떤 표지판들을 사용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지구에 있는 '낙석주의' 표지판처럼 우주에는 '블랙홀 주의' 표지판이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보다 훨씬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 이미 우릴 지켜보고 있다면, 아마 아직 갈 길이 먼 지구 같은 행성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우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을 작업으로 펼쳐 보았습니다.

— 혹시 세계 예술의 날을 기념해 특별히 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까요?

올해 예술의 날은 평일이네요! 조금 심심한 답변이 되겠지만, 그냥 평소처럼 보낼 것 같아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버터 커피를 만들고, 연필을 깎고—이 단계에서 커피 향과 연필 깎은 먼의 나무 향을 들이신답니다!—일기를 쓰고, 외국어와 자연사 공부하며 오전을 보내고 있습니다.이런 행위가 제 '무의식의 바다' 속을 헤엄치고 있을 작업의 재료들을 가꾸는 활동이라 여기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그 바다에 그물을 내려 신선한 물고기들을 끌어다 올릴 수 있도록, 예술의 날에도 그런 마음 가꾸기를 빼먹지 않을 거예요.

— 올해 《고고독서평설》, 《1페이지로 시작하는 세계사 수업》 등의 일러스트도 작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정 작품이나 역사의 한 순간처럼 그려야 할 명확한 소재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세계 기념일 일러스트처럼 주제만 주어지고 나머지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워야 할 경우도 있는데, 작가로서 더 잘 맞는 작업이 있을까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재밌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언제나 창작의 즐거움이 단점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고르자면 최근에는 <독서평설>처럼 이야기를 이미지로 번역하는 작업에 빠져 있어요.



— 젊은 아티스트로서 날개를 펼치고 계신 하이퍼펜션 작가님의 10년, 20년 후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길 원하시나요? 향후 목표나 계획도 궁금해요.

오래된 생각인데, 제가 가지고 있거나 가꾸고 있는 자질과 자원들이 '일'이라는 전쟁터에서 저를 지킬 무기처럼 느껴지곤 해요. 십 년, 이십 년 뒤에는 이곳을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로 여기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스튜디오의 형태를 갖추고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TM'인데요, 노년기에는 보호구역 같은 곳에서 야생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 동물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은 동물들에 대한 애정을 작업으로만 표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직접적으로 동물들을 위해 사용해 보고 싶어요.

— 달리, 미드저니 등 인공지능이 사람의 창의적인 영역을 점점 더 침범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예술가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공지능이 이미지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당연해지더라도 인간이 만드는 창작물과 성격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품 외적으로 해석을 확장하는 것도 창작물 감상의 묘미 중 하나잖아

## SNS를 뒤덮은 ‘크루키’! 그런데 이거, 다양성 맞아..?



명동에도 크루키 맛집이 생겼다 @seoul\_pastry

여러분, ‘크루키’ 드셔보셨나요? 저는 며칠 전에 저희 회사 인턴분들과 함

께 사먹어보았어요! 트렌드에 민감한 분이라면 이미 ‘대세’로 자리잡은 크루키를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이건 또 뭐?’ 하며 머리를 긁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크루키는 크루아상을 반으로 잘라 그 안에 버터 초콜릿 칩 쿠키를 채운 독특한 디저트인데요. 요즘 이 디지털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고 해요. 크루아상이 ‘겉바속촉’(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의 매력을 갖고 있다면, 크루키는 ‘겉바속쫄’(겉은 바삭, 속은 쫄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크루키를 맛있게 먹었다는 ‘인증샷’이 요즘 SNS를 가득 채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한 순간에 특정 음식이 트렌드가 되어 식문화의 주류로 떠오르고, 같은 음식 사진을 너도나도 올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을 바라보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디지털 세계가 문화적 동질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주류가 된 문화가 다양한 소수의 문화를 (의도치 않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디지털 세계는 잊힌 문화를 재해석하고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한동안 차례상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국 전통 간식인 약과가 어느날 갑자기 트렌드가 되었던 것처럼요. 그러니 오늘날의 디지털 세계가 그저 문화를 획일화시킨다거나, 반대로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거예요. 결국, 한 문화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으면 거기서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고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요? 새로운 문화를 많이 접하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나만의 잣대로 평가절하하는 대신, 서로 다른 관점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다른 문화에 대한 열사와 탄압을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한 홀로코스트가 벌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의 과오를 인류가 통절히 반성하면서 설립된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을 세계적인 의제로 만드는 데 앞장서 온 기구예요.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와 이해, 나아가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다양성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유네스코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일명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할 수 있었고, 나아가 소수 문화 보호와 불평등 감소, 디지털 세상에서 예술가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소득 분배 등을 담은 공공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문화정책의 (재)구성」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어요. 또한 5월 21일, 오늘을 ‘대화과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지지를 확산하는 데도 힘쓰고 있어요.

“모든 (토착) 문화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다른 세계입니다.”

Each Culture is a world to be discovered.

이것은 유네스코 친선대사이며,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로마》에 출연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멕시코 배우 알리차 아파리시오(Yalitza Aparicio)가 한 말이에요. 다양한 축제와 휴일이 있고,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5월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여행을 하면서, 또한 크고 작은 축제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다양한 시각을 주의깊게 들여다 본 우리 유네스코 패밀리라면 아파리시오 대사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5월의 들꽃처럼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즐거움, 이를 통해 나의 세상이 한뼘 더 확장되는 희열을 맛보는 즐거움을 5월 21일 문화다양성의 날에는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요? 작가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그것이 창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작품을 관통하는 아이디어는 언제부터 쌓아 왔으며 구체적으로 깎아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인지, 작품의 이 캐릭터는 작가가 어느 시절에 만난 누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는지, 이런 궁금증을 품고 해소하는 게 저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학습할 수는 있겠지만,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보니까 이런 재미를 느끼며 인공지능의 작업물을 감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격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요즘, ‘세계 평화’라는 가치가 더 무겁게 다가와요. 뜻깊은 활동이 이 땅에서도 70년이나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 1 [https://youtu.be/1e\\_sL6Qje5A?si=9lOxyYxxZuhWPuor](https://youtu.be/1e_sL6Qje5A?si=9lOxyYxxZuhWPuor)
- 2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2/17/VYF5NZLIKBDZF14CDQWZQDZMA/](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2/17/VYF5NZLIKBDZF14CDQWZQDZMA/)
- 3 <https://zdnet.co.kr/view/?no=20240407134049>
- 4 <https://news.un.org/en/story/2024/03/1147831>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며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기념일 달력! 5월 달력의 일러스트를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주제로 꾸며주시는 이지몬스터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몬스터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제 본명이 '이지'고, 따라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이지몬'이어서 '이지몬스터'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포켓몬스터' 처럼요. 그림을 기반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 이번 세계 기념일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길 원하셨는지, 또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특정 전통이나 문화, 그리고 인종을 구분해 표현하는 것이 편견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서 현 시

대의 문화와 그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보편적인 인종과 전통적인 의상을 먼저 그리고, 모두가 이를 환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여행도 무척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여행지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기억이 이번 작품 속 오브제에도 반영이 됐을까요?

여러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도시 위주로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의 차이를 크게 느껴보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상상력과 구글 검색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완성했어요.

—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올린 여행 드로잉 클래스 소개글에서 “오랫동안 여행의 기억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보다는 드로잉을 남기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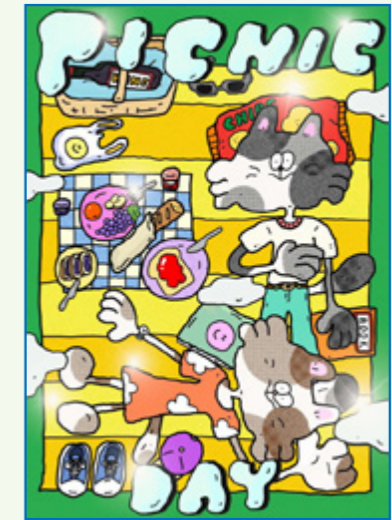
좋아한다는 부분이 정말 멋진 표현이라 느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그림치'도 그런 드로잉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클래스를 들으면 답이 있겠지만(!) 처음에 어떤 마인드로 시작해 보면 좋을지 살짝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그림치'라는 게 정말 있거나 한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즐거운 게 바로 그림이거든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저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다 보면 기록도 되고 추억도 쌓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바로 그림입니다.

— 문화다양성의 날은 다양한 문화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 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날이에요. 혹시 작가님께서 이 날을 기념해 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까요?

문화 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말이겠네요. 그럼 이 날엔 서로 간의 이해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예컨대 나쁜 인종차별주의자들을 혼내줘야 할까요? (농담입니다) 음, 한국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취향이 아니라고 무조건 싫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체험해보고 자신의 취향으로 평가도 해 보고요.

— 이번 캘린더를 통해 '이지몬스터'라는 작가에게 흥미를 갖게 된 독자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피크닉데이  
그냥 요즘 날도 따뜻해지고 소풍가기 좋아서, 제 작품 중에 '피크닉데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 3D 드로잉, 애니메이션 등 본인만의 분야를 개척해나가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로서 날개를 펼치고 계신 이지몬스터 작가님의 10년, 20년 후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길 원하시나요? 향후 목표나 계획도 궁금해요.

10년, 20년 후에 무엇보다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미래의 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늙은 사람'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딱히 없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뭐든 오래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이팅!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 플라스틱의 재사용사용



더운 여름, 내가 준비해 간 텀블러에 받아 마시는 커피는 어쩐지 더 시원한 느낌!

혹시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 오늘 하루를 커피와 함께 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컵은 어떤 걸 쓰셨나요? 요즘은 카페에서도 커피를 주문하면서 자가 가져 온 컵을 내미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 오늘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손님들의 마음씨가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일회용 컵과 빨대부터 전자기기와 화장품,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없이 오늘날의 우리 하루를 상상하기는 힘들어요. 누가 뭐래도 플라스틱은 편리한 우리 생활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도, 북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심해에도 썩지 않고 쌓여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플라스틱, 재활용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산되는 플라스틱 중 9%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를 솔깃하게 하는 바이오플라스틱도 답이 될 순 없어요.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나 큰 메탄가스가 상당량 배출되기 때문이죠. 플라스틱을 생산·활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5%를 차

지한다고 해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환적 접근(Circular approach)'이에요. 플라스틱을 안 쓸 수는 없으나,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제품의 디자인과 질을 개선해 더욱 쉽게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분해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소비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그런 순환 구조를 마련하도록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해요. 이런 순환적 접근이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을 가능케 할 핵심이기도 한데요. 마침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한 순환을 염두에 둔 '땅의 복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의 대지, 우리의 미래, 우리는 '복원의 세대'(Our land. Our future. We are #GenerationRestoration)"라는 주제 하에 이날 세계 곳곳에서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고, 유네스코 역시 함께할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인간과 생물권 사업(Man and Biosphere, MAB)'에서부터 우리 문명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생태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유네스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세계 환경의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 PIME ASIA NEWS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며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기념일 달력! 6월 달력의 일러스트를 '세계 환경의 날'을 주제로 꾸며주신 돈오버핑크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환경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어요.

### — 안녕하세요, 돈오버핑크 작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치한 컬러 팔레트로 작품에 즐거움과 경쾌함을 그리는 작가 돈오버핑크입니다. 단순하면서 선명한 선과 색상을 통해 간결하고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 — 이번 세계 기념일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길 원하셨는지, 또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이번 작품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며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주변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을 보여주려 했어요. 자전거 타기, 나무와 꽃 심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

동을 표현한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길 원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라면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아야 할까?'를 구체화하는 것이었고, 저는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환경 보호에 힘썼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 마인드맵과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달력의 배경 톤이 평소 시도하지 않았던 채도가 낮은 그린 컬러였던 것도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배경의 채도가 낮았기에 오히려 중심 일러스트들의 컬러가 풍부하게 살아나고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 핑크색을 중심으로 초록, 빨강, 파랑 등 원색을 작품에 즐겨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 환경의 날과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작품 역시 초록색 배경에 동등 떠다니는 구름과 꽃들, 한편의 엽서같은 그림이 인상적이었어요. 작품 왼쪽 상단의



우표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했는데, 작품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마치 엽서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진심을 글이 아닌 일러스트로 담아 보내는 엽서였지요. 우표는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 놓는 액자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표를 통해 우리가 간직하고 보호해야 할 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 작가님의 다른 작품 중에 ‘한강 피크닉 매트’도 정말 좋았어요! 한강이야말로 삭막한 대도시인 서울을 살 만하게 만들어 주는 데 핵심적인 환경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한강을 즐겨 찾으시나요? 한강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한강 피크닉 매트

한강 노들섬을 정말 좋아합니다!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놓은 곳이라 너무 재밌거든요. 낮에는 맑은 하늘과 청량한 한강을 배경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을 바라보며 피크닉을 할 수 있고요, 저녁엔 주

황빛으로 물드는 일몰과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일렁이는 한강을 볼 수 있어 참 좋아합니다. 그런 평온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을 일러스트로 자주 남기려 했던 것 같아요.

— 유엔은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면서 환경 보호와 건강이 우리 모두의 안녕과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혹시 작가님께서 이날을 기념해 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까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플로깅을 해 본다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순환을 돕는다는 이런 작은 실천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 작년 11월에는 세븐틴의 11번째 미니앨범인 SEVENTEENTH HEAVEN 발매를 맞이해 세븐틴 스트리트 벽화 작업을 하셨던데요. 세븐틴은 유네스코와 함께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교육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해요! 지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으로서, 작가님이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환경을 위해 행하는 작은 실천들이 낫설지 않은 미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행해지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내 주변, 내 가족이 사는 환경이 지금보다 더 건강한 미래였으면 합니다.

— 분명한 선과 선명한 색깔, 사람과 자연을 중심에 놓은 작가님의 그림들은 보고만 있어도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돈오버핑크 작가님의 10년, 20년 후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길 원하시나요? 향후 목표나 계획도 궁금해요.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꾸준히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느낀 긍정적인 영감과 메시지를 담은 일러스트를 한 데 모아 책이나 짧은 비디오 필름으로 제작하여 저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기도 해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 축하 한마디해주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7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었고,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우리 옆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함께 기억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있어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유네스코가 실천하는 캠페인이나 관련 활동들에 더 관심을 갖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세븐틴 스트리트 벽화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 × 굼쥐 작가

# ‘삼둥이’ 가족도, 비혼족도,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



tvN '유퀴즈'에 출연한 송일국 배우와 삼둥이 © tvN

얼마 전 인기 방송프로그램 '유퀴즈'에 오랜만에 '슈돌'의 삼둥이들과 송일국 배우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대한, 민국, 만세 형제가 어느새 훌쩍 자란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입이 찢어질 듯 웃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송일국 배우의 인터뷰였어요.

송일국 배우는 2016년 이후 오랫동안 작품 제의가 없었던 시기를 돌아보며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저에게 투자할 시간이 적기도 했고, 배우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니 캐스팅이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일보다 가족이 우선'인 사람이라며 본인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세쌍둥이를 키우며 3배로 힘들었을 수 있지만, 행복은 늘 **세제곱**이었다고 했습니다.



tvN '유퀴즈' 유튜브 화면 캡처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정말 기적같은 일이지만, 어떨 땐 그게 내 인생을 걸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많아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랑스런 삼둥이들과 송일국 배우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되기로 마음 먹는 것은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하나 더 만들어가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되는 삶도, 그렇지 않은 삶도 모두 다 축복받아 마땅해요. 그 선택들이 온전히 '나'의 선택이 될 때,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선택을 통해 내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행복해지고, 축복받았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개인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사회도 보다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했던 그날을 기려 유엔은 '세계 인구의 날'을 제정했어요. 그때만 해도 너무 빨리 늘어나는 인구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걱정하고 있어요. 정부도 지금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매력적인 공공시설 48곳을 예식 장소로 신규 개방하는가 하면, 신혼부부에게 월세가 3만원인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나선 지자체도 있어요.

이런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를 '행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해요.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변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임을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공존, 관계, 행복, 돌봄, 포용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

의 지속가능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모색해 보자는 뜻인데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세바시'와 함께 하는 유네스코 토크에서 나눠 볼 예정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시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놀러오세요! 세계 인구

의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 70GETHER 캘린더 세계 기념일 작품 작가 인터뷰 - 굼쥐 @goomouse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며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기념일 달력! 7월 달력의 일러스트를 '세계 인구의 날'을 주제로 꾸며주신 굼쥐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오늘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어요.

— 안녕하세요, 굼쥐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름의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굼쥐라는 이름으로 만화와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 김성한입니다. 굼쥐라는 이름은 굼뜩 생쥐의 줄임말입니다! 생쥐라는 동물은 비록 몸집은 작지만 세상 여기저기를 탐험하는 용기도, 쥐구멍에 숨어버리는 겁쟁이같은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굼

보이고 미숙해도 천천히 나아가자는 의미를 더해 대학생 시절에 지었던 작가 필명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라이브 드로잉을 하는 작가 굼쥐

— 이번 세계 기념일 작품은 서로 다른 동물 가족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길

원하셨는지, 작품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작품에서는 세계 인구의 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동물 종류로 다양한 형태의 문화권과 국가를 표현했어요. 각각의 동물들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자신들의 공간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각 문화권과 국가에서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인구문제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인구문제는 전 세계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여 전체적으로 도형적인 프레임 안에 동물들을 배치하면서 사이의 틈을 언뜻 미로처럼 보이게 의도하였고, 오른쪽 상단에는 생쥐 캐릭터 '곰쥐'를 배치했어요. 하단에는 각기 다른 가족사진을 담은 액자들로 구성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부각하면서 한 가지 형태의 이상적인 가족상이 배치되는 것을 지양하려 노력했습니다.

— 작가님의 다른 작품에도 귀여운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번 캘린더를 통해 '곰쥐'라는 작가에게 흥미를 갖게 된 독자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날이 무더워져서 그런지 빙수가 많이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마침 빙수를 주제로 그린 작품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다양성만화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 <감파란 섬>을 준비 중이라 하셨는데요. 곰꾸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고 해서 더욱 공감이 되기도 해요. 작품을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파란 섬은 제가 2022년부터 준비중인 저의 첫 장편만화입니다. 현재 출판 레이블 쪽프레스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검고 푸른 가상의 섬에서 펼쳐지는 심심고양이의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꿈의 아직은 어렴풋한 상태에 대한 불안과 긴장에 휩싸인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저 또한 소중한 20대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으면서 지금이야말로 할 수 있는, 저를 닮은 곰꾸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 합니다. 감파란 섬은 올해 쪽프레스의 goat에서 출간 예정입니다!

— '곰꾸는 이'를 그리는 곰쥐 작가님의 꿈도 궁금해요. 10년, 20년 후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길 원하시나요? 향후 목표나 계획도 궁금해요.

곰쥐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건 '굿즈'라고 불리는 문구류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잘 알아보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스스로 창작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굿즈를 만드는 것 또한 재밌는 일이지만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과 가치를 느끼는 일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려나가는 것에 치중하려 합니다. 작품을 만드는 데 어떤 정해진 형식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으로선 만화 작업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려 해요. 이제는 곰쥐와 제 자신을 분리해서 방향성에 차이를 두려 합니다. 본명인 김성한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지속하

고, 한 편으로 곰쥐를 통해 소소하게 재밌는 굿즈도 만들고요. 이런 일을 지속하면서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때까지는 개인 작업만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런 작업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른 작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팀의 형태로 재밌는 프로젝트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첫 장편 만화책 작업을 마무리하면 적극적으로 그간 해 보지 못했던 이런저런 활동을 시도해 보려 합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70주년 축하드립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진행한 70gether 캘린더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유네스코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제와 가치들을 기억하면서 저 또한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JTBC 토일드라마 '낮과 밤 이 다른 그녀' 포스터  
© JTBC



요즘 '낮과 밤이 다른 그녀'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어요. 무려 8년간 직장을 찾지 못한 불운의 취준생 주인공이 어떤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폭삭 늙어버리게 되고, 하루를

반으로 나눠 낮에는 50대, 밤에는 20대로 살아가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미스터리와 로맨틱코미디 장르도 곁들인)

경험치와 능력을 두루 갖춘 50대 버전의 주인공은 '시니어 인턴'으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시험 전날만 되면 터지는 스트레스성 잠염, 위경련 등으로 고생을 했던 주인공은 회사에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행복해 해요. 그 모습에 제 과거가 비추어 보이기도 했고, 불안과 허탈감에 시달린 그 청년이 가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의 50대 자아는 20대의 자아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데, 그 위로를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조금만 더 아껴주자고. 그리고 지금 너 자체로 사랑스럽다고.

모두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픈 오늘은 세계 청년의 날이에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통계상 분류를 위해 유엔은 청년을 15-24세 사이의 사람들로 정의해요. 하지만 청년의 경험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청년을 유동적인 범주로 간주하고 있어요. 결국 절대적인 나이보다는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빠르게, 예민하게, 재밌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붙는 수식어는 정말 많아요. 주로 '미래'와 연결되고요. 유엔은 이러한 청년을 평화 구축을 위한 전지구적 여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며 8월 12일을 세계 청년의 날로 정했어요. 2024년 청년의 날 주제는 'From Clicks to Progress(클릭에서 진전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는 걸 강조해요. 디지털화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고,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바로 이런 디지털 혁신 역할을 해주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유네스코 역시 청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년들과 함께 일하며, 청년들이 사회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평화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전 세계 청년의 절반만이 정신적 안녕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학-문화유산보존-인권 등 분야에서 청년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기후변화의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에서는 100여 명의 청년들을 초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공정책에 기여할 장을 만들었어요.<sup>2</sup>

청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 청년들이 미래의 과제를 몽땅 떠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모두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건강하게 생각하고, 그런 청년들의 행동에 더 무게가 실리길 바라는 것이에요. '이제 와서 뭐 해'의 냉소가 아닌, 나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가 늘 청년들과 함께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김창완 아저씨의 말을 빌리자면 '아무리 먼 미래도 어제만큼 멀지는 않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는 청년이 아닌-혹은 마음만은 여전히 청년인!-기성세대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바로 '여러분의 어제'였던 청년들을 조금 더 믿어달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응원해 주세요! 세계 청년의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1 [https://social.desa.un.org/Issues/Youth/events/international-youth-day-2024?\\_gl=1\\*1f1q10q2\\*\\_ga\\*NDg0MzIzNjcyLjE3MTA3NjE4ODA.\\*\\_ga\\_TK9BQL5X7Z\\*MTcyMzA0MzQwOS45LjAuMTcyMzA0MzQxMC4wLjAuMA..](https://social.desa.un.org/Issues/Youth/events/international-youth-day-2024?_gl=1*1f1q10q2*_ga*NDg0MzIzNjcyLjE3MTA3NjE4ODA.*_ga_TK9BQL5X7Z*MTcyMzA0MzQwOS45LjAuMTcyMzA0MzQxMC4wLjAuMA..)  
2 <https://www.unesco.org/en/youth/forum?hub=66608>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며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만든 세계 기념일 달력! 8월 달력의 일러스트를 '세계 청년의 날'을 주제로 꾸며 주신 크리티컬 프렌즈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오늘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어요.

— '크리티컬 프렌즈'라는 흥미로운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필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독자들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꿈찾아 사랑찾아 행복찾아"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크리티컬프렌즈, 이정우입니다. 다른 캐릭터들보다 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친구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다짐을 담아 크리티컬프렌즈라는 필명을 쓰고 있어요. 그림을 통해 제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슬로건화하여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일러스트페어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중인 작가 크리티컬프렌즈

— 작품에서 불꽃 모양을 한 '초초'라는 캐릭터가 돋보여요. 불꽃과도 같은 청년의 에너지가 상상되기도 하는데, '초초'는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세계 기념일 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초초는 '교대역 풋볼 하나' 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노래 한 곡으로 모두 하나가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영상을 보며 잔잔한 위로를 받는다는 댓글과 영상 속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떠올리게 됐어요. 제가 만든 캐릭터도 지친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주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초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계 기념일 작품을 만들면서 다양한 모습의 초초들을 통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청년들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 유엔은 8월 12일을 세계 청년의 날로 지정하여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전세계의 중요한 변화에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게 만들고자 했어요. 청년으로서

# 나의 언어, 너의 언어, 우리의 마음

누구나 한번쯤 다른 언어에 매료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 들리는 낯선 말들, 번역본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 조금 어렵지만 원문으로 정독한 소설책. 언어를 통해 새롭게 알게되는 세계는 정말 흥미롭고 신기해요. 언어를 통해 다른 문화, 다른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게 곧 내 일부가 되기도 해요.

문해(文解)란 무엇일까요?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문해력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며, 사회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적인 학습 역량을 의미해요. 즉, 문해력을 갖춘다는 것은 타인의 인권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해야말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이유이지요.

### 어쩔 수 없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인권이기도 한 이 문해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내 어머니와 내가 태어난 곳에서 쓰던 나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약 7,000개의 생활 언어가 200여 개 국가에 분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세계 인구의 약 40%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언어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이 10명 중 8명이 모어(母語: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익힌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학습하고 있어요.

다국어 사용이 증가한 데는 세계화, 디지털화, 사람들의 이동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어에 대한 문해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는 그들의 문해력, 즉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언어의 다양성이 훼손되면 문화적 다양성도 훼손될뿐 아니라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 의식적, 문화적 위계를 만들어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9월 8일, 세계 문해의 날을 맞아 올해 주제를 '다언어 교육 증진: 상호 이해와 평화를 위한 문해'로 정했어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다언어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문해력 교육에 있어 모어 기반의 다언어 접근법을 통해 사람들의 문해력을 강화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자 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어떻게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할 수 있는지,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9월 9-10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세계 문해의 날 기념 글로벌 컨퍼런스를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자리에선 유네스코가 세계 문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람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식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 문해의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그래도 퇴근은 해야지

— 아티스트로서 활동한 계기가 정말 궁금해요. 10년 후, 20년 후까지 앞으로의 목표도요.

2013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한 '마이클 라우의 아트토이 전'을 보고 '저 작가처럼 자신만의 캐릭터들을 바탕으로 전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의 작가생활을 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10년, 20년 뒤에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 축하 한마디해주세요!

70주년 너무 축하드려요! 이번에 운이 좋아서 70주년 이벤트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는데 80주년, 90주년, 100주년 때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려요!! 항상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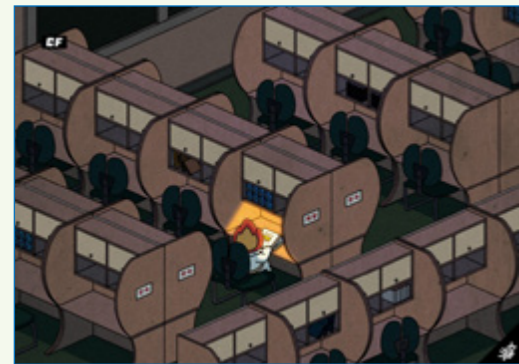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혹시 이날을 기념해 하고 싶은 일이나 행동이 있을까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저는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다음에 하지 뭐...' 하며 다음으로 넘겼던 것들을 도전해 보려 해요. 짧은 시간만이라도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 속에 저를 밀어넣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 결과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시도했다는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네요.

— 다른 작품들을 보면 한편의 영화나 페스티벌 포스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재치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그림이 눈에 확 띄는데요! 보통 이런 재밌는 영감은 어디서 받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번 캘린더를 통해 '크리티컬 프렌즈'라는 작가에게 흥미를 갖게 된 독자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 한두 개만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독서실 그림'은 운이 좋게도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됐던 그림이고, '그래도 퇴근은 해야지'는 행사 때 많은 분들께 호응을 받은 그림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독서실 그림

1 <https://webcast.unesco.org/events/2024-09-ILD/>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며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만든 세계 기념일 달력! 9월 달력의 일러스트를 '세계 문해의 날'을 주제로 꾸며주신 윤다솜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오늘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윤다솜입니다. 빨간 고양이 'Crimson Cat'을 주인공으로 다채로운 원색과 유동적인 선을 섞어 과감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패키지, 벽화, 전시,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번 세계기념일 작품은 책가도(冊架圖; 책과 도자기, 문방구 등을 그린 조선시대 민화의 한 종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색감부터 책을 읽는 캐릭터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재미가 충만했어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길 원했는지, 작품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계 문해의 날에 시상되는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과 문해력이라는 주제가 잘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문(文)을 중시하는 문치정치의 표상과 같은 그림인 책가도를 활용했습니다. 책장 안에 책과 더불어 문해력과 관련된 소재인 세종대왕, 한글, 책 읽는 사람, 공부하는 손 등을 배치해 주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저는 유네스코에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것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림을 보는 분들에게도 이를 알리고 함께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자료 조사와 기획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어렵지 않았는데, 메인 컬러로 지정돼 있는 '버건디 레드'가 평소에 잘 사용하던 색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조화로운 컬러칩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 세계 문해의 날을 맞이해서 책을 한번 읽어볼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최근 인상깊게 읽었거나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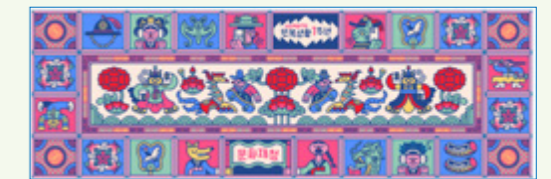
작년부터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책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롤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류학자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일생과 저자의 이야기가 번갈아가며 등장하는데요. 이야기가 점차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드러나고 제목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촘촘한 구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 책은 과학 에세이와 소설이 복합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추리 소설을 뛰어넘는 반전과 쾌감을 주는 작품이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술 피리』(시공사)의 표지 작업을 맡으면서 찬호 께이 작가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의 다른 작품인 『13.67』도 최근에 읽어보았는데 홍콩 드라마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 문해(literacy)는 단순히 글을 안다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지식, 기술, 가치, 태도, 행동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아우르는 말인데, 형태는 다르지만 그림 역시 그러한 새로운 지식 또는 세상과 접하는 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님께 문해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9월 8일 세계 문해의 날을 기념해 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뭔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지 내면의 세계를 파헤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

가 본 세상 밖에서 그림을 봐주시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세상을 한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외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만약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무심했을 세상의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 매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림과 문해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림은 문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던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9월 8일 세계 문해의 날에는 개운하게 씻은 뒤, 커피와 디저트를 준비해놓고 고양이들과 편한 의자에 앉아서 버리고 있었던 구병모 작가의 『파과』라는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 여러 작품에서 다채로운 색과 유동적인 선을 과감하게 섞은 일러스트가 돋보여요. 이번 캘린더를 통해 '윤다솜'이라는 작가에게 흥미를 갖게 된 독자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다른 작품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문화재청\_한복생활

우선 첫번째로 한복 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주년을 맞이해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했던 기념 일러스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한국적인 소재를 제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는 조선시대 인문보자기 형태에서 영감을 받고 그 틀 안에 한복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넣어 보았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현대 문물과 한복이 어우러진다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더 익

# 무한반복 아-파트, 즐길 땐 즐기더라도!



로제&브루노마스-APT.' 뮤직비디오. 유튜브 캡처

## "아-파트 아파트"

발매 5일만에 유튜브 1억뷰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노래, '아파트(APT)'를 들어보셨나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이 노래의 중독성 강한 후렴구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면서 SNS를 통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후렴구에 맞춰 챌린지를 하는 영상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핫'한 것, 유행을 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노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최신 소식. 여러분은 이런 정보를 보통 어디서 얻으시나요?

아무래도 신문, TV, 라디오, 케이블 방송 등 '올드 미디어'보다는 SNS, 팟캐스트, 블로그, OTT서비스 등 '뉴 미디어'를 통해 이런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오늘날엔 훨씬 많아졌어요. 디지털 기술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 덕에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어 이를 유통시키게 되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이를 소비하는 사람 간의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뉴미디어 환경은 우리에게 '정보 부족'이 아닌, '정보 과잉' 혹은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고민을 점점 더 많이 안겨주고 있어요.

###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란 오늘날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데요. 더 자세히 말하면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를 더 잘 검색하고,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사용하고, 기여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식·기술·태도·가치를 갖추는 것을 뜻해요. 단순히 글이나 영상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중에서 진실되고 정확하고 윤리적이며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려내는 능력. 이 능력을 갖출 때 우리는 상호 소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성평등, 다양성, 평화, 지속가능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선호하는 것을 알고리즘이 골라 피드에 올려주는 소식을 훑어보는 것이 트렌드를 따라가기에 쉽고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하기도 좋은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런 콘텐츠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하기에 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서 실어나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요.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 덕에 콘텐츠를 만들기는 더욱 쉬워졌고, 그만큼 허위 정보가 쏟아지는 빈도도 잦아지고 있는 요즘,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주간'을 맞아 유네스코가 마련한 여러 행사들을 보면 내가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습득한 정보가 어디서 온 건지 한번쯤 고민해 보게 될 거예요. 즐길 때는 즐기더라도,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을 더 현명하게 이용하고 그 뒤에 있는 진실성을 한번 더 고민해 보기, 어때요?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주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1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314450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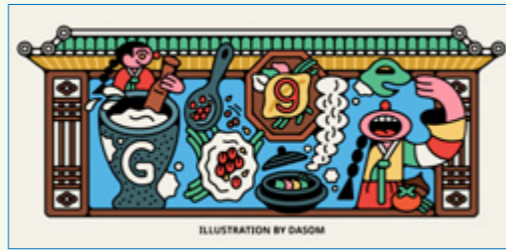
살스러운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작업\_찌끄레기

두번째로 '찌끄레기'는 개인 프로젝트인데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 스스로 이를 타파해 보고자 여러가지 시도를 해본 작품이라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러프스케치는 손으로 그리지만, 그 뒤 작업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툴과 펜툴로 작업하기 때문에 자칫 형태가 딱딱하고 재미없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형태를 찾고 유려하고 흥미로운 선을 사용해 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고 굵은 라인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그림이 어두워지거나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한 그림 안에 사용되는 라인 굵기는 무조건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강박적인 규칙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며 그런 걱정과 압박을 내려놓고, 고민을 해결하게 되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 뉴욕의 한식당부터 일본 잡지, MBC 등 정말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셨던데요. 다른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작가님만의 특색을 입힌 작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콜라보가 있나요?



google doodle\_추석

2022년에 구글과 함께 했던 추석 기념 구글 두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러스트 작업 자체도 재미있었지만 일을 하게 된 과정이 부듯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내가 생각한 구글 두들 그림을 그리고 '제가 이런 주제로 이러한 작업을 했으니 한번 봐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구글 두들에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몇 달 뒤 함께 일하고 싶다고 연락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려면 자기 PR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다보니 의도했던 것만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연결이 된 경우라 특별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본격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전부터 '내 그림이 저기에 있으면 좋겠다' 했던 자리에 제 그림이 들어가고 주변에서도 많이 좋아해 줘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 끝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 축하 한마디해주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는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뜻깊은 시기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흥흥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요즘 같은 세상에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립 7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만든 세계 기념일 달력! 10월 달력의 일러스트를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주간'을 주제로 꾸며주신 헤이캐치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오늘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어요.

— 헤이캐치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번 세계기념일 작품은 만화 속 한 장면처럼 담긴 미디어 속 다양한 이슈를 하나하나 상상해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원했는지, 작품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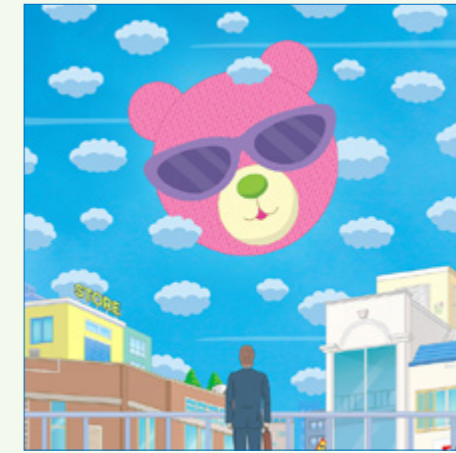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자유와 해방감을 담은 그림을 그리는 헤이캐치입니다. 이번 작품을 그리면서 저는 직관적이면서 동시에 만화 속 장면처럼 재미있게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처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라는 주제를 전달받았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며 어떤 상황들을 그림에 담으면 유쾌하게 전달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각각의 상황들을 그림 곳곳에 배치하며 제작했습니다.

— 디지털 혁신과 함께 매일매일 온갖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오늘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유네스코가 10월에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주년을 기념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작가님께서 주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으시는지, 또 어떻게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가려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또, 이 주년을 함께 기념하면서 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요. 어떤 정보에 관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었을 때 공신력이 있는 발언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져서 단정 짓지 않고 다방면의 관점으로 정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년을 기념하며 어떠한 정보를 접했을 때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들을 가리기 위해 한 번 더 주의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작품들 속에서 늘 일상 속 자유와 일탈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 캘린더를

통해 헤이캐치 작가에게 흥미를 갖게 된 독자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림의 제목은 플로팅 베어입니다. 플로팅 베어는 자유로운 동심을 상징합니다. 자유를 잊고 살던 현대인이 어느 날, 플로팅 베어와 마주하게 된 모습을 담았습니다.

— '자유를 담아 그린다'는 자기 소개가 기억에 남아요. 훌쩍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난다든지, 일상 속에서도 그런 자유를 많이 찾는 편인가요?

일상을 벗어나 훌쩍 떠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시간이 될 땐 즉흥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다만 매번 그러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림을 통해서 스스로 자유를 찾고 있습니다.

— 아티스트 앨범 커버, 카페 포스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님의 10년, 20년 후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길 원하시나요? 향후 목표나 계획도 궁금해요

그림 속 모습처럼 떠나고 싶은 순간 언제든지 소중

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상에 지친 분들에게 제 그림을 통해서 심리적 자유를 선사할 수 있는 작가로 사는게 현재 목표입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70주년을 맞아서 세계기념일을 알리는 뜻깊은 캘린더 제작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위해 힘써 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 개구리도 침팬지도 우리 모두의 룸메이트!

여러분, '개구리 사다리'가 뭔지 아시나요?

개구리가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일 것 같은 이름이긴 한데, 그게 대체 뭐 하는 건지 가우뚱하는 독자가 많을 거예요. 이 개구리 사다리는 지난 2021년에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일대를 둘러보던 홍보팀과 과학팀 일행들이 지역주민들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네스코의 활동을 더욱 재밌게 보여주는 '찾아가는 노잼해명소'를 만들던 저희 일행은 2019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에서 바로 이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어요.<sup>1</sup>

"개구리 사다리요? 그게 뭐가요?"

연천 일대에서 직접 생물종 모니터링을 하하던 주민 한 분은 어리둥절해하는 저희들에게 개구리 사다리란 개구리들이 농수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탈출로라는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인간이 농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농수로는 개구리들에게는 깊고 깊은 콘크리트 절벽이나 마찬가지로, 아무리 점프력이 뛰어난 개구리라도 이곳에 한번 갇히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실제로 이 사다리를 이용해 밖으로 나오는 개구리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주민들이 이처럼 생물



개구리가 사다리를 타고 농수로를 빠져나오는 모습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의 생태 자원을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곳인데요. 산업화와 발전이 강조되던 1970년대에 유네스코는 자연보전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1월 3일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로 지정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취지를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기념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할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 제인 구달

올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을 몇 주 앞둔 지난 10월 19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깊은 인연이 있는 제인 구달 박사가 유네스코에서 연설을 하며 우리에게 던진 날카로운 한 마디예요.<sup>2</sup> 구달 박사의 관찰과 연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침팬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우리 인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끊임 없이 균열을 내 왔어요. 제인 구달 박사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이야말로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손에 있으며, 청년들이 그 길을 앞장서 나갈 것이라는 희망도 전했는데요. 그녀의 말처럼 오늘을 맞아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다가올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남기기 위해서 말이예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기념일 달력! 11월 달력의 일러스트를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을 주제로 꾸며주신 치웃이응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오늘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어요.

— 안녕하세요. 치웃이응 작가님, 독특한 필명을 갖고 계신데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가끔 제 이름의 의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순히 제 이름의 자음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름에 깊은 뜻이나 상징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도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세계기념일 작품 속에서 다양한 생물종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원했는지, 작품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한 배경의 달력보다는 작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담아낸 키비주얼 작업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가 더욱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텍스트들을 작업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일이 가장 어려웠는데,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정을 반복하며,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 작가님의 작품은 늘 동물이 주인공이더라고요. 이번 세계기념일을 그려주시기에 딱 맞는 작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동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어릴 적부터 자주 보며 친숙하게 느꼈던 강아지를 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만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다 좋아합니다. 동물이 주는 따뜻함과 친근함은

언제나 제게 행복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작가님께서 생물관보전지역에 대해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니었다면 작품을 그리기 위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나라 생물관보전지역 10곳(설악산, 제주도, 광릉숲, 신안다도해, 고창, 순천,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 완도, 창녕) 중에서 가 본 지역이 있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만약 없다면 어딜 가장 가보고 싶으신지요.

멸종위기종에 대한 작업을 해오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왔지만, '생물관보전지역'이라는 명칭은 이번 작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생물관보전지역 중에서는 설악산, 제주도, 순천, 창녕을 직접 방문해 보았는데, 각 지역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 덮인 설악산과 소나기가 지나간 후의 순천만은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더해주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아직 가보지 못한 생물관보전지역들을 방문해 그곳의 자연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 이번 캘린더를 통해 치유티어링 작가에게 흥미를 갖게 된 독자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주로 동물과 우리 문화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밤 나들이'라는 작품은 담배를 피우는 호랑이와 시중을 드는 토끼가 등장하는 민화를 보며, 제 상상을 더해 표현한 작업입니다.



'농악' 시리즈에서는 동물들이 흥겹게 농악을 즐기는 모습을 담아, 이를 통해 사람들이 농악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이처럼 전통과 자연을 새롭게 해석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부터, 다양한 공모전에 출품하시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작가님의 근황은 어떠신지, 그리고 작가님의 향후 목표나 계획도 궁금해요.

작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주기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창작의 길에서 고민과 방황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지나며 깊이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작업에 대한 영

감이 찾아오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지금 바로 그런 고민의 과정을 보내고 있지만, 곧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날이 머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 여정이 저에게 또 다른 성장을 가져다줄 것이라 기대하며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문화유산과 자연을 보호하고 알리는 데 기여한 노고와 헌신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주제로 작업하는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켜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문화와 자연을 위한 귀중한 활동을 이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1 [https://youtu.be/0b2o9cHhb\\_Y?si=irT0ZRTCO8VXfr0r](https://youtu.be/0b2o9cHhb_Y?si=irT0ZRTCO8VXfr0r)  
2 [https://youtu.be/\\_qnWuPHJwy4](https://youtu.be/_qnWuPHJwy4)

# Defying Gravity – 누구도 우릴 억누를 순 없어요



영화 '위키드' 포스터 ©유니버설픽처스

최근 개봉한 뮤지컬 영화 '위키드'를 보셨나요? '오즈의 마법사' 이전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초록 마녀의 어린 시절을 통해 편견과 불공평에 맞서는 감동적인 여정을 그려내고 있어요. 특히 클라이막스 부분에 나오는, "누구나 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 'Defying Gravity(중력을 거스르며)'는 정말 강렬하고 깊은 울림을 줘요.

맞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종,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물, 기본적인 교육, 신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까지 각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세상에는 이러한 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바로 이 겨울날 우리가 겪고 있듯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 없이는 언제든 빼앗겨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2024년의 이 겨울날 새삼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sup>1</sup>

'이 기구의 목적은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여 인류의 정의와 법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 유네스코 헌장 제1조의 내용과 같이, 유네스코

도 보편적 인권을 모든 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종차별과 혐오에 맞서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과학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공평하고 윤리적으로 누리게 하고, 모든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이처럼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시민사회 단체는 인권을 바탕으로 둔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여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더 잘 지키고 가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내 권리를 지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까지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청년으로서, 시민으로서, 나아가 '인간'으로서 그 노력을 함께 펼칠 때, '위키드'에 나오는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fly (누구나 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노랫말처럼 우리는 각자의 아름다운 날개를 맘껏 펼치고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 거예요. 인권의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2024년 인권의 날 애니메이션 영상

<sup>1</sup>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24년, KT Y 아티스트와 협업해 제작한 세계 기념일 달력! 그 마지막 장, 12월 달력의 일러스트를 '인권의 날'을 주제로 꾸며주신 권윤빈 작가를 만나 그 작업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오늘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어요.

— 권윤빈 작가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릭터를 상상 속 이야기에 등장시켜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권윤빈'입니다.

— 이번 인권의 날 작품에는 다양한 상징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바라셨나요?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지구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을 통해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면서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각적인 파스텔과 형광톤을 사용한 작품을 통해 독창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드실 때 전반적인 색감과 분위기는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해요.

색감과 분위기를 설정하는 과정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파스텔 톤으로 공간을 채우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형광 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인권'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무겁고 추상적이라 시각화하기에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작품으로 담기 위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가장 큰 고민은 '인권'이라는 주제를 너무 딱딱하고 심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밝은색과 캐릭터를 통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고,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 더 많은 분들

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 이번 캘린더를 통해 권윤빈 작가에게 흥미를 갖게 된 독자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리브타운'이라는 주제로 그린 작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이해의 상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이상적인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인권' 주제와도 비슷하네요. 사랑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LOVE WINS ALL!"

— 작가님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 준비 중인 프로젝트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더 많은 작품을 그려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드로잉을 넘어서 다양한 장르의 그림에도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전해 보고 싶어요.

— 2024년 마지막 장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을 향해 달리는 2024년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업해 주신 소감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성취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정신을 계속 이어주세요.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및 인터뷰 정리 | 최연수 전문관

## 2024 유네스코 뉴스레터 모음집

발행일 2025년 2월 10일  
발행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및 편집 김보람, 후원홍보센터  
디자인 수카디자인, 김현철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기사 관련문의/구독신청 [news@unesco.or.kr](mailto:news@unesco.or.kr)

ISBN 979-11-90615-64-8  
간행물등록번호 PR-2025-DI-1

<유네스코 뉴스레터>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발간됩니다.  
<유네스코 뉴스레터>의 글에 담긴 필자나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뉴스레터  
구독하기



정기후원 참여하기